

경제학의 교훈
Economics in One Lesson

ECONOMICS IN ONE LESSON

by
Henry Hazlitt

Copyright © 1962 and 1979 Henry Hazlitt

Copyright © 1946 Harper & Brothers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1999 by The Korea Center for Free Enterprise,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Harper & Brothers through Imprima Korea.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Imprima Korea를 통해
Harper & Brothers와의 독점계약으로 자유기업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경제학의 교훈

헨리 해즐릿 저 • 강기춘 역

경제학의 교훈

헨리 해즐릿 저 • 강기춘 역

1판1쇄 인쇄 • 1999년 2월 22일

1판1쇄 발행 • 1999년 2월 26일

발행처 • 자유기업센터

발행인 • 송자

편집인 • 공병호

등록번호 • 제13-772

주소 •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화 • (대표) 3771-0451 팩시밀리 • 3771-0452

www.cfe.org

© 자유기업센터, 1999

자유기업센터에서 발간한 연구서는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 제작 및 문의 • 홍보실 (02) 3771-0454

ISBN 89-8429-008-4

값 9,000원

류들은 여러 국가에 너무 보편화되어서 많은 외국의 독자들은 내가 특히 그들 나라의 경제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는 대폭적인 개정을 해야 했다. 최근까지의 통계와 예시들을 추가한 것 외에도 1961년 보급판에서 다룬 임대료 규제에 관한 논의가 부적절해 보여서 그 절을 완전히 다시 썼다. 그리고 나는 ‘30년 이후의 교훈 The Lesson After Thirty Years’이라는 마지막절을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그 절은 왜 그 교훈이 다른 때보다도 오늘날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8년 6월
윌튼, 코네티컷주
헨리 해즐릿

이 책은 1946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8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보급판이 나와 있다. 정부 가격통제government price-fixing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 규제에 관한 문제는 이 책의 초판에서는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1961년 보급판에서는 임대료 규제rent control에 대한 새로운 절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나온 몇 가지 통계와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이 책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책은 어느 특정한 입법의 해악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원리에 대해 쓴 것이고, 일반적인 경제원리들과 경제원리들을 무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나는 주로 미국의 경험들을 예시했지만 내가 개탄하고 있는 정부간섭의 중

이 책은 마침내 크게 유행해서 거의 새로운 정설orthodox로 자리잡은 경제적 오류들에 관한 분석이다. 그동안 그 오류들이 정설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오류들의 자기모순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문제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동일한 전제들을 받아들인 수많은 ‘학파들schools’ 사이에도 이러한 자기모순들은 퍼져 있었다. 그러나 새로 나타난 한 학파와 다른 학파들의 차이점은 잘못된 전제들이 가져오는 불합리함을 새 학파가 다른 학파들보다 먼저 깨닫고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전제들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논리적인 결론들보다 덜 혼란스럽고 더 환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새 학파가 새로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 이러한 오류들 중의 몇 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정책들을 세우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경제학을 이해하는 확실한 지름길은 그러한 오류, 특히 그러한 오류들이 근거하고 있는 중심 오류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약간 야심적이고 호전적인 책제목이 나타내주는 바와 같이 이 책의 가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해설서이다. 이 책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주된 사상은 이 책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한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지금 훌륭한 혁신과 진보로 간주되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사실은 오래된 오류들의 단순한 회생回生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데 대한 또다른 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힘을 쓰고 있다.

이 책 자체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분석할 궤변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나타내는 말로써 이러한 형용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이 책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진실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학자는 그러한 형용사에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경제사상에서의 혁명, 즉 ‘상쾌한 출발fresh start’을 영원히 찾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의 마음은 오래된 사상만큼이나 새로운 사상들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기한 것과 독창적인 것에 대한 침착하지 못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노력은 일단 체쳐놓을 것이다. 모리스 코헨Morris Cohen은 “우리가 과거 모든 사상가들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 자신들의 작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희망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였다.”¹⁾

이 책은 해설서이므로 나는 (약간의 각주와 인용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감사의 표시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들이 노력해온 분야에 대해 글을 쓸 경우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은 최소한 3명의 저술가는 너무나 특별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다. 나의 주장을 설명해나가는 방식에서 나는 이제 거의 1백 년이나 된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의 에세이인 『당신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Ce qu'on voit et ce qu'on ne voit pas*』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현재 나의 작업은 사실상 바스티아의 소논문(pamphlet)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나는 필립 위스티드(Philip Wicksteed)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치경제학의 상식 *Commonsense of Political Economy*』에 있는 임금에 관한 절과 마지막에 요약해놓은 절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세번째로, 나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그의 책들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통화 인플레이션(monetary inflation)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오류들을 분석할 때 특정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저술가가 비난하는 것, 이런저런 문제로 특별히 강조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 그의 조건, 그의 애매한 표현들, 그의 비일관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따라서 칼 마르크스(Karl Marx), 도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 메이저 더글라스(Major Douglas), 케인즈경(Lord Keynes), 앨빈 한센 교수(Professor Alvin Hansen) 및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어느 특정한 저술가의 특정한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오류들 중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있는 경제적 오류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류들은 일단 명성을 얻는 단계에 도달하면 누가 그 오류를 처음으로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것들을 전파시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부분의 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미묘함이나 모호한 점은 없어진다. 학설(doctrine)은 단순화되고 조건, 애매함, 또는 수학 방정식의 그물망(network)에 묻혀 있던 궤변은 명백해진다. 따라서 내가 제시한 학설의 형태가 케인즈경이나 다른 특별한 저자들이 형성해온 학설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지지하고 있는 믿음과 정부행동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지 그러한 믿음의 역사적 기원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책의 관세, 가격통제, 인플레이션, 석탄·고무·면과 같은 상품에 대한 통제의 효과를 다룬 부분에서 통계를 많이 인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 언급하면서 통계적인 확증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면 원래 다루고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책이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나는 현업에 종사하는 신문기자로서 통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낡은 자료가 되며 최근 숫자로 대체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특정한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현실적인’ 논의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러분이 배워온 기본원리들에 비추어보면 통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정확하게 쓰고자 했고, 그리고 전문적인 것에서 벗

1) *Reason and Nature*(1931), p.x.

어나 단순하게 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경제학을 접해보지 않은 독자도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 개의 장은 이미 각각 독립된 글로 발표되었다. 원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아메리칸 스콜라*American Scholar*』, 『뉴 리더*New Leader*』에 발표했던 글들의 재인쇄를 허가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원고를 읽고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해준 루드비히 폰 미제스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의견들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1946년 4월
뉴욕
헨리 해즐릿

차 례

개정판 서문 • 5
초판 서문 • 7

제1장 교훈

제1절 교훈 • 17

제2장 교훈의 응용

제2절 깨진 창 • 25

제3절 파괴의 축복 • 28

제4절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 35

제5절 세금은 생산에 지장을 준다 • 43

제6절 신용은 생산을 감소시킨다 • 46

제7절 기계에 대한 저주 • 57

제8절 일을 늘리는 계획 • 72

제9절 군대와 관료의 해산 • 79

제10절 완전고용의 미신 • 83

제11절 관세의 보호는 누가 받는가 • 86

제12절 수출촉진 • 99

제13절 ‘평형’가격 • 105

- 제14절 특정 산업 살리기 • 114
- 제15절 가격체계의 작동방법 • 121
- 제16절 상품가격 ‘안정화’ • 129
- 제17절 정부의 가격통제 • 138
- 제18절 임대료 규제 • 150
- 제19절 최저임금법 • 159
- 제20절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상승을 가져오는가 • 167
- 제21절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 182
- 제22절 이윤의 기능 • 191
- 제23절 인플레이션의 망상 • 196
- 제24절 저축에 대한 비난 • 212
- 제25절 다시 강조하는 교훈 • 228

제3장 30년 이후의 교훈

- 제26절 30년 이후의 교훈 • 241

- 해제 • 255
- 관련서적 소개 • 263
- 색인 • 269

제1장

교훈

The Lesson

움을 받는 그룹은 그 정책 속에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그 그룹은 매수 가능한 최고의 지성인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모든 시간을 그 정책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정책이 정상적이라고 일반대중들을 확신시키거나 혼동을 주어 주제에 대한 명확한 사고를 거의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리추구의 변론 외에 매일 새로운 경제적 오류들을 양산하는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에 대한 효과만을 보며, 그 특정한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들에게 그 정책이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조사해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다.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secondary consequences)를 간과하는 오류이다.

훌륭한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의 전체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 나쁜 경제학자는 바로 눈에 띄는 것만 보지만 훌륭한 경제학자는 멀리 내다본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방침(course)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보지만 훌륭한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를 본다. 나쁜 경제학자는 특정한 정책이 특정한 한 그룹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고 또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지만 훌륭한 경제학자는 그 정책이 모든 그룹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구별은 명백해 보인다. 특정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결과를 살펴보는 조심스러움은 기본적인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의 한순간에 큰 기쁨이 되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들이 궁극적으로는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모든 소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5 경제학은 인간에게 알려진 다른 학문들보다 더 많은 오류들을 늘 동반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느 경우든 주제 자체에 큰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지만 가령 물리학, 수학, 또는 의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라 하더라도 경제학에서는 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수천 배로 증대된다. 그 요인이란 사리추구(selfish interests)이다. 모든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과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공공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에, 다른 정책들은 다른 모든 그룹들을 희생시키면서 한 그룹에게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정책들로 도

술에 취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깬 때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아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의 간이 망가지고 있고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보통사람들이 공갈에서부터 질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개인적이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적용해보면 게으름뱅이와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이 방종을 하면서도 그들이 부채와 가난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분야를 우리가 다룰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들이 무시된다. 오늘날 훌륭한 경제학자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축에 반대하고 경제를 구하는 방법으로 국가 전체의 낭비를 추천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지적하면 그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탕자처럼 건방지게 대답한다. 그리고 그러한 천박한 경구警句가 훌륭한 경구epigram와 가장 원숙한 지혜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과거 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들로 인해 우리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어제 나쁜 경제학자들이 우리들에게 무시하라고 강요했던 내일이 이미 오늘이 되었다. 몇몇 경제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들은 몇 개월 내에 명백해질 수도 있다. 다른 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들은 몇 년이 지나도 명백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다른 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명백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란 속에 닭이 있고 씨앗 속에 꽃이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정책 속에 그러한 장기적인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경제학의 모든 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축소될 수 있고 또한 그 교훈은 하나의 문장으로 축소될 수 있다. 경제학은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학은 그 정책이 한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들에게 미치는 결과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II

오늘날 세계에서 무서운 해를 끼치는 경제적 오류들의 90퍼센트는 이 교훈을 무시한 결과이다. 그러한 오류들은 모두 중심 되는 두 오류들 중의 하나 또는 두 개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보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그룹들은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그룹에 미치는 결과만을 보는 오류이다.

물론 그와 정반대 되는 오류도 가능하다. 어떤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이다. 그 오류는 순효과에서나 장기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정책들이나 개발에 의해 즉시 피해를 보는 그룹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오류를 범한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란 주로 직업 경제학자들(professional economists)이다. 오늘날까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경제문제를 다루는 거의 모든 대화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수많은 정치적인 연설의 오류, ‘새’ 경제학의 중심 되는 오류는 특별한 그룹들에게 미치는 정책들의 단기적인 영향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인 영향은 무시하거나 하찮게 본다. ‘새’ 경제학자들은 이것은 ‘고전 학파’나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보다 위대하고 거의 혁명적인 진보라고 스스로 우쭐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고전학과 또는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종종 무시한 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하거나 경시함으로써 훨씬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특정한 나무들은 자세하고도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숲은 간과한다. 그들의 방법들과 결론들은 흔히 아주 보수적이다. 그들은 때때로 17세기 중상주의mercantilism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란다. 사실 그들은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단번에 제거해버린 옛날의 모든 오류들에 빠져 있다(또는 만약 그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옛날의 그러한 오류에 빠질 것이다).

III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나쁜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오류를 대중들에게 더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슬픈 말들을 종종 한다. 경제적인 년센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정직한 사람들보다 선동정치가들이 연단에서 경제적 년센스를 주장하는 것이 더 그럴듯할 수 있다는 불평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선동정치가들과 나쁜 경제학자들은 반쪽 진리half-truths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안된 어떤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이나 그 정책이 어느 한 그룹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들의 방법으

로만 보면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안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그 정책이 다른 모든 그룹들을 희생시키면서 한 그룹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대응책이다. 즉 그 반쪽 진리를 다른 반쪽으로 보충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어떤 방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추론의 연속chain of reasoning을 종종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론의 연속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곧 지루해 하거나 부주의하게 된다. 어떤 용어를 남용하여 그 효과를 노리든 그것은 단지 ‘고전주의classicism’ ‘자유방임laissez faire’ ‘자본주의 옹호론capitalist apologetics’이기 때문에 추론을 따라가거나 그 장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나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줌으로써 이 지적 무기력과 게으름을 합리화한다.

우리는 교훈의 본질과 계속되는 오류들의 본질을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면 교훈은 납득되지 않을 것이고 오류들은 계속해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 그 예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먼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명백한 오류들을 발견하여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오류들을 발견하여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제2장

교훈의 응용

The Lesson Applied

깨진 창

3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예부터 시작해보자. 바스티아Bastiat를 흉내 내어 깨진 창유리를 선택해보자.

젊은 깡패가 제과점 창문에 벽돌을 던졌다. 가게주인이 화가 나서 달려나갔으나 그 깡패는 도망가버렸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창문의 뚫린 구멍과 빵과 파이 위에 산산조각이 나 있는 유리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잠시 후에 구경꾼들은 냉정한 반성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 중의 몇 사람들은 불행도 결국 밝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에게 또는 가게주인에게 확신시킨다. 그 사건은 어떤 유리가게 주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새 판유리 창문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250달러? 꽤 많은 돈일 것이다. 만약 창문이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다면 유리사업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물론 끝이 없다. 유리가게 주인은 다른 상인에게 지출할 250달러를 더 가질 것이고, 이것은 다른 상인이 또다른 상인에게 지출할 250달러를 더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한히 계속된다. 깨진 창문은 점점 확산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화폐와 고용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만약 구경꾼들이 결론을 내렸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논리적인 결론은 벽돌을 던진 깡패소년은 대중의 위협이 기는커녕 대중의 은인이었다는 것이 될 것이다.

2 이제 다른 면을 살펴보자. 구경꾼들이 처음 내린 결론은 최소한 옳다. 이 작은 만행vandalism은 우선 첫째로 다른 유리가게 주인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장의사가 사망소식을 듣는 것이 다행인 것처럼 유리가게 주인이 그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주인은 그가 새 양복에 지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250달러를 날릴 것이다. 그가 창문을 갈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양복(또는 동일한 가치의 필수품이나 사치품) 없이 지낼 것이다. 창문과 250달러를 가지게 된 대신에 그는 이제 단지 창문만 가지고 있다. 또는 그가 바로 그 오후에 양복을 살 계획을 세웠다면 창문과 양복을 가지게 된 대신에 창문을 가지고 양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사회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생겨났을 새 양복을 잃었고 그만큼 가난하게 되었다.

결국 유리가게 주인의 사업이득은 단지 재단사의 사업손실이고, 어떤 새로운 ‘고용’도 추가되지 않았다. 구경꾼들은 거레에 있어서 제과점 주인과 유리가게 주인 양자만을 생각했다. 그들은 잠재적인 제3자인 재단사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재단사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들은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새 창문을 볼 것이다. 그들은 양복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양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파괴의 축복

3 이로써 우리는 깨진 창을 마쳤다. 기본적인 오류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그 오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장을 하고 있는 깨진 창은 오류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오류이다. 그 오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만연해 있다. 그 오류는 대실업자들, 상공회의소 회원들, 노동조합 지도자들, 편집인·신문 칼럼니스트·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사평론가들, 가장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박식한 통계학자들, 명문대학에 있는 경제학 교수들에 의해 매일 엄숙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모두 파괴의 이득(advantages of destruction)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록 그들 중 몇몇은 작은 파괴행위에는 순이익이 있다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나 거대한 파괴행위에는 거의 무한한 이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화시보다 전쟁시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쟁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생산의 기적miracles of production’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축적된accumulated’ 또는 ‘지체된backed-up’ 수요에 의해 세계가 6번영한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그들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대체되어야 할’ 집들과 도시 전체를 흥얼거리며 계산하였다. 미국에서 그들은 전쟁중에 건설될 수 없었던 집들, 공급될 수 없었던 나일론 양말들, 낡아빠진 자동차와 타이어들, 폐물이 된 라디오와 냉장고들을 계산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오래된 친구인 깨진 창 의 오류가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이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찐 것이다. 이번엔 그것은 다른 모든 관련된 오류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것은 필요 need와 수요demand를 혼동시켰다. 전쟁으로 인해 많이 파괴될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전후의 필요는 더 커진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필요가 수요는 아니다. 유효한 경제수요는 필요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요구한다. 오늘날 인도의 필수품은 미국의 필수품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인도의 구매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따라서 그 구매력이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점을 지나치면 또다른 오류의 기회가 있고 깨진 창 의 신봉자들the broken-windowites은 보통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다. 그들은 ‘구매력’을 단지 화폐로 환산하여 생각한다. 이제 화폐가 인쇄기를 통해 인쇄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만약 생산물이 화폐적인 값으로 측정된다면 사실 조폐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다. 그러나 많은 화폐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질수록 화폐의 단위가치는 더 떨어진다. 화폐가치의 하락은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소득을 화폐로 환산하여 생각하는 확실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환산하면 그들이 더 적게 가지게 되고 더 적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들이 더 잘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의 ‘좋은’ 경제적 결과들을 제2차 세계대전의 공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시 인플레이션 덕분이었다. 그러한 결과들은 그에 상응하는 평화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역시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화폐환상money illusion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7 깨진 창 의 오류에 반쪽 진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체된’ 수요의 오류에도 반쪽 진리가 있다. 깨진 창은 우리에게 주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어떤 상품생산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집들과 도시의 파괴는 건축 및 건설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전시중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들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상품들에 대한 축적된 전후 수요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달러로 환산하면 낮은 구매력이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총체적인 수요증가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상품 대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전환이 주로 발생하였다. 유럽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새 집을 지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집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양만큼의 인력과 생산능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부족하게 되었다. 그들이 집을 구입함에 따라 동일한 양만큼의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하였다. 사업이 어느 쪽으로든 증가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필요성과 긴급성에 의해 생산활동력

이 자극된 경우는 제외하고) 그와 동일한 감소가 있었다.

요컨대 전쟁은 전후 노력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전쟁은 산업의 균형을 변화시켰다. 전쟁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끝난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모두 급속하고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독일과 같이 엄청난 파괴를 경험한 국가들은 프랑스와 같이 파괴가 덜했던 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서독이 더 확고한 경제정책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주택 및 다른 생활조건들로 돌아가려는 필사적인 필요가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재산의 파괴가 재산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누구도 집을 재건축할 필요가 그의 활동력을 자극한다는 이론으로 자신의 집을 태워버리지 않는다.

전후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력의 자극이 있었다. 맥콜레이 Macaulay는 그의 책 『영국사History of England』의 유명한 3장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3 어떠한 보통의 불행과 보통의 악정惡政도 물리적 지식의 지속적인 진보와 더 잘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한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한 국가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노력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치스러운 지출, 중과세, 불합리한 상업계약, 타락한 법정, 비참한 전쟁, 폭동, 박해, 대화재, 홍수 등이 자본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종종 발견되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이 전쟁이나 평화시에 파괴되는 것을 원하

지 않는다. 개인에게 해가 되거나 큰 손해가 되는 것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단에도 동등하게 해가 되거나 큰 손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추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들 중 많은 것들은 집단, 즉 ‘국가’를 추상개념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개인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에서 나오는데, 특히 오늘날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산이 파괴된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면 전쟁의 파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의 파괴가 총체적인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수요와 공급은 동일한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급은 수요이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사람들이 만든 상품의 공급은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상품들과 교환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이 점에서 농부들의 밀 공급은 자동차와 다른 상품들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구성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의 분업과 교환경제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실질적으로 현대의 모든 교환들이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형태와 임금지불과 같은 복잡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사실이 (몇몇 평판이 좋은 훌륭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9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다른 고전학파 저술가들은 비록 때때로 화폐사용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결과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근원적인 현실을 가리고 있는 ‘화폐베일the monetary veil’을 간파하였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현재의 비평가들보다 앞서 있었는데,

현재의 비평가들은 화폐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화폐로 인해 더 혼란을 일으켰다. 고임금과 고물가를 가져오는 더 많은 화폐의 단순한 발행, 즉 단순한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물의 생산과 교환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독일인들과 일본인들은 전쟁중에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그들의 낡은 공장들을 최신식 공장들과 장비들로 교체하여 오래되고 반은 고철이 된 공장들과 장비들을 가진 미국인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미국인들보다 전후 이득을 보았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러나 만약 독일인과 일본인이 그렇게 하여 실제로 순이득을 본 것이 명백하다면 미국인들도 당장에 그들의 낡은 공장들을 파괴하고 모든 낡은 장비들을 폐기시킴으로써 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사실 모든 나라들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오래된 모든 공장들과 장비들을 매년 폐기하고 새 공장들을 건설하고 새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다.

최적 교체율optimum rate of replacement과 최적 교체시기best time for replacement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장과 장비들을 교체할 최적 시기, 즉 노후화deterioration되고 구식화obsolescence되어 공장과 기계가 거의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거나 부負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파괴소방대wrecking crew를 불러야 하거나 새 장비들을 주문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폭탄이 떨어져 그의 공장과 장비들을 파괴해주면 제조업자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만약 이전의 감가상각과 구식화가 그의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의 재산파괴는 순효과면에서 보면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손실이 덜할 것은 사실이다. 새 공장들과 장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 공장들과 장비들의 구식화가 촉진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오래된 공장과 장비의 소유주가 이윤을 최대화하는 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장들과 장비들이 파괴된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새 공장들과 장비들을 교체할 자본과 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획득하거나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교손실comparative loss을 줄일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공장들이 감가상각과 구식화로 이미 가치가 없어지거나 부負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공장을 폭탄으로 파괴하는 것은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이나 사회주의 정부는 공장과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한 저축, 즉 자본축적을 할 수 없으면 공장과 장비들을 교체할 수 없다.

상계요인들offsetting factors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중에 발생한 기술의 발견이나 진보가 지금에 와서 개인이나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생산성에도 순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전후 수요는 결코 전쟁 전 수요와 동일한 형태의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함이 있다고 해서 실질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의 무자비한 파괴는 항상 손실, 불행, 또는 재난이라는 기본적인 진리와 특정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상계요인들이 순효과면에서 결코 혜택이나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는 안된다.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I

3 오늘날 세계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신념보다 더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신념은 없다. 모든 곳에서 정부지출은 우리들의 모든 경제적 재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된다. 민간산업이 부분적으로 불경기인가? 우리는 정부지출로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 실업이 있는가? 그것은 명백하게 ‘불충분한 개인구매력’ 때문이다. 치료책은 명백하다. 정부가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에 충분할 만큼 지출하면 된다.

엄청난 논문들이 이 오류에 근거하고 있고, 종종 이러한 종류의 학설들doctrines이 생겨나 그 논문들은 서로를 지지하면서 얽히고설킨 오류연결망network of fallacies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체연결망을 조사할 수 없다. 우리는 나중에 그 연결망의 다른 지류들branches을 다시 다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결망을 탄생시킨 오류의 근원mother fallacy, 즉 연결망의 축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이 주는 무료혜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세계는 무료로 어떤 것을 획득하는 계획들을 차례차례 말하고 싶어하는 소위 경제학자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결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부채를 축적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나중에 그러한 비범한 학설들을 다시 다룰 것이다. 과거에 그러한 유쾌한 꿈들이 항상 국가파산national insolvency이나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runaway inflation에 의해 산산이 깨져왔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할 것이다. 모든 정부지출은 결국은 세수稅收로 지불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단지 세금의 한 형태, 특히 사악한 형태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말할 것이다.

만성적인 정부차입과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오류의 연결망은 나중에 고려하도록 하고 이 절에서는 1달러의 정부지출은 즉각적이든 궁극적이든 1달러의 세금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지출이라는 가상의 기적은 다른 면을 드러낼 것이다.

일정량의 공공지출은 본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도로와 교량 및 터널, 병기고와 해군 공창, 입법부 건축물, 경찰과 소방서 등 일정량의 공공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와 같은 필요에 근거한 공공사업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용을 제공하는’ 수단이나 그렇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었던 부를 사회에 추가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공공사업이다.

다리가 건설된다고 하자. 만약 그 다리가 대중들의 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된다고 하면, 만약 그 다리가 없었다라면 해결할 수 없었을 교통문제를나 수송문제를 그 다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만약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면 개별적으로 그들의 돈을 지출했어야 했을 다른 것들보다 납세자 전체에게 그 다리가 더 필요하다면, 반대는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다리는 다른 종류의 다리이다.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필요는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프로젝트들’이 고안되어야 한다. 정부예산 낭비가government spenders들은 어디에 다리가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어디에 다리가 건설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동서를 연결하는 또다른 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리는 곧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그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방해자obstructionists와 반동주의자reactionaries로 간단히 처리된다.

3 다리에 대한 두 주장이 제기되는데 하나는 그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주로 듣게 되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리가 완성된 후에 주로 듣게 되는 주장이다. 첫번째는 그 다리가 고용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그 다리는 1년에 5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일자리는 그 다리가 없었다라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이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 외에 부차적인 결과를 보고 정부 프로젝트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림이 달라진다. 다리공사에서 일하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고용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다리건설비는 세금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 다리 건설에 지출되는 모든 돈은 납세자로부터 조달될 것이다. 만약 다리 건설에 1천만 달러가 소요되면 납세자는 1천만 달러를 낼 것이다. 그들은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 지출할 수 있었을 그 돈을 세금으로 빼앗길 것이다.

따라서 다리건설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모든 공공 일자리public job 때문에 다른 곳에서 민간 일자리private job가 파괴되고 있다. 우리는 다리건설에 고용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예산 낭비가들의 고용주장은 활기를 띠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결코 생겨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납세자들로부터 빼앗아간 1천만 달러 때문에 파괴된 일자리들이다. 그 프로젝트로 인해 기껏해야 일자리의 전환만이 있었다. 다리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많아지고 자동차 노동자, 텔레비전 기술자, 의류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부들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번째 주장에 부딪히게 된다. 다리가 존재한다. 그 다리가 추한 다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다리라고 가정하자. 그 다리는 정부지출이라는 마술로 존재하게 되었다. 만약 방해자와 반동주의자가 계속 반대하였다면 그 다리가 어디에 건설되었겠는가?

다리는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나라는 그만큼 더 가난해졌을 것이다.

3 여기서도 또 정부예산 낭비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들은 다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은 결코 생겨날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한 번 더 상상해볼 수 있다. 그들은 건설되지 않은 집, 생산되지 않은 차와 세탁기, 생산되지 않은 옷과 코트, 아마 재배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은 식료품들을 볼 수 있다. 창출되지도 않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품들을 한 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오래 간직할 수 없다. 단지 다른 것들 대신에 어느 하나가 창출되었다.

II

물론 다른 모든 형태의 공공사업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공공기금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도 역시 이 논리가 적용된다. 이것은 고소득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아마도 좀더 소득이 낮은 가족으로부터도 약간)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인 돈을 선택된 저소득 가족들에게 강제로 보조해주고 그들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임대료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여기서 공공주택의 모든 찬반양론을 논할 의향은 없다. 나는

공공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두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하나는 그것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생산될 수 없었던 부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 모두 세금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다. 공공주택을 위한 세금은 그것이 주택공급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만큼 다른 계통에서 일자리를 파괴한다. 그것은 건설되지 않은 개인주택, 생산되지 않은 세탁기와 냉장고, 대단히 많은 다른 상품들과 서비스의 부족을 역시 초래한다.

5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공주택은 자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매년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급할 자금만 조달하면 된다고 지적하는 대답들은 위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그 대답은 단지 납세자의 비용이 한 번에 집중되는 대신에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문제의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다.

공공주택 옹호자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이점은 집들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일을 마칠 때 집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살고 그들의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방으로 안내한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세금 때문에 파괴된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또한 생산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의 집중력, 즉 집들과 그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그 때문에 창출되지 못한 부를 생각하는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만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만약 그것에 대해 공공주택 옹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공공주택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상상의 세계이고 순수이론에 대한 반대라고 틀림없

이 무시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일인가? 버나드 쇼Bernard Shaw의 『세인트 존Saint Joan』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피타고라스Pythagoras의 이론을 들었을 때 “지독한 바보구먼! 눈으로 볼 수도 없나?”라고 대답한 것과 같다.

우리는 동일한 논리를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다시 한 번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 크기 때문에 착각optical illusion의 위험이 이전보다 더 크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강철과 콘크리트의 거대한 호arc인 댐, 사진사들의 숭배대상, 사회주의자들의 천국,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공건설·공공소유·공공운영이라는 기적의 상징이 있다. 거대한 발전기와 발전소가 있다. 전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었을 공장들과 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당들의 찬사 속에 나타나는 경제적 순이익이다.

여기서 우리는 TVA나 그와 같은 공공 프로젝트의 장점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원장ledger의 대변을 살펴보는 특별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이 개인들과 기업들로부터 추징되어 국가의 한 특정 부문에 지출되고 그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면 왜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하고 왜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로 간주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면 국가의 다른 부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너무나 커서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수 없었던’ 그것이 사실은 민간자본, 즉 세금으로 징수된 자본에 의해 건설되었다(또는 만약 돈을 차입했다면 그 돈은 결국 세금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사진촬영에 적합한 노리스 댐Norris

Dam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 때문에 결코 생겨날 수 없었던 민간발전소, 민간주택, 타자기, 그리고 텔레비전을 상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III

나는 공공지출 계획의 가장 유리한 예들을 신중히 선택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부예산 낭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예들과 대중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예들을 나는 선택하였다. 나는 ‘일자리를 주고’ ‘사람들을 일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수한 수많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프로젝트 자체의 유용성은 불가피하게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이 낭비적일수록 노동력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고용을 제공하려는 목적에 잘 부합된다.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납세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강제로 양도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거나 만들 경우 창출할 수 있는 1달러 지출당 부와 복지의 증가가 관료들이 생각해낸 프로젝트들로 인한 부와 복지의 증가보다 클 것이다.

세금은 생산에 지장을 준다

3 정부지출에 의해 창출된 부가 그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파괴된 부를 완전히 보상하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 아직도 있다. 국가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 낭비가들은 가령 국민소득이 1조 5천억 달러이고 1년에 연방세금이 3천6백억 달러라는 것은 단지 국민소득의 24퍼센트만 민간용도에서 공공용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거대한 회사처럼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위이며 국가가 관련된 모든 것은 단지 부기거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부예산 낭비가들은 그들이 B에게 지불하기 위해 A로부터 돈을 취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또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B에게로 가는 과정에서의 혜택과 만약 그에게 돈이 이전되지 않았다더라면 그가 가질 수 없었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에, 그들은 A에게 미치는 거래의 영향은 잊어버린다. B는 보이고 A는 잊혀진다.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세가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득세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세금징수를 당한 사람들의 행동과 유인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 만약 어떤 회사가 손실은 전적으로 회사가 감당해야 하고 이익을 볼 때는 1달러당 25센트만 가지는 것이 허용되고, 손실을 본 회계연도들을 이익을 보는 회계연도들로 적당하게 상계할 수 없을 때 회사의 정책들은 영향을 받는다. 회사는 영업을 확장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위험을 수반하는 영업만 확장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기존의 고용주들은 더 많은 고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고용주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성능이 향상된 기계와 좋은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생기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것만큼 좋고 값싼 생산물을 가지지 못하고, 실질임금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억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개인소득에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의 세금을 매겨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왜 그들이 정부를 위해서 1년중 6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일하고 자신들이나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동안만 일하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

신용은 생산을 감소시킨다

작한다. 만약 손실은 전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고 이익을 볼 때는 단지 일부분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자본으로 모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모험을 하고자 하는 자본 그 자체도 크게 축소된다. 자본이 축적되기 전에 세금으로 거두어간다. 요약하면 먼저 새로운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본의 형성이 방해받고, 그리고 형성된 자본의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방해받는다. 정부예산 낭비가들은 그들이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로 그 실업문제를 만들어낸다.

물론 일정량의 세금은 본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된다. 이 목적을 위한 적당한 세금은 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는 세금에 대한 보상 이상으로 생산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 그러나 세금으로 납부되는 국민소득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민간생산과 고용을 더 크게 방해한다. 총세금부담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을 세금을 고안해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1

40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때때로 정부반대(government hostility)만큼이나 두려울 수 있다. 이 가상적인 장려는 흔히 직접적인 정부신용의 양여나 민간대출에 대한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신용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는 나중에 여러 종류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신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분석을 복잡하게 하지만 논의되는 정책들의 결과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의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제안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신용

을 주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눈에 농부들은 단지 충분한 신용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택금융회사(mortgage companies, 보험회사 또는 지방은행들이 공급하는 신용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의회는 기존의 대출기관들이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갭gap을 항상 찾고 있는데 이 갭은 아무리 많은 대출기관들이 생겨나도 채울 수 없다. 농부들은 충분한 장기신용 및 단기신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즉각적인’ 신용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는 이자율이 너무 높다. 또는 민간대출이 부유한 농부나 안정된 농부에게만 가능하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새로운 대출기관과 새로운 형태의 영농대출(farm loans)에 관한 법률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의 신념은 두 개의 근시안적인 행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는 돈을 차입하는 농부들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전반부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직한 차입자는 모든 대출금은 결국 상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신용은 부채이다. 따라서 신용의 양을 증대시키는 제안들은 부채 부담을 증대시키지는 제안들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만약 그 제안들이 관습적으로 신용의 증대가 아니라 부채의 증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면 그 제안들은 상당히 호응을 덜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민간자금으로 농부들에게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 대출금이란 근저당 대출, 자동차·냉장고·텔레비전·트랙터·기타 농기계 등의 구입에 따른 할부용자, 농부가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팔아 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은행대출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

관료가 농부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출해주거나 농부의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경우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출금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농부로 하여금 그의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막는 대출이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유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의 상품통제 문제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다른 하나는 농부로 하여금 농장이나 노새나 트랙터나 세 가지 모두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농사를 시작하도록 자본을 제공하는 대출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유형의 대출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생계수단이 없는 가난한 가족이 있다고 하자. 그들에게 정부 구호물자만 주는 것은 무자비하고 또한 낭비이다. 그들을 위해 농장을 사주고, 농사를 시작하게 해주고, 생산적이고 자존심 있는 시민이 되게 해주고,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을 하게 하여 그들이 생산한 것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또는 여기 트랙터를 살 자본이 없어 원시적인 생산방법으로 고투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 그에게 트랙터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그의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 그는 증대된 농작물의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그만 부유하게 하고 독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증대된 생산량만큼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 그리고 대출금은 ‘자기변제적(self-liquidating)’이어서 농부가 상환하기 때문에 정부나 납세자들에게는 전혀 비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 주장은 결론을 내린다.

사실상 그러한 일은 민간 대출기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농장을 사고자 하는데, 가령 필요한 비용의 반이나 3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 농장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여 이웃사람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차입할 것이다. 만약 그가 트

랙터를 사고자 한다면 트랙터 회사나 금융회사는 그가 구입가격의 3분의 1만 내고 트랙터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트랙터로 인한 수입을 가지고 할부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민간 대출업자가 공급하는 대출금과 정부 대행기관이 공급하는 대출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모든 민간 대출업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운영한다(은행가는 그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손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자금으로 채워넣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운영할 때는 담보자산의 타당성, 상술, 차입자의 성실성 등을 결정하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중하다.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부가 대출금을 운영한다면 정부가 그러한 일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간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정부가 왜 하나? 그러나 정부는 항상 다른 기준으로 대출금을 운영한다. 사실 대출업무에 정부가 참여하지는 주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대출업자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민간 대출업자가 자신들의 돈으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즉 납세자들의 돈으로 정부가 모험을 하자는 것을 다르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때때로 정부신용의 옹호자들은 손실비용에 있어서 정부대출금이 민간대출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거리낌없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상환하는 차입자들과 심지어는 상환하지 않는 차입자들에 의해 발생한 추가생산으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특정 차입자에게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그 계획으로 인해 자금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간과할 때만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되고 있는 것은 단지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가 아니고 자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신용의 확장에 의해 도입되는 복잡함은 나중에 다룰 것이라고 이미 독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대출되고 있는 것은 농장이나 트랙터 그 자체이다. 농장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특히 단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트랙터의 경제적 잉여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트랙터의 생산도 제한되어 있다. A에게 빌려준 농장이나 트랙터는 B에게 빌려줄 수 없다. 따라서 A와 B 중 누가 농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A와 B의 장점이 무엇이며 각자가 생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A가 농장을 갖게 된다고 하자. 지역은행과 그의 이웃사람들은 그의 사람됨과 경력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가 좋은 농부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는 사업, 검약, 그리고 선견지명을 통해 농장가격의 4분의 1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이미 확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나머지 4분의 3을 대출해준다. 그리고 그는 농장을 얻게 된다.

모든 괴짜 통화신봉자(monetary cranks)들이 가지고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이상한 사상은 신용은 어떤 은행가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신용은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가 요구하는 대출금보다 더 큰 현금 가치가 있고 시장성이 높은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을 얻게 된다. 또는 그의 인격과 과거경력이 신용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가 신용을 얻게 된다. 그는 자신과 함께 신용을 은행에 가지고 온

다. 그것이 은행가가 그에게 대출해주는 이유이다. 은행가는 무료로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 그는 대출금의 상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지 더 유동적인 형태의 자산이나 신용을 덜 유동적인 형태로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은행가는 실수를 하고 그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고통을 받는다. 대출업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가치들이 생산되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이다.

은행가가 대출해주는 사람은 신용을 가지고 있는 A이다. 그러나 정부가 B를 걱정하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출사업에 발을 들여놓는다. B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 대출업자로부터 근저당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얻지 못한다. 그는 저축도 없다. 그는 좋은 농부로서 인상적인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정부의 구호를 받아야 할 시점에 있을 것이다. 정부신용의 옹호자들은 그에게 농장과 노새나 트랙터를 사기에 충분한 대출을 함으로써 농사를 시작하도록 하여, 유용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게 하자고 말한다.

개별적인 경우 그것은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기준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준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보다 위험이 더 클 것은 확실하다. 그들에 대한 대출로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훨씬더 높은 비율로 실패할 것이다. 그들은 훨씬더 비효율적이다. 그들은 많은 재원을 낭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신용의 수령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민간신용의 수령인들이 되었을 사람들의 희생으로 농장과 트랙터를 살 것이다. B가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농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A는 정부가 대출금을 운영한 결과 상승한 이자율로 인해 파산하거나, 정부가 대출금을 운영한 결과 상승한 농장가격으로 인해 파

산하거나, 그 주위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농장이 없어서 파산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정부신용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회가 생산하는 부의 양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왔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농장, 트랙터 등) 실물자산이 더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차입자의 손에 간 것이 아니라 덜 효율적인 차입자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II

5 농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면 이 문제는 더 명확해진다. ‘민간산업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제안이 자주 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돈으로 기꺼이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관료가 납세자의 돈으로 모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정책은 결국 많은 종류의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정책은 결국 뇌물을 대가로 친구에게 대출을 하는 편애(favoritism)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정책은 틀림없이 독직사건을 가져올 것이다. 그 정책은 납세자들의 돈이 실패한 기업에 낭비될 때마다 재차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 정책은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만약 정부가 위험을 떠맡을 것이라면 이익 역시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농부들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nonrecourse)’ 정부대출금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폐해들을 당분간 무시하고 이러한 형태의

대출에 따른 하나의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자본을 낭비하고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프로젝트나 기껏해야 미덥지 않은 프로젝트에 가용자본을 뿌릴 것이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용자본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손에 그 가용자본을 뿌릴 것이다. (인쇄기에서 방출되는 화폐권과는 다르게) 어느 시점에서 실물 자본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B의 손에 들어간 돈은 A의 손에는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중하다. 그들은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출업자들은 그들의 돈을 대출하기 전에 제안서를 자세히 검토한다. 그들은 손실가능성보다는 이익가능성에 비중을 둔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들은 정부 대출업자보다는 실수를 적게 할 것 같다. 먼저 돈이 자신들의 것이거나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정부 대출의 경우 돈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소망과 관계없이 세금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민간의 돈은 이자나 이윤과 함께 상환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곳에만 투자될 것이다. 이것은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반면에 정부의 돈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이 어떤 애매하고 일반적인 목적에 대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과업이 비효율적일수록, 다시 말해서 생산물의 가치와 관련하여 과업이 요구하는 고용의 양이 클수록 투자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간 대출업자는 지독한 시장검증을 통해 선택된다. 만약 실수하면 그들은 돈을 잃게 되고 더이상 대출할 돈이 없게 된다. 그들

이 과거에 성공을 했어야만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을 통해 그들의 자금을 얻게 된 비교적 소수의 대출업자를 제외한) 민간 대출업자들은 적자생존 과정(process of survival of the fittest)을 통해 엄격하게 선택된다. 반면에 정부 대출업자는 공무원 임용시험(civil service examinations)을 통과하고 가설적인 질문에 가설적으로 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나 대출을 해야 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고 대출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민간 대출이 정부대출보다 현존하는 재원과 자본을 훨씬더 잘 활용할 것이다. 정부대출은 민간대출보다 훨씬더 자본과 재원을 낭비할 것이다. 요약하면 민간대출과 비교할 때 정부대출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킬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들에 대해 정부가 대출하지는 제안은 B를 보지만 A를 잊어버린다. 그 제안은 손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본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그 제안은 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를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본이 투자되지 못한 프로젝트를 잊어버린다. 그 제안은 한 그룹의 즉각적인 혜택을 눈여겨보지만 다른 그룹들의 손실과 사회 전체의 순손실을 간과한다.

약간 덜 명백하지만 민간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정부보증 대출과 정부보증 근저당 대출에 대한 반대도 직접적인 정부대출이나 근저당 대출에 대한 반대만큼이나 강력하다. 정부보증 근저당 대출의 옹호자들 역시 궁극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실물자본이 대출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정체가 불분명한 A를 희생시키면서 신원이 밝혀진 B를 돕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 근저당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

지 않을 경우보다 악성대출이 더 많다는 것을 결국 의미한다. 인수
금down payment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나 없을 때 특히 그렇
다. 그들은 일반납세자가 강제로 악성 위험을 보조하고 손실을 떠맡
도록 한다. 그들은 집을 실제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
도록’ 조장한다. 그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주택의 과잉공급을
결국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건물건축을 과다하
게 자극하고 (보증 근저당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건축업을 결국
비용이 많이 드는 과잉확장으로 잘못 유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장
기적으로 그들은 전체 국민생산을 증대시키지 않고 악성투자
malinvestment만 조장한다.

III

우리는 이 절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때때로 정
부반대만큼이나 두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것은 정부대출
금에 적용되는 만큼이나 정부보조금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으로
부터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는 결코 기업에 대출해주지 않거나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뉴딜정책 지지자들New Dealers과 다른 국가통
제주의자들은 1932년 이후 설립된 재건금융회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주택소유자 대출회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와 다른 정
부 대행기관들을 이용하여 정부가 ‘사업을 구제할’ 방식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또는 궁극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는 기업에게 어떠한 금융지원도 해줄 수 없다. 정부의

자금은 모두 세금으로 거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훨씬더 자랑하는
‘정부신용’조차도 그 대출금은 결국 세수로 상환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에 대출을 하거나 보조금을 줄 때 정부
가 한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공한
4 민간사업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어떤 위급한 상황하에서는 이
것에 대한 그럴듯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없는 장점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수지가 맞는 제안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렇
지 않다는 것을 보여왔다.

기계에 대한 저주

I

9 순효과면에서 기계가 실업을 창출한다는 믿음은 모든 경제적 미혹들 중에서 가장 생존력이 있다. 수없이 파괴되었으나 그 믿음은 이전만큼 강하고 활력 있게 폐허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다. 장기간 지속되는 대량 실업이 있을 때마다 기계가 다시 비난을 받는다. 이 오류는 아직도 많은 노동조합 관행의 토대가 된다. 대중들은 노동조합 관행을 묵인하는데, 그 이유는 대중들이 실제로 노동조합이 옳다고 믿거나 아니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들이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가 실업을 초래한다는 믿음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보면 터무니없는 결론을 가져온다. 오늘날의 모든 기술적인 향상으로

우리가 실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시인도 필요없는 수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을 한 그 순간부터 실업을 창출하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그리 오래 거슬러 가지 않고 1776년에 출간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으로 돌아가보자. 이 훌륭한 책의 1장인 ‘분업Of the division of Labor’의 두번째 쪽에서는 편을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사용에 생소한 노동자는 “하루에 한 개의 편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하루에 20개의 편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한 노동자는 하루에 4천8백 개의 편을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아! 애덤 스미스 때에 이미 기계 한 대가 사용되면 240명에서 4천8백 명까지 편 만드는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만약 기계가 단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낸다면 편 만드는 산업에서 이미 99.98퍼센트의 실업이 있었다. 기계가 나쁜 것이 될 수 있었을까?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기계가 나쁜 것이 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 당시의 사건들과 양상을 좀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양말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양말 짜는 새 기계가 도입되자 (한 번 폭동에 1천 명 이상 되는) 수공업 노동자들에 의해 기계가 파괴되었고, 집은 불태워졌고, 발명가는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군대가 동원되어 폭동의 주동자들을 추방하고 교수형에 처하자 질서가 회복되었다.

폭도들이 자신들의 바로 앞날이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한 그들이 기계에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펠킨William Felkin은 그의 책 『기계가공에 의한 양말 제조업자의 역사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y Manufactures』

(1867)에서 (설명이 믿기 어렵지만) 영국에서 양말을 짜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5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된 배고픔과 비참함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가 영구적으로 사람들을 대체시킨다고 대부분의 폭도들이 믿고 있는 한, 그들이 잘못되었다.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양말산업은 19세기가 시작될 때 고용했던 사람들보다 최소한 1백 배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크라이트Arkwright(역자주 ; 영국의 방적기계 발명자, 1732~92)는 1760년 방적기계를 발명하였다. 그때 영국에는 물레를 이용하는 방적공이 5천2백 명, 베를 짜는 직공織工이 2천7백 명으로, 모두 7천9백 명의 사람들이 면직물 생산에 종사하였다. 아크라이트의 발명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쳤고 그 반대는 무력에 의해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 있는 지 27년이 지난 1787년의 의회 조사는 면방직업과 직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 수는 7천9백 명에서 32만 명으로 4천4백 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보여 주고 있다.

5. 만약 독자가 1889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웰즈David A. Wells의 『최근의 경제변화Recent Economic Changes』와 같은 책을 참고하면 낱자와 절대량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최신 기술에 약한 사람들technophobes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발견할 것이다. 몇 구절을 인용해 보자.

1870년부터 1880년까지 10년 동안 영국의 상선은 많이 이동하였는데 외국 입항과 출항으로만 보면 2천2백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이동에 고용된 사람들의 수는 1870년과 비교해

볼 때 1880년에는 약 3천 명(정확하게는 2,990명) 감소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증기로 감아올리는 기계와 부두와 선창에 양곡기grain elevator를 도입하고, 증기동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1873년 보호관세로 인해 철강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영국의 베세메르 제철Bessemer steel은 철강을 1톤당 80달러에 팔았다. 1886년 같은 국가에서 철강은 1톤당 20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고 팔리면서도 이윤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기간에 베세메르 전로轉爐의 연간 생산능력은 네 배나 증가했는데 노동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다.

1887년 세계에서 작동되는 증기기관이 내뿜는 동력의 양은 2억 마력, 즉 약 10억 명의 인력에 상당한다고 베를린 통계국이 추산하였다. 또는 지구상에 있는 노동인구보다 최소한 세 배가 된다.

이 마지막 숫자 때문에 1889년 당시 세계는 도대체 왜 사람을 고용하는지 웰즈 씨가 의아해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산업의 과잉생산이 만성적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 1932년 불황 때 실업을 기계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는 수법이 다시 한 번 시작되었다. 몇 개월 내에 기술주의자Technocrats라고 자칭하는 단체의 확설이 산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이 단체가 제창한 환상적인 수치를 열거하거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면서 독자를 고리타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주의자들은 기계가 영구히 사람들을 대체한다고 하는 본래의 오류로 되돌아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

하여 이 오류를 자신들이 새로 발견한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제시하였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한 산타야나Santayana의 격언을 단지 한 번 더 보여준 것이었다.

기술주의자들은 결국 웃음거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을 선도했던 그들의 학설은 오래 갔다. 그 학설은 노동조합이 만든 수많은 불필요한 작업규칙make-work rules과 과잉고용을 요구하는 관행featherbed practices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관행은 이에 대한 대중들의 혼동으로 인해 묵인되었고 심지어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코윈 에드워드Corwin Edwards는 1941년 3월 (TNEC로 잘 알려진) 국가경제 임시위원회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에서 미국 법무부를 대표하여 증언하면서 그러한 관행들의 셀 수도 없는 예를 인용하였다. 뉴욕시의 전기조합은 장비가 분해되어 작업장소에서 조립되지 않으면 뉴욕주가 아닌 곳에서 생산된 전기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여 고소를 당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배관 청부업자들master plumbers과 배관조합은 파이프 한쪽 끝의 나사가 잘려 있고 새 나사를 작업장소에서 붙여야 할 때만 미리 제조된 파이프를 조합이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지역의 도장공塗裝工 조합은 분무기의 사용에 제약을 가했고 솔로 페인트를 하는 느린 작업을 요구함으로써 단지 불필요한 작업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많은 사례를 이용하여 제약을 가했다. 지역 트럭운전자 조합은 뉴욕 도시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트럭은 이미 고용된 운전사 외에 지역운전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많은 도시에서 전기조합은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전기나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임 전기

관리 기사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전기건설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에드워드에 따르면, 이 규칙은 “종종 독서나 혼자서 카드놀이를 시간을 보내고 아침과 저녁에 전원을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그러한 불필요한 작업관행을 계속 인용할 수 있다. 철도산업에서는 화부firemen가 필요없는 기관차에도 화부를 고용하라고 조합은 고집한다. 극장조합은 무대장치기 사용하지 않는 연극에서조차도 무대장치 담당자scene shifters를 고용하라고 고집한다. 음악가조합은 소위 대역음악가를 요구했고 단지 축음기의 음반만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경우 오케스트라를 고용하라고 요구하였다.

1961년까지 오류가 사라진 조짐이 없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관료들도 ‘자동화automation’를 실업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자동화가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처럼 논의되었다. 사실 자동화는 지속적인 기술진보와 노동절약형 장비의 진보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에 불과하다.

II

그러나 오늘날조차도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만 노동절약형 기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 어떤 저술가가 책 한 권을 썼는데, 그는 그때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의 책은 노동절약형 기계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저개발국가가 그러한 기계를 도입하는 데 대해 반대하였다.1)

이것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은 모든 노동자를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19세기 초에 양말 짜는 기계, 증기동력 직기織機, 그리고 양털깎기 기계를 파괴한 영국 러다이트Luddite(역자주; 영국의 산업혁명에 반대하고 기계파괴 등 폭동을 일으킨 직공단원) 폭도들이 결국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거에 최신 기술에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을 산더미처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통계와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즉 이 경우 기계와 다른 노동절약형 장비들의 도입으로 인한 과거의 결과들이 왜 일어났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경제학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최신 기술에 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과거에는 모두 아주 좋았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더이상 노동절약형 기계를 개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다(그들 전업자들의 예언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당신이 그들에게 지적할 때 그들은 사실상 그렇게 주장한다). 엘리너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여사는 1945년 9월 19일자 『연합신문』의 칼럼에서 “오늘날 우리는 노동절약형 장비들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지 않아야만 유용한 것이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만약 노동절약형 기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실업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들은 기술분야에서만 아니라 문명개념으로 볼 때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기술진보를 불행으로 간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기술진보를 똑같이 불행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들 각자는 매일 자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노동을 절약하려고 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모든 고용주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즉 노동을 절약함으로써 결과를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총명한 노동자는 그에게 부여된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줄이려고 한다. 우리들 중 가장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증대시키려고 지칠 줄도 모르고 노력한다. 최신 기술에 약한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 모든 진보와 발명의 재주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고 간단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짐을 지고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운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왜 기차로 화물을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운송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잘못된 이론들은 결코 논리적인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으나 그 이론들이 결국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큰 해를 준다. 따라서 기술진보와 노동절약형 기계가 도입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세부내용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기에 널리 퍼져 있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사례별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이 큰 예를 가정할 것이다.

의류 제조업자가 이전과 비교하여 절반의 노동력으로 남녀 외투

1) Gunnar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New York: Pantheon Books, 1970), pp.400~401 and passim.

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는 기계를 설치하고 노동력을 반으로 줄인다.

언뜻 보면 이것은 확실한 고용의 감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계를 만드는 데 노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의류 제조업자는 절반의 노동으로도 더 좋은 옷을 생산할 경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옷을 생산할 수 있었을 때만 그 기계를 채택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후자를 가정한다면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의류 제조업자가 기계를 채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절약하기를 바라는 노동자의 수만큼 많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는 절약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기계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고용의 감소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절약형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고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자의 경우에도 순효과면에서 보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의류 제조업자는 기계를 채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기계의 도입으로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기계가 그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경제이익을 창출한 후에는 의류 제조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가진다(그는 단지 그의 경쟁자와 같은 가격으로 그의 외투를 팔지 남보다 싼값으로 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이 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제조업자, 즉 자본가인 반면에 노동자는 고용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이득은 바로 이 초과이윤에서 나온 것이다. 의류 제조업자는 이러한 초과이윤을 최소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며, 아마 그는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1) 그는 더 많은 외투를 생산할 더 많은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그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초과이윤을 사용할 것이다. 또는 (2) 그는 초과이윤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또는 (3) 자신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초과이윤을 지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초과이윤을 이용하든 그는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는 그의 경제이익의 결과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윤을 가지게 된다. 이전에 외투를 만드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했던 임금 중에서 그가 절약한 모든 돈은 이제는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에게나,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나, 자신을 위해 새 집이나 자동차를 공급해주거나, 또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보석류와 모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간접적인 임금으로 지불된다. 어떤 경우든 그가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던 만큼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멈출 수도 없다. 만약 이 진취적인 제조업자가 그의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큰 이익을 내면 그가 경쟁자들의 비용으로 그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하거나 그의 경쟁자들 역시 기계를 사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경쟁과 생산은 외투의 가격을 역시 끌어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기계를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더이상 큰 이윤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계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은 제조업자들은 이제는 결코 이윤을 낼 수 없는 반면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들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약된 돈이 외투의 구매자, 즉 소비자에게 양도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외투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살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외투를 만드는 데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외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외투의 수요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력적’이면, 즉 외투가격의 하락으로 외투에 대한 총지출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면 노동절약형 새 기계가 도입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만드는 데 고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양말과 다른 직물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은 관련된 특정 생산품의 수요탄력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외투의 가격이 거의 절반으로 깎였지만 가령 이전 가격 150달러에서 새로운 가격 100달러가 되면서 외투가 추가로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외투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50달러가 남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이 50달러를 다른 것에 지출할 것이고 거기에서 고용증대가 있게 된다.

요약하면 기계, 기술진보, 자동화, 경제이익과 효율성이 순효과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일자리에 몰아내지 않는다.

III

물론 모든 발명품과 발견들이 ‘노동절약형’ 기계는 아니다. 정밀 기계, 나일론, 투명 합성수지, 합판 및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과 같은 것들은 단지 제품의 질만 향상시킨다. 전화나 비행기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노동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한다. X-레이 기

계, 라디오,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와 같은 것들은 발명되지 않았다더라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공포증(technophobia)의 특정한 대상이 되어온 기계종류들을 우리는 앞에서 실례로 들었다.

물론 기계가 순효과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일자리에 몰아내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계가 없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때때로 주장한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 기계는 특정 산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확실히 창출할 수 있다. 18세기 직물산업에서의 수차들은 적절한 예들이다. 현대의 수차들도 그 수차들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1910년 14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새롭게 창출된 자동차산업에 고용되었다. 1920년 제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25만 명이 고용되었다. 1930년 제품향상과 비용절감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은 38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1973년에는 94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1973년에 5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데 고용되었고 39만 3천 명이 전자부품을 만드는 데 종사하였다. 발명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계속 창출되었다.

기계는 일자리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산업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전인 18세기 중반에 비해 네 배나 증가하였다. 기계가 이 인구증가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기계가 없었더라면 세계는 인구증가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중 4명당 3명은 우리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도 기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계의 기능과 결과를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기계의 실질적인 결과는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장 원시적인 경제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대단히 힘든 바로 그 완전고용은 산업발전이 가장 지체된 국가들의 특징이다. 완전고용이 이미 달성된 곳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가 없는 한 새로운 기계, 발명과 발견들이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올 수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실업(여기서 실업이란 비자발적인 실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실업을 말한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반복하지만 기계가 하는 일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계는 이 일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는데 (외투의 실례에서처럼) 소비자들을 위해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킨다. 다시 말하면 기계는 명목임금을 상승시키거나 가격을 떨어뜨려 동일한 명목임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증가시킨다. 때때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추구하는 통화정책에 대부분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계와 발명 및 발견들은 실질임금을 증가시킨다.

IV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경고할 것이 있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부차적인 결과를 보았고 또 특정한 통화정책과 발전의 장기적인 영향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의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면서 때때로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를 무시한 것은 그들의 결점이었다. 그들은 발전이 특정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졌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초기 발명 중의 하나인 양말 짜는 기계를 도입한 결과 영국의 많은 양말 짜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과 그와 닮은꼴인 현대의 사실들 때문에 어떤 저술가들은 단지 어떤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을 보는 정반대되는 극단을 취하였다. 어떤 새 기계가 도입되어 조 스미스 Joe Smith가 일자리를 잃는다. “조 스미스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라고 이러한 저술가들은 주장한다. “결코 조 스미스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조 스미스에게만 눈을 고정시키고, 새 기계를 만드는 데서 새 일자리를 얻은 톰 존스 Tom Jones,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자리를 얻은 테드 브라운 Ted Brown, 이전의 반값으로 이제 외투를 살 수 있는 데이지 밀러 Daisy Miller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조 스미스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반동적이고 무의미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종말을 고한다.

● 그렇다. 우리는 조 스미스에게 최소한 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 그는 새 기계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아마 그는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일자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시장에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느라 몇 년의 시간을 바쳐왔다. 그의 이전 고용주가 낡은 기계나 갑자기 구식이 되어버린 작업에 투자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일을 늘리는 계획

그도 자신과 그의 낡은 기술에 대해 투자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숙련노동자였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 이제 그는 하룻밤 사이에 비숙련노동자가 되었고 그가 가진 기술이 더이상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비숙련노동자의 임금만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조 스미스를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된다. 그의 비극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의 모든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적인 비극들 중의 하나이다.

조 스미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즉 그가 스스로 조정해나가도록 해야 하는지, 그에게 퇴직금이나 실업보상금을 주어야 하는지, 그에게 정부구제금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여기서 예시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이나 발전의 중요한 결과들, 즉 특정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과 모든 그룹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되는 교훈이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면 그것은 새 기계와 발명 및 발견들이 고용, 생산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론들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다루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거의 없다.

a 여러가지의 불필요한 작업과 과잉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관행에 대해 나는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행들과 그러한 관행들에 대한 대중들의 묵인은 기계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근본적인 오류에서부터 발생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오류와 관련하여 또다른 믿음이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귀찮은 방법을 생각해내어 일의 양을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나눠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오류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자세한 노동세분화(subdivision of labor)의 배경이 된다. 대도시의 건축업에서 이 세분화는 악명이 높다. 벽돌공이 굴뚝을 만드는 데 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석공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전기기사는 전기 연결공사를 위해 나무판을 뜯어내고 다시 붙일 수 없다.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것은 목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배관공은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타일을 제거하고 다시 붙일 수 없다. 그것은 타일공의 일이다.

6. 경계선에 있는 유형의 일을 하기 위한 독점권 때문에 노동조합들 사이에 ‘관할권’을 다투는 맹렬한 파업이 일어난다. 행정절차에 관한 검찰총장위원회(Attorney-General’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Procedure)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철도회사는 국가철도조정위원회(National Railroad Adjustment Board)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였다.

전화를 한다거나 전철기를 열고 닫고 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철도에 있어서 각각 분리된 작업은 지금까지는 특정한 노동자계층의 독점소유권이다. 만약 다른 노동자계층이 통상적인 임무를 하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그는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초과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특정한 계층에서 실직했거나 일시 해고된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도록 요청받지 않았어도 원래 그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독단적인 노동세분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세분화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세분

화가 항상 생산비용을 인상시키고 순효과면에서 보면 작업량이 줄어들고 더 적은 양의 재화가 생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두 사람을 강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집주인은 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고용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지출할 돈이 상당히 적게 남게 된다. 그의 욕실에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하는 데 정상적인 비용보다 두 배나 더 들었기 때문에 그가 원했던 새 스웨터를 사지 않기로 결정한다. ‘노동자’가 더 잘살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타일공을 하루 고용한다는 것은 스웨터를 찢는 사람이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하루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더 형편이 나빠진다. 수리된 샤워기와 스웨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샤워기는 고쳤지만 스웨터는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스웨터를 국부의 일부분으로 계산한다면 국가는 스웨터 하나가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독단적인 노동세분화로 추가적인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의 순효과를 상징한다.

6. 그러나 보통 노동조합의 대변인과 입법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일을 늘이는’ 다른 계획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이 ‘일을 늘일’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줄’ 것이라는 믿음은 기존의 연방 임금-시간법(Federal Wage-Hour Law)에 초과근무 벌칙조항이 포함되게 된 중요한 배경의 하나였다. 미국의 각 주에서 여성과 미성년자를 주당 48시간 이상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의 법률은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근로의욕에 해가 된다는 확신에 근거하였다. 몇몇 법률은 장시간 노동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믿음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노동시간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간당 임

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연방법의 조항은 가령 주당 45시간의 노동은 건강 또는 효율성에 해가 된다는 믿음에 기본적으로 근거하지 않았다. 그 조항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주급을 증대시키기를 바라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고용주가 노동자로부터 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바람으로 삽입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당 40시간 또는 주당 4일 근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실업을 피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다.

개별적인 노동조합에 의해 시행되든 법률로 시행되든 그러한 계획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보면 문제가 명백해질 것이다. 첫번째는 시간당 임금의 변화 없이 표준적인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미 고용된 개별노동자와 동일한 주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당 임금을 충분히 인상시키면서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시간당 임금의 변화 없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축소된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될 당시 많은 실업이 있다면 이 계획은 틀림없이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에 동일한 비율로 실업이 있고 새로 고용될 남녀 노동자가 이미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보다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은 가망없는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그 계획이 이전과 동일한 노동자수와 1인당 1시간 노동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한다고 하자. 각 기술에 있어서 적절한 수의 추가적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노동자가 생산비용을 올리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시간당 임금의 증가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결과가 무엇인가?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더라도 각자는 더 적은 시간 일을 할 것이고 따라서 1인당 1시간 노동량에는 순증가가 없을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증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금료 총액과 ‘구매력’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거의 현실화되지 않을) 가장 좋은 가정하에서도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가 사실 이전에 고용이 안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일만 발생할 것이다. 새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자가 받아오던 주급의 4분의 3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자들 역시 이전에 받던 주급의 4분의 3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여가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희생이다.

‘일을 늘리기’ 위하여 주당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보통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줄어든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33.33퍼센트 인상함으로써 보상한다. 가령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은 주당 40시간 노동으로 주당 평균 226달러를 벌었다고 하자. 30시간만 일하고도 226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은 평균 7.53달러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6 그러한 계획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번째로 가장 명백한 결과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전에 주당 40시간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생산비용, 가격 및 이윤을 고려한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그들은 주당 노동시간은 줄이지 않고도 시간당 임금의 증가를 향유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당 30시간 일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주당 소득을 버는 대신에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 그들의 주당 총소득은 3분의 1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생산비용과 가격을 고려한 임금수준만큼이나 높은 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그리고 그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실업이 그들이 그 이상으로 이미 받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면) 시간당 임금의 33.33퍼센트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는 가격, 생산 및 비용의 현재 상태가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높은 임금의 결과 실업은 이전보다 훨씬더 커질 것이다. 가장 비효율적인 회사들이 도산할 것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도처에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높은 생산비용과 공급부족은 상품가격을 인상시킬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으로 더 적은 양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실업증가는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고, 따라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하느냐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통화인플레이션 정책이 추구되면 그것은 단지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위장된 방법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실질임금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 즉 구매력으로 볼 때 이전과 동일해질 것이다. 그 결과는 마치 시간당 임금의 증가 없이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된 것과 동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이미 논의되었 다.

요약하면 일을 늘리는 계획은 우리가 고려해온 것과 동일한 환상 6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룹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고용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일을 늘리는 계획은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정에도 근거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오류는 있을 수 없다. 일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필요나 소망이 만족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해야 할 일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현대의 교환경제에서 가격, 비용 및 임금이 서로 최선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고려할 것이다.

군대와 관료의 해산

I

6 모든 큰 전쟁 이후 군대를 해산하자는 제안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군대를 위한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실직하게 된다는 큰 두려움이 항상 뒤따른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출되면 민간산업에서 그들을 다시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실업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이 그 과정의 한쪽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본다.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구매력'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만약 공공예산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대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군인들을 지원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이전에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납부해야 했던 자금을 보유하고 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추가가금이 생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군인방출로 증가된 추가노동력을 고용할 것이다.

만약 군인들이 정부차입과 다른 형태의 적자재정과 같이 불균형 예산에 의해 지원되어 왔다면 그 경우는 약간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적자재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려할 것이다. 적자재정은 지금까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충분하다. 만약 적자예산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전에 전시군대 wartime army를 지원하는 데 지출했던 금액만큼 단지 세금을 줄임으로써 이전과 동일한 적자예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를 해산하면 군대해산을 시작했던 시점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이전에 민간지원을 받았던 군인들이 군대해산으로 인해 단지 다른 민간인에 의해서 지원받는 단순한 민간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급하는 민간인이 될 것이다. 군대해산이 없었더라면 군대에 남아 있었을 사람들이 더이상 국방에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들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낭비가 될 것이다. 그들은 비생산적일 것이다. 그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납세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납세자들은 자금의 일부분을 동일한 대가의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동료민간인으로서 그들에게 양도한다. 모든 사람의 부유인 국민총생산은 높아진다.

II

인원수가 많고 그들이 받는 보수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사회에 주

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짓’이라고 야단법석을 떠다. 당신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구매력’을 없애버릴 것인가? 당신은 공무원들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집주인과 소매상인들에게 손해를 줄 것인가? 당신은 단지 ‘국민소득’을 줄이고 있으며 불경기를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 수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해고된 공무원들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특정한 소매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보는 데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관료들의 자리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에 납부했던 돈을 이제 납세자들이 가질 것이라는 점이 또다시 잊혀지고 있다. 전직 공무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납세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최소한 올라간다는 것이 또다시 잊혀지고 있다. 이전에 이러한 공무원들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특정 소매상인들의 장사가 안되면 최소한 그만큼 다른 소매상인들이 다른 곳에서 벌 것이다. 워싱턴이 덜 번영하고 가게 수가 줄어들지만 다른 도시는 더 많은 가게가 번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공무원이 없어지면 그들이 없어진 만큼만 나라가 잘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훨씬더 잘살게 된다. 공무원들이 이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개인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납세자들의 추가구매력이 그렇게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고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식객

parasites이 아니라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

나는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 경찰, 소방수, 환경미화원, 위생관, 판사, 입법자 및 행정관료들은 민간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하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들은 민간산업이 법, 질서, 자유 및 평화의 분위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용에 있는 것이지 공무원 급여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구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매력’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면 굉장하다. 그것은 험박꾼이나 당신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다. 당신의 돈을 빼앗은 후 그는 더 큰 구매력을 가진다. 그는 그 구매력으로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재단사, 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그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마다 당신 자신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하나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적게 지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하나 덜 제공한다. 당신이 도둑에게 돈을 빼앗길 때 당신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필요없는 관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통해 당신이 돈을 빼앗길 때 아주 동일한 상황이 된다. 만약 필요없는 관료들이 단지 게으름뱅이라면 당신은 사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날 그들은 열심히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정력적인 개혁가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 그룹을 유지하지는 주장이 기껏해야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하지는 주장일 경우 그것은 그들을 없앨 때가 왔다는 표시이다.

완전고용의 미신

1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의 경제적 목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인류의 전반적인 경제진보는 동일한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얻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등이 아니고 노새의 등에 짐을 올려놓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수레바퀴와 짐마차, 철도와 트럭을 발명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이 수많은 노동절약형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명의 재주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초보적이어서 그것이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잊혀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말할 때 쑥스러워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다는 첫번째 원칙은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할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 없는 완전고용은 필수적인 부산물이다. 그러나 생산이 목적이고 고용은 단지 수단이다. 우리는 완전고용 없이 최고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생산 없이도 아주 쉽게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원시부족들은 벌거벗었고, 먹을 것과 집도 형편없었으나 실업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난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본부족의 원인과 결과인) 원시적인 생산 방법이지 실업이 아니다. 일단 완전고용이 완전생산의 목표와 분리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완전고용보다 획득하기 쉬운 것이 없다. 히틀러Hitler는 거대한 군비 프로그램으로 완전고용을 제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관련된 모든 나라에 완전고용을 제공하였다.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도 완전고용이다. 압제정치는 항상 완전고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들은 완전생산법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고용법을 제안한다. 사업가위원회조차도 완전생산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나 완전고용 및 완전생산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아니라 ‘완전고용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를 추천하였다. 모든 곳에서 수단이 목적으로 승격되고 목적 그 자체는 잊혀진다.

임금과 고용은 생산성 및 생산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논의된다. 해야 할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주당 30시간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보다 선호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수많은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관행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묵인된다. 라디오 방송곡이 필요한 음악가보다 두 배를 고용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망하게 하겠다고 페트리로Petrillo가 위협할 때 그가 궁극적으로

관세의 보호는 누가 받는가

는 단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다. 새로 생겨난 공공사업촉진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 (WPA))은 수행되는 과업의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즉 노동이 가장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해내는 행정관리들의 비상한 재주의 표시로 생각되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 선택의 문제라면 솔직하게 원조물자로 놓고먹는 일부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최대 생산물을 얻는 것이 생산을 파괴하면서 불필요한 수많은 형태의 위장된 작업으로 ‘완전 고용’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문명의 진보는 고용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의미해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을 없애고, 많은 노인들이 하는 작업들을 제거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더욱 부유해져왔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미국 인구 중 훨씬 적은 비율이 일해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산하고 그 결과 우리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질문이다. 오늘날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는 분배할 것이 더 많아지면 결국 더 쉽게 해결된다.

우리가 생산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주로 강조하면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1

7 전세계에 걸쳐 정부가 경제정책을 단순히 되풀이하기 때문에 진지한 경제학자들이 자포자기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국제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일반적인 생각은 아직도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따라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이론의 정교화와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그들이 물어볼 것 같다. 현재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은 17세기 및 18세기의 정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주장하는 실질적인 이유들이 모두 동일하고 내세우는 명분 역시 동일하다.

2백여 년 전에 나온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이후 자유무역의

문제는 수천 번 주장되어 왔으나 아마 그 책에서 주장된 것보다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주장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미스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싼값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기본 명제에 근거하였다. “그 명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의 불순한 꾀변이 인류의 상식을 혼동시키지 않았다더라면 그 명제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라고 스미스는 계속 기록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은 노동의 특화라는 견해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사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드는 것은 결코 집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총명한 가정의 좌우명이다. 재단사는 자신의 신발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제화공으로부터 신발을 구입한다. 제화공은 자신의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재단사를 이용한다. 농부는 옷이나 신발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재단사와 제화공을 이용한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이웃에 대해 어떤 우위가 있는 방식으로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고 자기 생산물의 일부나 생산물을 판 돈으로 다른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신중한 행위가 국가에게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개인들에게 신중한 행위가 국가에게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류가 아직도 끊을 수 없는 오류였

다. 오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심 되는 오류이다. 그것은 관세가 특정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오류이다.

II

미국의 어떤 모직스웨터 제조업자가 의회나 국무부에 가서 관련 위원회나 공무원들에게 영국산 스웨터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웨터 한 벌을 30달러에 팔고 있지만 영국 제조업자들은 품질이 같은 스웨터를 25달러에 팔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자가 계속 사업하기 위해서는 5달러의 관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지출함으로써 고용을 제공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으면 실업과 구매력의 하락을 초래하고, 또한 그것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관세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그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의회는 관세의 축소나 폐지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이 제조업자와 그 고용인만을 보거나 미국의 스웨터 산업만을 보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주목하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결과들을 무시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

보호관세의 로비스트들은 사실상 틀린 주장들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스웨터 제조업자가 주장했던 것들과 아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스웨터 제조업자가 계속 사업을 하고 그의 노동자가 스웨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5달러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관세폐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예를 일부러 선택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는 주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이 생겨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는 폐지될 수 없는 관세를 유지하지는 주장을 선택했다.

관세가 폐지된다. 제조업자는 파산한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그들이 후원했던 특정 소매상인들은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추적하기 훨씬더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실질적인 결과들도 역시 있다. 이전에 한 벌에 소매가로 30달러 하던 스웨터를 이제는 25달러에 살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질의 스웨터를 더 싸게 사거나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스웨터를 살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동질의 스웨터를 산다면 그들은 스웨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5달러가 남게 되는데, 이 돈은 이전의 조건하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돈이다. 그들이 수입 스웨터에 지불한 25달러는 미국 제조업자가 확실히 예언한 것처럼 영국 스웨터산업의 고용을 도와준다. 5달러 남은 돈으로 그들은 미국 내 다른 산업의 고용을 도와준다.

그러나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국 스웨터를 구입함으로써 그들은 미국 상품을 살 수 있는 달러를 영국인들에게 제공한다. 사실 (만약 변동하는 환율, 대출금, 신용 등과 같은 복잡한 것들을 여기서 무시하면) 미국 상품을 사는 것만이 영국인들이 이 달러를 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영국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팔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들로부터 더 많이 살 수 있다. 만약 그들의 달러가 영구히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더 많이 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한 결과 우리는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스웨터산업에서 고용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국의 세탁기나 비행기 제조산업에 훨씬더 효율적으로 고용된다. 순효과면에서 미국인의 고용은 감소하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양국의 노동자들은 비효율적이고 강제적으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완전히 고용된다. 양국의 소비자들은 더 잘살게 된다. 그들은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스웨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고 영국 소비자들에게는 세탁기나 항공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된다.

III

이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관세부과의 영향을 처음부터 살펴보자. 외국산 니트상품에 관세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관세 없이 외국산 스웨터를 사는 데 익숙해 있었고, 스웨터에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스웨터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관세부과로 미국 소

비자에게 제공되는 영국 스웨터의 비용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어서 미국 제조업자들은 스웨터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이 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구입하는 모든 미국산 스웨터에 대해 사실상 그들은 5달러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돈은 새로운 스웨터산업으로 인해 인상된 스웨터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전에 스웨터 산업에 고용될 수 없었던 미국인들이 스웨터 산업에 고용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이나 국가 전체로 볼 때 고용에는 순증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는 동질의 스웨터에 5달러를 더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살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5달러만큼 지출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거나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산업들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모직스웨터 산업에 5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5만 명만큼 더 적은 사람들이 고용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은 눈에 보일 것이다. 그 산업의 고용인 수, 그 산업에 투자된 자본, 그 산업 생산물을 달러로 환산한 시장가치는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스웨터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매일 공장에 출퇴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는 매우 뚜렷하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다른 산업들의 축소, 다른 곳에서 5만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손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스웨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총명한 통계학자도 다른 일자리의 손실범위가 어떻게 될지,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산업별로 정확하게 해고되었으며 얼마나 많

은 사업손실이 특정 산업별로 정확하게 발생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생산활동에 퍼진 손실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사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5달러를 그대로 가질 경우 개별적으로 이 5달러를 어떻게 지출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짜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는 환상에 빠질 것이다.

IV

스웨터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미국인의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로 인해 영국의 임금수준으로 미국인들이 스웨터 산업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러한 기술을 가진 미국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스웨터산업에서 미국인들이 일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관세의 결과 일반적으로 미국 임금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자리 수에 있어서 순증가가 없고, 상품수요에서도 순증가가 없고, 노동생산성에서도 순증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관세의 결과 노동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세장벽의 실질적인 영향이다. 덜 명백하지만 실질적인 손실이 관세로 인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득을 단순히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관세는 국가적으로 순손실을 가져온다. 수세기에 걸친 불순한 선전과는 대조적으로 관세는 미국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더 명백하게 살펴보자. 관세로 보호된 품

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품목들을 사기 위해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이다. 산업 전체로 보면 순이익이 없다. 그러나 외국상품에 대해 구축된 인위적인 장벽의 결과 미국의 노동, 자본 및 토지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편향(偏向)된다. 따라서 관세장벽의 결과 미국 노동 및 자본의 평균 생산성은 하락한다.

8) 이제 우리가 관세장벽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소비자가 자기 돈으로 더 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스웨터와 다른 보호상품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일반적인 구매력은 감소한다. 관세의 순효과가 명목임금을 내리거나 명목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어떤 통화정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관세가 보호받는 산업에서는 이전보다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더라도 모든 산업을 다 고려하면 순효과면에서 관세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현혹시키는 선전으로 오염된 사람들만이 이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자본 및 인적 자원을 사용하는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역과 수송에 대해 구축된 인위적인 장애물로부터 우리가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관세장벽의 구축은 실제 장벽의 구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호주의자들이 습관적으로 전쟁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들은 외국 생산품의 “침입을 격퇴하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재정분야에서 제안하는 수단들은 전쟁터에서의 수단들과 같다. 이 침입을 격퇴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은 외국 군대가 시도하는 침입의 속도를 늦추거나 격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전차 장애물, 참호 및 철조망과 같다.

외국 군대가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싼 수단, 즉 더 큰 탱크, 지뢰탐지기, 철망을 끊고 개울을 건너고 다리를 놓는 공병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관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비싸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이 개발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비행기나 배, 더 좋은 도로와 다리, 더 좋은 기관차와 트럭을 개발함으로써 영국과 미국 또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수송비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이전보다 상업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으로써 효율적인 수송에 대한 투자를 상쇄한다. 우리는 스웨터를 수송하는 데 1달러 적게 들게 하고는 스웨터가 수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로 2달러를 증가시킨다. 유리하게 수송될 수 있는 화물운송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효율적인 수송에 대한 투자 가치를 감소시킨다.

V

관세는 소비자의 희생으로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맞다. 관세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특정 관세로 인해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는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관세를 강제로 지불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관세문제가 전체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전체소비자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관세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세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세는 다른 모든 미국 생산자, 특히 상대적으로 큰 잠재적인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희생으로 관세로 보호받는 생산자를 도와준다.

우리는 하나의 과장된 예를 통해서 이 마지막 관점을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관세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관세장벽이 절대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수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미국에서 스웨터 가격이 5달러 상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스웨터에 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1백 개의 미국 산업에 각각 평균 5센트씩 적게 지출할 것이다(이 수치는 단지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대칭적인 손실의 분배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스웨터산업 자체도 다른 산업에서의 보호로 인해 틀림없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함을 잠시 제쳐놓을 수 있다).

8 이제 외국의 산업들은 미국에서 그들의 시장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은 달러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미국 상품을 결코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들은 이전에 그들이 외국에 판매한 비용과 비례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산업은 원면생산자, 구리생산자, 재봉틀·농기계·타자기·상업용 비행기 제조업자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높은 관세장벽은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정도는 작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는 미국의 생산구조를 변화시킨다. 관세는 일자리의 수, 직업의 종류, 그리고 다른 산업과 비교한 한 산업의 상대적인 크기를 변화시킨다. 관세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우리의 산업을 확대시키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우리의 산업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관세의 순효과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더 큰 교역을 할 수 있었을 나라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산더미 같은 찬반의 주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세는 고용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관세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시적인 실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구조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갑작스런 변화는 심지어 불경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임금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관세는 효율성, 생산 및 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항상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관세에 관한 모든 중요한 오류들은 이 책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심 되는 오류에서 유래한다. 단일 관세율이 어떤 한 생산자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소비자 전체와 다른 모든 생산자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잊어버린 결과 관세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한다.

(나는 몇몇 독자로부터 “왜 관세로 모든 생산자들을 보호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생산자들을 획일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이미 외국 생산자들보다 ‘많이 팔고 있는’ 국내 생산자들을 결코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자들은 관세로 인한 구매력의 전환으로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관세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유일한 최후 예방책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계의 영향을 살펴볼 때 필요로 했던 것과 동일한 예방책이다. 관세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최소한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관세가 모든 사람의 희생으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어떤 산업의 소유주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이 구입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산업만이 유일하게 보호를 받는다면 그 산업은 순효과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관세의 축복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면, 이전의 보호산업에 있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고통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두가 보호를 받지 않을 때보다 순효과면에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열렬한 자유무역주의자가 종종 그래왔듯이 특정 그룹에 대한 이러한 관세의 혜택가능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관세의 인하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 관세의 인하가 순효과면에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전에 높은 관세로 혜택을 누리던 그룹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관세로 보호받는 이해관계자가 처음부터 생겨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관세폐지가 그 산업을 파산시키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최소한 임시적으로) 일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해왔다면 그들은 영구히 고통을 당하거나 그들이 그 기술을 배운다고 고통을 당한 것이다. 기계의 영향을 추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의 효과를 추적함에 있어서 우리는 장단기적으로 모든 그룹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주장은 관세수입 목적 때문에 주로 징수된 관세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을 살려두기 위하여 징수된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는 관세에 대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절에 대한 추신으로서 덧붙이고 싶다. 나는 단지 관세가 순효과면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임금을 올리며’, 또는 “미국의 삶의 수준을 보호한다”는 오류에 반대한다. 관세는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금과 삶의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에 대한 연구는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는 여기서 수입할당, 환관리, 쌍무주의, 그리고 국제무역을 축소시키고 전환시키거나 방해하는 다른 수단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나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때때로 더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것들은 더 복잡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의 순효과는 우리가 관세장벽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 추적할 수 있다.

수출촉진

8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수입에 대한 병적인 공포만이 수출에 대한 병적인 열망을 압도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보다 더 모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관광객 지출, 해상 화물요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과 '국제수지표'에 있는 다른 모든 항목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때) 수입과 수출은 서로 같아야 한다. 수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수출이고 수출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수입이다. 수출대금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출이 많아질수록 수입도 더 많아진다. 수입이 적을수록 수출도 더 적어진다. 수입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외국인들도 우리 상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입을 축소하기로 결정할 때 사실상 우리는 우리 수출을 축소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결정할 때 사실상 우리는 우리 수입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이다. 미국의 수출업자는 영국의 수입업자에게 그의 상품을 팔고 영국의 파운드화로 받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자기 부인의 옷을 사거나 극장표를 구입할 때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스스로 영국의 상품을 사거나 또는 영국 상품을 사기 위하여 파운드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미국 수입업자에게 (은행이나 다른 대리인을 통해) 파운드화를 팔지 않는 한 파운드화는 그에게 쓸모가 없다. 그가 어떤 거래를 하든 수출로 벌어들인 파운드화가 동일한 양의 영국 수입품 구입에 지불될 때까지는 거래가 완료될 수 없다.

만약 거래가 영국의 파운드화 대신에 미국의 달러화로 이루어졌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전에 어떤 영국의 수출업자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팔고는 여기에 달러화로 예치해놓지 않았더라면 영국의 수입업자는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달러화로 지불할 수 없다. 요약하면 외환이란 미국에서 외국인들의 달러화 부채가 그들의 달러화 채권에 대해 상계되는 청산거래이다. 영국에서는 외국인의 파운드화 부채가 그들의 파운드화 채권에 대해 상계된다.

이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이유는 없다. 그것들은 외환에 관한 좋은 교재에 잘 나와 있다. 그러나 (흔히 신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국제무역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신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내거래에서 일어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상품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지만 우리 각자가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역시 팔아야 한다. 국내거래는 어음교환소를 통해 각

자가 수표와 다른 청구권에 횡선을 그음으로써 주로 이루어진다.

국제 금본위제하에서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때때로 금을 선적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면, 철강, 위스키, 향수 또는 다른 상품을 선적함으로써도 역시 해결될 수 있다. 금본위제하에서 금에 대한 수요는 (금이 단지 다른 상품이라기보다는 잔여국제통화 residual international money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상품들을 받을 때는 각국이 인위적인 장애물을 놓지만 금을 받는 데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상품들을 수출하는 것보다 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장애물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8 국내거래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명석하고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제무역의 주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이 되고 멍청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국내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원리를 외국과의 무역분야에서는 진지하게 지지하거나 잡자코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출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부는 외국에 대규모의 대출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물론 미국 시민들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자신의 돈을 외국에 대출해주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민간대출 방식에 독단적으로 장벽을 두지 말아야 한다. 개인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거나 기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관대하게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냉정한 사업거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현명하지 못

하다. 그것은 나중에 오해와 나쁜 관계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외국대출을 하자고 제안된 주장들 중에 하나의 오류는 반드시 눈에 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대출해준 돈의 반이(또는 전부) 잘못되어 상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수입이 우리의 수출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 잘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상품을 구입하도록 대출해준 돈이 상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상품을 공짜로 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품을 공짜로 주고 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없다. 단지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질 뿐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 누구도 이 명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회사가 5천 달러 하는 차를 사도록 어떤 사람에게 5천 달러를 대출해주고 그 돈을 상환받지 못하면 자동차회사는 차를 ‘팔았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 회사는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만큼 손해를 본다. 만약 그 비용이 4천 달러이고 대출금의 반만 상환된다면 회사는 4천 달러에서 2천5백 달러를 뺀 1천5백 달러의 순손해를 본다. 부실대출로 손해를 본 것을 거래가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다.

8 만약 이 명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할 때는 아주 단순하다면 왜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국가에 그 명제를 적용할 때는 혼란을 일으키는가? 마음속으로 몇 단계의 거래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그룹은 사실상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모두는 손해를 본다.

예를 들면 외국에 대한 부실대출의 결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수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순효과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거래로 인한 국가의 손실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은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다. 민간 대출업자는

직접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다. 정부대출로 인한 손실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증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손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많은 간접적인 손실들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상환되지 않는 외국대출은 미국의 사업이나 고용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될 것이다. 외국 구매자들이 미국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1달러를 가지게 되면 국내 구매자들은 궁극적으로 1달러를 적게 가질 것이다. 따라서 수출사업이 도움을 받는 만큼 국내거래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많은 것을 고려해보면 수출사업도 순효과면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1975년에 생산의 15퍼센트를 외국시장에 팔았다. 상환되지 않는 외국 대출금을 매우기 위해 미국의 구매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어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10퍼센트 감소된다면 그들 생산량의 20퍼센트를 외국에 팔아도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떤 것도 민간투자자가 해외에 대출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실대출로는 우리가 부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반복한다.

동일한 논리로 외국에 대한 부실대출이나 명백한 원조로 수출거래를 잘못 자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수출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잘못 자극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수출보조금은 우리 상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보다 싼 가격에 외국인에게 상품을 파는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공짜로 무엇인가를 주는 명백한 경우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공짜로 줌으로써 부유해지려고 하는 명백한 경우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명백한 정부 대 정부 원조인 '대의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단 하나의 견해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번영과 고용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거나 심지어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그 프로그램의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진한 믿음이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떤 것을 공짜로 줌으로써 부유해질 수 있다는 망상의 다른 형태이다. 그 프로그램의 많은 지지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진실은 외국에 주는 것은 수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수출품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출업자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몫보다 수출을 통해 그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더 크다면 순효과면에서 그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는 손해를 본다.

그것은 어떤 정책이 어떤 특정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는 데는 무지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오류에 관한 또다른 예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한다면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정부관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신조와는 정반대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였듯이 어떤 나라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득은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국내 생산자로부터는 전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다. 미국에서 눈에 띄는 예가 커피와 홍차이다.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나라가 수출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수입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서이다.

‘평형’가격

- 9 관세의 발달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왜 그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교묘한 이유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들의 대변인은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처음에는 너무나 불합리하여 공정한 저술가들은 그것의 가면을 벗기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그 계획을 주장한다. 그 계획에 대한 법률의 제정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복지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 계획을 전달해줄 훈련된 경제학자와 홍보전문가를 그들은 고용할 수 있다. 대중들은 풍부한 통계, 차트, 곡선 및 파이 도표를 동반한 그 주장을 아주 반복적으로 듣고 곧 속는다. 결국 공정한 저술가들이 그

계획이 법률로 제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통상적으로 너무 늦다. 그들은 수년간 전적으로 그것에 몰두해온 참모들만큼 몇 주 만에 주제를 철저히 숙지할 수 없다. 그들은 무지하다고 비난받고 자명한 원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반적인 발달사는 농산물의 ‘평형’가격이라는 아이디어의 발달사에서도 똑같다. 그 아이디어가 법률안의 형태로 나온 최초의 날은 나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1933년 뉴딜의 도래와 함께 그 아이디어는 원리로 명백하게 확립되었고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추론들의 불합리함이 명백해지자 그 추론들 역시 법률로 제정되었다.

평형가격에 대한 주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농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농업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전되어야 한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의 번영은 농부의 번영에 달려 있다. 만약 농부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구입할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산업은 시든다. 이것이 1929년 붕괴의 원인이었거나 최소한 그 붕괴를 회복시키는 데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었다. 농산물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에 산업제품의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결과 농부들은 산업제품을 살 수 없었다. 도시노동자들은 해고되어 농산물을 살 수 없었고 불경기는 점점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확산되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었고 그것은 간단하였다. 농산물의 가격을 농부들이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 평형가격의 계산은 농부들이 번영하였을 때인 1909년부터 1914년까지가 그 근거가 되었다. 그때의 가격관계가 복원되어서 영구히 보전되어야 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의 주안점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그렇듯한 설명의 모든 불합리성을 조사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한 해나 기간에 유행했던 가격관계를 취해서 그것을 신성불가침의 가격관계로 생각하거나 다른 시기에 있었던 가격관계보다는 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비록 그 관계가 그때는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사이에 발생한 생산과 수요조건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형가격의 근거가 되는 1909년부터 1914년까지의 시기는 임의로 선택되지 않았다. 상대가격으로 보면 그 시기는 우리 역사상 농업이 가장 유리한 시기였다.

만약 그 아이디어에 어떤 순수함이나 논리가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는 널리 확장되었을 것이다. 만약 1909년 8월부터 1914년 7월까지 유행했던 농산물과 산업제품의 가격관계가 영구히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격관계는 왜 영구히 유지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 책의 초판이 1946년에 출간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디어의 불합리성이 가져올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하였다.

1912년 시보레의 6기통 투 도어 세단은 2,150달러였다. 1942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된 6기통 시보레 세단은 907달러였다. 그러나 농산물을 동일한 근거로 하여 패리티지수(역자주; 농산물 가격과 공산품 가격과의 비율)로 조정해보면 그 가격은 1942년에 3,270달러가 될 것이다. 1909년부터 1913년까지 알루미늄 1파운드는 평균 22.5센트였다. 1946년 초 그 가격은 14센트였다. 그러나 패리티지수로 조정해보면 그 가격은 41센트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격이 세 배 이상 증가한) 1946년과 1978년 사이의 심각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두 기간 사이에 있었던 자동차의 질적 차이를 조정하면서 이러한 두 개의 특별한 비교를 오늘날까지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은 그 제안이 실행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1946년판에서 위에서 언급한 비교를 한 후 나는 동일한 유형의 생산성 증가가 부분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였다. “1955년부터 1959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1에이커당 면화의 평균생산량은 428파운드였는데 이는 1909년부터 1913년까지 5년 동안 평균 188파운드, 1939년부터 1943년까지 평균 260파운드와 비교하면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오늘날까지 계속 하면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 동안 1에이커당 평균 467파운드의 면화가 생산되었다. 마찬가지로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에이커당 평균 26.1부셀의 옥수수가 생산되었는데 이에 비해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평균 84부셀의 옥수수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에이커당 평균 13.2부셀의 밀이 생산되었는데 이에 비해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평균 31.3부셀의 밀이 생산되었다.

9) 농산물의 생산비용은 화학비료, 종자의 향상 및 기계화의 증가로 인해 크게 하락해왔다. 1946년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인용을 하였다. “완전히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몇몇 대규모의 농장에서는 동일한 양을 생산함에 있어서 몇 년 전에 필요로 했던 노동량의 단지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만을 필요로 한다.”²⁾ 그럼에도

2) *New York Times*, January 2, 1946. 물론 면적제한 계획 자체가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평형’가격의 주창자들에 의해 무시된다.

원리를 보편화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만이 평형가격이 공공의식에 근거한 경제계획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주자는 고안이라는 데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농산물 가격이 패리티지수 위로 올라가거나 정부정책들에 의해서 강제로 올라갈 때 그러한 가격이 패리티지수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요구나 그만큼의 보조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 내 농촌출신 의원연맹(farm bloc)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다른 증거이다. 그것은 일방통행만 하는 법칙이다.

II

이러한 모든 고려사항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 오류로 돌아가자. 그것은 만약 농부가 그의 생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받으면 그는 다른 산업에서 생산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고, 따라서 산업을 번성하게 하고 완전고용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물론 농부가 특별히 평형가격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주장과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러한 높은 가격들이 발생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높은 가격들이 일반적인 경제회생의 결과이고, 만약 높은 가격들이 증대된 사업번창, 즉 (인플레이션으로 초래된 것

가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첫째는 농부들이 경작을 포기하는 면적은 자연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고가유지 정책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비료의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면적제한 계획은 대부분 자기 살을 갹아먹는 것이었다.

이 아니고 도시노동자의 증대된 산업생산과 구매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높은 가격들은 사실상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증대된 번영과 생산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간섭에 의해 발생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지 강제로 높은 가격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실행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다. 정부에게 제공되는 모든 농산물을 정부가 평형가격에 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높은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 패리티지수나 높은 가격이 실현될 때까지 농부들이 그들의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농작물에 대한 충분한 돈을 정부가 농부들에게 대출해줌으로써 높은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 수확량의 크기에 정부가 강제로 제약을 가함으로써 높은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방법의 결합에 의해 높은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

결과가 무엇인가? 농부들은 농작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받는다. 가령 생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매력’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증대된다. 그들은 당분간 더 번영하고 그들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더 많이 구입한다. 이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룹들에 대한 정책들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부셸당 2.5달러에 팔릴 밀이 이 정책으로 3.5달러로 올라간다고 가정하자. 농부는 밀에 대해서 부셸당 1달러를 더 받는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변화만큼 도시노동자는 빵값의 상승을 통해 밀에 대해서 부셸당 1달러를 더 지불한다.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농부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1달러 증가하면 도시노동자는 정확하게 그만큼 산업의 생산물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한

다. 순효과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농업 이외의 산업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농촌에서 판매가 증가한 만큼 정확하게 도시에서 판매가 줄어든다.

물론 이러한 판매에도 변화가 있다. 농기구 제조업자와 통신판매점 등은 틀림없이 사업이 잘된다. 그러나 도시의 백화점은 사업이 위축된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정책은 단지 순이익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순손실을 가져온다. 그 정책은 도시소비자, 일반납세자, 또는 그들 모두로부터 농부에게로 단순한 구매력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책은 흔히 가격을 올리기 위한 농산물 생산의 강제적인 감산(減産)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富)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비될 식량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의 파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수행된 특별한 방법에 의존할 것이다. 브라질에서 커피를 태워버린 것처럼 이미 생산된 농산물의 실제 파괴를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의 농업조정국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AAA) 계획이나 그 재현처럼 경작면적에 대한 강제규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의 상품통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할 때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패리티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부가 밀의 생산을 줄일 때 그는 부셴당 높은 가격을 실제로 얻을지 모르나 더 적은 양의 밀을 생산해서 판다는 것이 여기서 지적될 수 있다. 그 결과 그의 소득은 가격과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몇몇 평형가격 지지자들조차 이것을 인식하고는 농부들의 평형소득을 계속 고집하는 주장으로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자들의 직접적인 비용인 보조금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도시노동자와 다른 그룹들의 구매력만 더욱 감소시킨다.

III

이 주제를 끝내기 전에 꼭 다루어야 될 평형가격에 대한 하나의 주장이 있다. 아주 불순한 몇몇 지지자들이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평형가격에 대한 경제적 주장은 불합리하다. 그러한 가격들은 특권이다. 그것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부담하는 관세도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농부는 다른 산업의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은 농산물의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 보상관세(compensating tariff)를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 평형가격 체제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관세에 상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그들은 거리낌없이 인정한다.

평형가격을 요구하는 농부들의 불평은 정당하였다. 보호관세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그들에게 주었다. 다른 산업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위축시켰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수입감소로 외국이 우리 농산물을 사가는 데 필요한 달러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감소는 다른 나라에서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언급한 주장은 그 타당성 여부조차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에 대한 암시적인 설명에서조차 그 주장은 잘못이다. 산업제품이나 모든 비농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는 없다. 관세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내산업이나 수출산업이 수없이 많다. 만약 도시노동자가 관세로 인해 모직담요나 외투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면옷과 식료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보상받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두 번 빼앗기고 있는가?

특정 산업 살리기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호’해줌으로써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자.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 설령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즉 외국과 경쟁하는 생산업자 A에게는 관세로 보호해주고 생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업자인 B에게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또는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율의 (또는 동일한 금액의) 관세보호나 보조금을 주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그룹에게는 두 배로 지불하게 하거나 다른 그룹들과 격차가 생기게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요점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보조하는데 누가 이득을 보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조금이나 보호로 이득을 보는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냄으로써 손해를 보는데 무엇이 이득인가? 우리는 단지 생산에 손해만 끼치는 쓸모없는 관료조직만 추가해야 한다.

9 오히려 우리는 평형가격 제도와 보호관세 제도를 모두 종식시킴으로써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해도 그 어떤 것도 균등하게 하지 못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단지 잊혀진 사람 C의 희생으로 농부 A와 생산업자 B가 모두 이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도 남아 있는 다른 계획의 예상이득들은 우리가 그 계획이 어떤 특정 그룹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자마자 없어져버린다.

1

8 의회 로비는 특정 산업의 대리인들로 복적거리고 있다. 특정 산업은 병에 걸려 있다. 특정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 그 산업은 구조되어야 한다. 그 산업은 관세, 높은 가격 또는 보조금에 의해서만 구조될 수 있다. 만약 그 산업을 죽도록 내버려두면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길 것이다. 노동자들로 인해 먹고사는 집주인들, 식료품상인들, 정육점 주인들, 옷가게 및 지역의 영화산업이 파산할 것이고, 경기침체가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 신속한 행동으로 만약 특정 산업이 구조되면 아, 어떻게 될까! 그 산업은 다른 산업들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정육점 주인들, 빵가게 주인들 및 네온

램프 제작자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확장이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해온 경우의 일반화된 형태일 뿐이다. 여기서 특정 산업은 농업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특정 산업들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두 산업의 예는 석탄산업과 은산업이다. 은산업을 구하기 위해 의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구조계획에 대한 주장들 중의 하나는 그 계획이 ‘아시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계획의 실제결과들 중의 하나는 은의 근거지였던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중국은 더이상 은 근거지가 될 수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시장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엉뚱한 가격에 필요 없는 은을 많이 사서 지하실에 저장할 수밖에 없었다. 광산소유주나 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비용이 들고 손해를 약간 보았으나 ‘은 생산 지역 출신 상원의원들 silver senators’의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은 잘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와 국가는 “국가통화를 은분위제로 하자”는 아주 이상적인 속임수가 없었다면 이런 종류의 적나라하고 추잡한 거래를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석탄산업을 구하기 위해 의회는 구피법Guffey Act을 통과시켰다. 그 법하에서 탄광의 소유주는 정부가 정한 어떤 최저가격 이하에 석탄을 판매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했다. 비록 의회가 석탄의 가격을 고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곧 그 자체가 (서로 다른 크기, 수천 개의 탄광, 철도·트럭·배 및 바지선을 이용한 수천 개 지역으로의 선적 때문에) 35만 개의 분리된 석탄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발견했다.³⁾ 석탄가격을 경쟁적 시장가격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한 이 시도가 노린 효과 중의 하나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석탄에서 원유, 천연가스 및 수력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정부는 다시 원유소비에서 석탄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

II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특정 산업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가져온 모든 결과들을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 산업의 구출노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결과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어떤 특정 산업이 군사적인 이유로 창출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느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인 세금과 임금으로 파멸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공익사업은 적절한 이윤이 허용되지 않는 대증요금으로 운영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특정 산업을 살리지는 하나 10의 주장에만 관심이 있다. 그 하나의 주장이란 만일 산업의 크기가 축소되거나 (그러한 경우 산업의 대변인이 항상 자유방임의, 무정부 상태의, 살인적인, 동족상잔의, 정글법칙의 경쟁이라고 부르는) 자유경쟁의 힘에 의해 사멸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산업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고, 만약 그 산업이 인위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산업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3) 1937년 유연탄법Bituminous Coal Act of 1937의 확장에 관한 청문회에서 있었던 유연탄분과 위원장인 Dan H. Wheeler의 증언.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평형가격이나 몇 개 산업들을 관세로 보호하지는 주장을 일반화한 경우이다. 어느 한 산업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지는 것에 대한 반대이유들이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가격에 반대하는 주장은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 산업을 구하지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항상 있다. 그러한 계획들에는 우리가 이미 고려한 것 외에 두 가지의 중요한 유형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하나는 특정 산업이 이미 '과잉상태'여서 다른 회사나 노동자들이 그 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실제로 과잉상태라면 그 산업은 새로운 자본이나 노동자들의 진입을 금지하는 어떤 강제적인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소멸해가는 산업에 새로운 자본이 몰려들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최저 수익과 최고의 손실위험을 동시에 나타내는 산업들을 열심히 찾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 임금이 최저 수준이고 안정적인 고용의 가능성도 가장 낮은 산업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독점, 기업연합, 노동조합 정책이나 법률제정으로 새로운 자본과 노동이 특정 산업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러한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눈에 특정 산업보다 수익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산업에 그들의 돈을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는 특정 산업보다 임금이 더 낮고

장래성도 더 없는 산업에서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것은 자본과 노동이 스스로 자유선택을 할 수 있을 때보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곧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낮아진 평균 명목임금이나 높은 평균 생활비 또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이다(정확한 결과는 시행되고 있는 통화정책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들로 인하여 특정 산업 자체에서의 임금과 자본수익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사실상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의 임금과 자본수익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 B, C 산업을 희생시키고 특정 산업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III

공공기금에서 나온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특정 산업을 살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특정 산업에 부나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만큼 납세자들은 잃을 것이다. 사실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조금은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해준다. 관세, 최저가격제, 또는 독점적 배제들에 대한 주장이 가져오는 지적인 혼동의 기회가 보조금의 경우 훨씬 줄어든다.

보조금의 경우 특정 산업이 득을 보는 만큼 납세자들이 잃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결과 특정 산업이 득을 보는 것을 다른 산업들이 잃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그들은 특정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의 일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들도 그만큼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다른 산업들은 평균적으로 더 작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보조금의 결과는 단지 부나 소득의 이전이 있다거나, 특정 산업이 확장된 만큼 다른 산업들은 총체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에서 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전용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볼 때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적은 부가 창출되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이전과 비교하여 낮아진다.

IV

사실상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 산업을 보조하자고 제기된 바로 그 주장에 내재되어 있다. 특정 산업은 그 산업 후원자의 주장에 의해 위축되거나 죽어가고 있다. “왜 그 산업이 인공호흡(artificial respiration)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경제를 확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모든 산업들이 동시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새로운 산업이 충분히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래된 산업들이 위축되거나 사멸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을 오래된 산업들이 양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차시대의 교역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했

더라면 우리는 자동차산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의 성장을 늦추었을 것이다. 우리는 부의 생산을 하락시켰을 것이고 경제 및 과학 진보를 지체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이미 훈련된 노동과 이미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산업이 사멸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성장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들이 사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동적인 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양산업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성장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쇠퇴해가는 생산방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쇠퇴해가는 산업들을 보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낡은 필요와 새로운 욕구가 더 나은 상품과 수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개선된 생산방법이 낡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격체계의 작동방법

103 이 책의 전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경제적 제안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일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어느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단지 어느 특정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즉 예를 들어 모든 산업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산업에서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경제적 오류들은 어떤 특정 산업이나 과정만을 고립시켜 놓고 생각하는 고집 세고 게으른 습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들은 특정 이익단체에 고용된 대변인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려 깊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주장에도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가격체계’를 사악하다고 공격하면서 ‘이윤이 아닌 사용을 위한 생산’을 주장하는 학파는 본질적으로 고립의 오류fallacy of isolation에 근거하고 있다. 이 학파의 지지자들은 생산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널리 알려진 이 오류는 대부분 피쳐 통화신봉자들과 부의 공유를 104주장하는 사기꾼들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 경영능력 전문가들efficiency experts,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생산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당신이 언급하는 거의 모든 것을 엄청나게, 그리고 실제로로 무한정 생산할 수 있었다. 아! 그러나 세계는 생산만을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윤만을 생각하는 사업가들에 의해 지배된다. 엔지니어들이 사업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들이 엔지니어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사업가들은 이윤이 있는 한 어떤 상품이든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이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 순간 사악한 사업가들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그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더 많은 상품들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견해에는 단번에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암시한 대로 하나의 산업만을 보거나 마치 여러 산업들이 고립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씩 차례대로 보는 데서 중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각 산업들은 사실상 다른 모든 산업들과 관련되어 있고 한 산업에서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다른 모든 산업들에서 이루어진 결정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러한 결정들에 영향을 준다.

일은 집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이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가 사막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고려해보자. 처음에 그의 욕구는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비에 흠뻑 젖었고, 추위로 덜덜 떨고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는 식수, 음식, 햇빛 가리개, 동물로부터의 보호장치, 불, 포근한 잠자리 등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시간, 에너지 또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에 즉시 정성을 들여야 한다. 가령 그가 목이 말라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자. 그는 모래를 파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거나 다른 조잡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약간의 물이 준비되면 그는 물 받을 곳이나 그릇을 더 개량하기 전에 음식을 찾아야 한다. 그는 낚시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낚시바늘, 낚시줄, 또는 그물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약간 덜 시급한 다른 어떤 것들을 지체시키거나 못하게 한다. 그는 그의 시간과 노동을 사용함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105 아마 스위스의 로빈슨 가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약간 쉬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먹여살려야 할 식구도 많지만 일손도 많이 있다. 그 가족은 분업과 특화를 실습해볼 수 있다. 아버지는 사냥을 하고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며 아이들은 빨감을 모은다. 그러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긴급하고, 또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다른 긴급한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영원히 같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아이들이 일정한 장작더미를 모으면 그들은 단지 그 더미를 더 높이 쌓고만 있을 수 없다. 그들 중 한 명이 곧 더

많은 물을 구하는 데 보내진다. 가족들도 노동과 자본의 사용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문제에 부딪치고 운이 좋아서 총, 낚시 도구, 배, 도끼, 톱 등 자본을 얻었다면 노동사용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친다. 나무를 모으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그의 형이 가족의 저녁식사에 필요한 고기를 낚는 대신에 그를 하루종일 도와주었다면 그가 더 많은 빨감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다른 모든 일자리들을 희생시키고서만이 어느 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고립된 개인이나 가족의 경우에 아주 명백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예시들은 때때로 ‘크루소경제학Crusoe economics’이라고 조롱당한다. 불행하게도 이 기본적인 예시들은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간단한 형태에서 나타난 특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대한 현대경제사회의 아주 복잡함을 살펴볼 때 그 특정한 원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부분 조롱당한다.

II

이제 거대한 현대경제사회로 관심을 돌려보자. 그러한 사회에서는 긴급함이 서로 다른 수천 가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사용의 양자택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문제는 정확하게 가격체계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산비용, 가격 및 이윤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해결된다.

106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고, 또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더 많이 원하면 그들은 그것을 더 많이 공급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것은 그 품목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이제 다른 것들보다 그 품목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그 품목의 생산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 이로 인한 공급증가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품목에서의 이윤폭이 다른 산업들의 일반적인 이윤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때까지 이윤폭을 줄인다. 또는 그 품목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또는 다른 품목들을 만드는 것보다 그 품목을 만드는 것이 이윤이 덜 나게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 품목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생산자들, 즉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이나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생산자들이 모두 추방될 것이다. 이제 최저 생산비로 운영하는 더 효율적인 생산자들만이 그 품목을 생산할 것이다. 그 상품의 공급은 감소하거나 최소한 확장을 멈출 것이다.

이 과정은 가격이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유래이다. 이러한 형태로 설명된 학설은 사실이 아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어떤 상품을 원하느냐와 그 상품과 교환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생산비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과거에 쓴 비용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현재관계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갈 미래비용과 그 상품의 미래가격에 대한 사업가들의 예상은 얼마나 그 상품이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과 한계생산비가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생산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민간기업 체계는 수천 개의 기계에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들과 기계들의 조속기調速機들은 모두 상호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계는 자체적으로 거의 자동적인 조속기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서 그것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사실상 행동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증기엔진에서의 자동 ‘조속기’를 보아왔다. 그것은 원심력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무거운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공들은 그것들이 붙어 있던 막대로부터 떨어져나가 자동적으로 증기의 흡입량을 조절하는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를 좁혀서 엔진의 속도를 줄인다. 한편 엔진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공이 떨어지고 스로틀 밸브를 넓혀 엔진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바람직한 속도로부터 벗어나면 그 이탈을 수정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경쟁적인 민간기업 체계하에서 서로 다른 수천 개 상품들의 상대적인 공급이 조절되는 방법은 이것과 동일하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원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경쟁적인 입찰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그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의 이윤이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생산자들을 자극한다. 또한 다른 상품들을 만들던 자들도 생산을 그만두고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 상품으로 생산을 전환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상품의 공급은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다른 상품들의 공급은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른 상품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그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의 상대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했던 그 자극은 사라진다.

같은 방법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그것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이 하락하고 따라서 생산이 감소한다.

‘가격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전개이다. 그들은 그것이 희소성을 창출한다고 비난한다. “왜 제조업자들이 손익분기점에서 신발생산을 중단하는가?”라고 화가 나서 묻는다. 왜 제조업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윤에만 좌우되어야 하는가? 왜 제조업자들은 시장에 지배되어야 하는가? 왜 제조업자들은 ‘현대기술의 최대 용량’을 생산하지 않는가? 가격체계와 108 민간기업은 단지 ‘희소경제학scarcity economics’의 한 형태라고 ‘사용을 위한 생산production-for-use’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질문들과 결론들은 한 산업만을 고립시켜서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오류에서 발생한다. 어떤 점에서는 신발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트, 셔츠, 바지, 집, 쟁기, 삽, 목재, 다리, 우유 및 빵을 생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수없이 많은 긴급한 필요들은 채워지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신발만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 것이다.

경제가 균형에 있을 때는 어느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들을 희생시키고서만 확장될 수 있다. 어느 순간이든 생산요소는 제한되어 있다. 한 산업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산업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을 그 산업으로 전용함으로써만 확장된다. 어느 특정 산업이 위축되거나 생산확장을 중지한다는 것이 총생산에서 볼 때 반드시 순감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시점에서의 축소는 다른 산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단지 노동과 자본을

방출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한 산업에서의 생산축소가 반드시 총생산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요약하면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대가로 생산된다. 사실 생산비용 그 자체는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포기한 (여가와 오락, 다른 데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 등) 다른 것들로 정의될 수 있다.

성장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들의 사멸을 허용하는 것이 동적인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성장산업들을 위해서 방출되어야 할 노동과 자본을 사양산업들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성하에서 수없이 많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혼란스러운 이 방정식들은 가격, 이윤 및 비용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109 해결된다. 이 체계는 어떤 관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개별소비자들이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체제하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료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관료들이 거의 자동적인 시장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시장체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들은 보통 우는 소리를 내는 몇몇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시장체계를 향상시키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간접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상품가격 ‘안정화’

I

110 특정 상품의 가격을 자연적인 시장수준 이상으로 영구히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는 자주 실패했고 또 악명이 높아서 불순한 압력 단체들과 그 단체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관료들이 그 목적을 공공연히 공언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처음으로 정부간섭을 제안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은 보통 더 조심성 있고 그럴듯하다.

그들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자연적인 시장수준 이상으로 영구히 올리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 상품이 자연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확실히 팔리고 있다. 생산자들은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은 파산할 것이다.

그러면 특정 상품은 실질적으로 희소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부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싼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현재의 ‘일시적인’ 저가격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서 소위 자연적인 시장의 힘 또는 ‘불완전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생산자는 파산할 것이고 우리는 상품의 희소성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격렬하고 정신없는 가격변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111 그렇게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제안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가장 흔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농부들이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의회도 그 대출금을 주장한다. 농산물이 수확기에 단번에 시장에 모두 투매된다. 그리고 그때는 가격이 가장 낮을 때이며 투기꾼들이 농산물을 사서 농산물이 다시 부족하게 되어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보관함으로써 이익을 챙긴다라는 말을 그들은 듣는다. 따라서 농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투기꾼이 아니라 농부들이 높은 평균가격으로 이익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욕을 많이 듣는 투기꾼들이 농부들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농부들의 최고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변동하는 농산물 가격의 위험은 다른 누군가가 발생시켰음에 틀림없다. 그 위험은 사실상 직

업적인 투기꾼들에 의해 오늘날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투기꾼들이 투기꾼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유능하게 행동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농부들을 도와준다. 투기꾼들은 미래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정확하게 미래가격을 예상할수록 가격변동은 덜 격렬해지고 덜 극단적으로 된다.

따라서 만약 농부들이 그들의 밀 수확 전체를 어느 한 달에 시장에 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관비는 별도로 하고) 그 달의 가격이 다른 달보다 반드시 낮지 않을 것이다. 이윤을 기대하면서 투기꾼들은 그들 구매의 대부분을 그때에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이윤의 기회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계속 구입할 것이다. 그들은 미래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팔 것이다. 그 결과 연중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농부들과 제분업자들이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한 위험들을 떠안은 직업적인 투기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부들과 제분업자들은 시장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¹¹²인 조건하에서는 투기꾼들이 그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때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의 이윤은 시장변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과 근면성에 주로 의존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밀과 다른 보존농산물들의 평균가격은 보관료, 이자 및 보험료를 제외하면 연중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수확기 이후의 평균 월별 가격상승으로는 보관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투기꾼들이 농부들을 보조해왔다는 것을 몇몇 주의 깊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투기꾼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투기꾼들이 지속적으로 과잉

낙천주의^{overoptimism}의 경향을 보인 결과였다(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투기꾼 계층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조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거대한 투기이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몇 개 안되는 큰 상에 당첨될 것이라고 도리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이나 원유를 캐낼 것으로 기대하고 퍼붓는 노동과 자본의 총가치가 추출된 금이나 원유의 총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여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못하도록 돈을 대출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영원한 정상 곡창지대^{ever-normal granary}’라고 그럴듯하게 불리는 것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때때로 행해진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과 이월에 관한 과거 자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기능이 이미 민간이 조직한 자유시장에 의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개입할 때 영원한 정상 곡창지대는 사실상 영원한 정치 곡창지대^{ever-political granary}가 된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농부는 농산물 생산을 과도하게 억제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농부들의 표를 확실하게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입안한 정치가들이나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들은 당시 수요와 공급조건에 의한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소위 농산물에 대한 공정가격을 항상 정한다. 이것은 구매자들의 구매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영원한 정상 곡창지대는 영원한 비정상 곡창지대^{ever-abnormal granary}가 되는 경향이 있다. 농산물¹¹³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두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나중에 훨씬 가격이 떨어진다. 농산물의 일부를 시장에 출하

하지 않아 올해에 발생한 인위적인 부족은 다음해의 인위적 초과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면화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책과 너무 거리가 멀다.⁴⁾ 우리는 1년의 총수확량을 창고에 쌓았다. 우리는 우리 면화를 수요하는 외국시장을 파괴하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의 면화재배를 크게 자극하였다. 규제와 대출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예측했지만 그 결과들이 실제로 일어나자 그 결과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어쨌든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만 응답하였다.

대출정책은 보통 생산제약 정책, 즉 희소성 정책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상품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거의 모든 노력에서는 생산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왔다. 그러한 경우 실질적인 목적은 가격을 즉시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제하에 있는 개별생산자들에게 비례적인 생산규제가 보통 가해진다. 이것은 몇 가지 나쁜 영향을 즉시 가져온다. 통제가 국제적인 규모로 가해진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총생산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을 때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생산물을 소비한다. 세계는 바로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을 그 생산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만큼 다른 생산물에 적게 지출한다.

II

규제주의자들(restrictionists)은 생산물에서의 이러한 감소는 시장경제 하에서도 어쨌든 발생한다고 보통 응답한다.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출되는 자들은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이다. 농산물의 경우 축출되는 자들은 가장 능력이 없는 농부들, 가장 취약한 장비를 가진 자들, 가장 척박한 땅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가장 좋은 땅에서 일하는 가장 능력 있는 농부들은 그들의 생산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낮은 평균생산비의 징후를 나타낸다면 한계토지를 이용한 한계농부들의 축출은 좋은 토지를 이용한 좋은 농부들의 생산을 확장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상품의 생산감소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생산물은 생산되고 영구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린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상품의 소비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잘 공급받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돈이 남게 되어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들에 지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

4) 그러나 면화 프로그램은 특별히 교육적으로 유익했다. 1956년 8월 1일 면화의 이월은 1,452만 9천 꾸러미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는데 이 수치는 정상적인 한 해의 생산이나 소비보다도 많은 양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정부는 재배업자로부터 수확량의 대부분을 사들여서 즉시 할인된 가격에 재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면화를 세계시장에서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파운드당 6센트의 보조금을 수출업자에게 주었고 1961년에는 파운드당 8.5센트를 주었다. 이 정책은 원면의 이월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이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직물은 외국산 직물과 비교하여 국내의 시장에서 모두 심각한 비교 열위를 갖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외국산업을 보조한 것이었다.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피하려고 하다가 더 나쁜 결과에 빠지는 것이 정부가 격동계 계획의 전형이다.

나 다른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증가는 그 상품들을 생산하는 분야의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것은 또한 농부들의 노력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직업들이 이전의 한계 농부들을 흡수할 것이다.

(정부간섭 계획으로 돌아와서) 획일적인 비례규제는 한편으로는 저비용의 효율적인 생산자가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을 모두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15 한편으로는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의 사업이 인위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산물의 평균생산비를 증가시킨다. 생산물은 규제가 없을 경우보다 비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한계생산자들은 다른 용도에서 더 이익이 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을 계속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규제계획의 결과 어쨌든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농부들이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없다. 농부들은 도시구매자로부터 바로 그만큼의 구매력을 취해서 가졌다(우리는 앞서 평형가격 분석에서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았다). 생산에 제약을 가한 대가로 농부들에게 돈을 주거나 그들에게 인위적인 제약생산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이나 납세자들이 강제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어느 경우든 그러한 정책들의 수혜자는 ‘구매력’을 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구매력을 잃게 된다.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않은 대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의 순손실은 곧 생산의 손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 적게 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수입감소나 높은 생활비를 통해서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이 떨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농산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만 인위적인 생산계약이 가해지지 않으면 비싼 상품가격으로 인해 팔리지 않은 잉여는 통제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더 큰 정도로 그 상품의 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쌓인다. 또는 규제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생산자들은 인위적인 가격상승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생산을 엄청나게 확장한다. 이것이 영국의 고무규제 프로그램과 미국의 면화규제 프로그램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가격폭락은 규제계획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파국으로 결국 치닫는다. 가격과 조건들을 과감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작했던 계획은 시장의 자유로운 힘이 가져올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
16을 정도로 큰 불안정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상품 통제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 제안들이 과거의 모든 오류들을 피할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다. 이번에는 가격이 생산자에게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공정하게’ 통제될 것이다. 생산국가들과 소비국가들이 모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가격에 동의할 것이다. 통제가격은 국가들 사이에 생산과 소비의 ‘공정한’ 할당 및 배분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비꼬는 사람들만이 이것과 관련하여 풀사나운 국제분쟁을 기대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 중 가장 큰 기적은 이 초국가적인 통제와 강제의 세계가 역시 ‘자유’ 국제무역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계획가들이 말하는 자유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는 그들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으로 사고팔며

가장 이윤이 난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들이 좋아하는 이윤로 빌리고 빌려주는 자유를 그들은 의미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이 그가 원하는 만큼 특정 농산물을 재배하고, 마음대로 오고가며, 그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며, 자본과 다른 소유물을 가지고 다니는 자유를 그들은 의미하지 않는다. 관료들이 시민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자유를 그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민이 그들에게 유순하게 복종하면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도록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관료들은 시민에게 말한다. 그러나 만약 계획가가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지배와 통제라는 아이디어를 국제협력의 아이디어로 포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래의 국가통제는 과거의 형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자유는 함께 하락할 것이다.

정부의 가격통제

I

117 우리는 정부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상품가격을 고정시키는 정부의 노력(역자주; 최저가격제)이 미치는 몇 가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자연적인 시장수준 이하로 상품가격을 고정시키는 정부의 시도(역자주; 최고가격제)가 가져오는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자.

자연적인 시장수준 이하로 상품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은 오늘날 전시에 거의 모든 정부가 시도한다. 우리는 여기서 전시 가격통제의 지혜를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전면전일 경우 경제 전체는 반드시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그때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것들은 이 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문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⁵⁾ 그러나 사

리에 맞든 맞지 않든 전시 가격통제는 전쟁이 끝나 가격통제를 시작하기 위한 원래의 구실이 없어져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계속된다.

가격통제를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주로 전시 인플레이션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평화롭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가격통제들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넉넉히 비치고 있다. 비록 가격통제들은 118과파괴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항상 경제적으로 해가 되지만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통제들은 최소한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자신들의 통화정책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업가들의 탐욕과 강탈 때문이라고 암암리에 비난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하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나 몇몇 상품들의 가격을 정부가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정부가 몇몇 상품의 최고가격을 고정하려고 할 때는 보통 기본 필수품들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 필수품들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된 것들이 빵, 우유, 고기라고 하자.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가령 우리가 쇠고기를 자유시장의 자비에 맡겨두면 가격은 경쟁입찰competitive bidding에 의해 상승하여 부자들만이 그것을

5) 그러나 정부의 우선권, 배분 또는 배급이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가격통제는 특히 전면전일 경우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최고가격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배급이 필요한 데 반하여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니다.

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비례하여 쇠고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구매력에 비례하여 가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질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첫번째는 만약 그것이 타당하다면 채택된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파운드당 2.25달러의 시장가격으로 필요가 아닌 구매력이 쇠고기의 배분을 결정한다면 가령 파운드당 1.5달러와 같이 역시 약간 낮은 수준의 법적 ‘최고’ 가격에서도 구매력이 쇠고기의 배분을 결정할 것이다. 필요가 아닌 구매력이 배분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우리가 쇠고기를 돈을 주고 사는 한 타당성이 있다. 만약 쇠고기를 그냥 나누어주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계획들은 보통 ‘생활비가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계획들의 지지자들은 통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특별히 ‘정상적인’ 또는 신성 불가침의 시장가격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한다. 그 가격은 ‘적절한’ 가격으로 간주되고 통제가 정해진 이후 발생한 생산 또는 119수요조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이상의 가격은 ‘부당한’ 가격으로 간주된다.

II

이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느 경우든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가격에 정확하게 가격을 고정시키는 가격통제를 가정하는 것은 문제

가 안된다. 그것은 결코 가격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대중들의 구매력이 이용 가능한 상품공급보다 크다는 것과 가격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수준 이하로 정부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는 시장수준 이하로 상품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다. 첫번째 결과는 그 상품의 수요증가이다. 상품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품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두번째 결과는 그 상품의 공급감소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상인들의 선반에 쌓여 있던 상품의 공급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그 상품의 생산이 지장을 받는다. 이윤폭이 축소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 한계생산자들은 그 사업에서 퇴출된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조차도 손해를 보고 생산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도살장들이 소값과 도살 및 가공과 관련된 노동비용보다 더 싸게 소를 도살해서 고기를 가공하라고 물가통제국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의 요구를 받았던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상품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결과는 그 상품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조정자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정부조정자가 특정 상품에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 상품의 공급을 가장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정자가 사치품이나 반사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나 이윤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필수품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이윤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들이 덜 필수적인 상품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자극하면서 가격통제가 된 필수품들의 생산은 억제하는

것이다.

몇몇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조정자들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들은 그러한 결과들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계획들과 통제들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들에는 배급, 비용통제, 보조금 및 광범위한 가격통제 등이 있다. 그것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자.

시장가격 이하로 가격을 고정한 결과 몇몇 상품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부유한 소비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난받거나 만약 그것이 원재료이면 개별 회사들은 그것을 ‘사재기한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면 정부는 누가 그 상품을 구입하는 데 우선권을 가질 것인지, 또는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배급할지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다. 만약 배급체계가 채택되면 개별소비자는 아무리 더 많은 양을 사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해도 단지 최대 공급량만을 살 수 있다.

요약하면 배급체계가 채택된다는 것은 정부가 이중가격 체계, 또는 이중통화 체계를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개별소비자는 주어진 양의 보통화폐 외에도 쿠폰이나 ‘점수’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자유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을 배급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내가 일의 일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주지만 배급은 단지 공급을 자극하지 않고 수요에만 제한을 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상품의 생산비에 대한 통제를 확장함으로써 공급을 보장하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소매가격을 억누르기 위하여 정부는 쇠고기의 도매가격, 쇠고기의 도살장 가격, 소의 가

격, 사료의 가격, 일꾼의 임금을 통제할 수 있다. 우유의 인도가격을 억누르기 위하여 정부는 우유배달차 운전사의 임금, 컨테이너의 가격, 우유의 목장가격, 사료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빵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빵 굽는 사람의 임금, 밀의 가격, 제분업자의 이윤, 밀의 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통제를 거꾸로 확장해감에 따라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다. 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통제할 용기가 있고 정부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최종 상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사료, 밀, 또는 모든 생산요소의 부족을 차례대로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제를 점점더 확대할 것이고 최종적인 결과는 광범위한 가격통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조금을 통해서 대처하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우유나 버터의 가격을 시장수준 이하나 다른 가격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우유나 버터의 생산은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여 임금도 낮고 이윤폭도 낮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나 버터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이것을 보상하려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행정적인 어려움은 무시하고,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우유와 버터의 생산을 보장하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가정하면 보조금이 비록 생산자들에게 지급되지만 실제로 보조를 받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순효과면에서 보면 생산자들은 처음부터 자유시장가격을 매기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그들이 생산했을 양보다 더 많은 우유와 버터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유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우유와 버터를 가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그 차이만큼, 즉 생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불된 보조금의 양만큼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보조를 받고 있는 상품이 배급제가 되지 않으면 그 상품의 대부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작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소비자를 보조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의 귀착(incidence of taxation)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납세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소비자들인 자신들을 보조할 것이다. 이 미로에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보조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 누군가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회가 어떤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잊혀지고 있다.

III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종종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애국심과 위기감의 지원을 받을 때, 특히 전시에 잠시 동안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가격통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어려움이 증대된다. 가격이 정부강요에 의해 독단적으로 억제될 때 수요는 만성적으로 공급을 초과한다. 만약 정부가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원재료 및 다른 요소들의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어떤 상품의 공급부족을 예방하고자 시도한다면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의 부족을 차례대로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통제가격을 더욱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가격통제를 '수평

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품을 배급제로 하고 대중들은 초과구매력이 있지만 그 상품을 충분히 구할 수 없으면 대중들은 다른 대체품으로 구매를 돌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상품을 배급제로 하면 그 상품이 희소하게 됨에 따라 배급제가 되지 않은 다른 상품들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정부가 암시장을 예방하는(또는 최소한 법정 가격을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한 규모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이 성공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지속되는 가격통제는 점점더 많은 상품들의 배급제를 가져온다. 배급제로 소비자의 초과수요를 중지시킬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중 배급제는 소비자의 초과수요를 중지시키지 못했다. 사실 배급제는 우선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에 대한 원재료의 분배에 적용되었다.

요약하면 역사에 남은 어느 특정 가격수준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123 철저하고도 전반적인 가격통제의 자연적인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통제된 경제임에 틀림없다. 임금은 가격만큼이나 고정되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은 원재료만큼이나 무자비하게 배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각 소비자들에게 각 상품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각 제조업자에게 정확하게 원재료와 노동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재료에 대한 경쟁입찰이 묵인되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에 대한 경쟁입찰도 묵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회사와 노동자가 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자유들을 결국 포기하는 전체주의 경제totalitarian economy가 될 것이다. 거의 2세기 전에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연방주의자 신문Federalists Papers』에서 “인간의 생존에 대한 지배력은 결국 그의 의지에 대한 지배력과 마

찬가지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IV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오래 지속되는, 그리고 ‘비정치적인’ 가격통제로 묘사될 수 있는 것들의 결과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아주 널리 보여준 것처럼 관료들의 터무니없는 오류 몇 가지가 암시장으로 인해 다소 희석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암시장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고정가격시장을 희생시키면서 계속 성장하여 나중에는 사실상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price ceilings를 명목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집행팀enforcement squads은 아닐지 몰라도 자기들의 생각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암시장이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최고가격시장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가정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경제적 손해였고 도덕적 손해였다. 대규모 자본투자와 대중들의 호의에 의존하면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온 큰 회사들은 과도기에 생산제한을 가하거나 생산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산에 있어서 자본과 축적된 경험이 적고 믿을 수 없는 회사들이 그들의 124 자리를 차지한다. 새로운 회사들에 의해 대체된 회사들과 비교하면 새로운 회사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들은 이전의 회사들이 그들의 상품을 계속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더 높은 비용으로 열등한 속임수 상품을 생산한다. 정직하지 않아야 오히려 덕을 본다. 새로운 회사들은 기꺼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생존하고 성공한다. 그들의 소비자

는 그들과 작당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결과로서 타락이 모든 사업 관행으로 퍼진다.

또한 가격통제를 하는 당국자들은 통제를 시작할 당시의 가격수준을 단지 유지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도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불공정이나 사회부정을 수정하기 위하여’라고 가장하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힘있는 그룹에게는 가장 많은 것을 주고 다른 그룹들에게는 가장 적은 것을 주는 차별적인 가격통제를 곧 시작한다.

오늘날 정치권력은 통상적으로 투표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당국자들이 가장 호의를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룹은 노동자들과 농부들이다. 처음에는 임금과 생활비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고 임금은 쉽게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이윤을 희생해야만 상승된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관료들은 이윤이 어쨌든 이미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임금을 올리고 가격을 억제해도 아직도 ‘공정한 이윤’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획일적인 이윤율이라는 것이 없고 이윤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책의 결과는 가장 이윤이 적게 나는 사업을 모두 파산하게 하고 어떤 제품들의 생산을 억제한다. 이것은 실업, 생산감소 및 생활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V

최고가격을 고정시키려는 전반적인 노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물가상승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오해이다. 물가상승의 실

질적인 원인은 재화의 희소성, 또는 과잉통화이다. 합법적인 최고가
125 격제는 재화의 희소성이나 과잉통화 중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 최고가격제는 단지 상품의 부족을 심화시킨다. 과잉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통제를 추진하는 배경에 있는 오류들 중의 하나는 이책의 중심 되는 주제이다. 사람들은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된다. 혜택을 줄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하는 끝없는 계획들은 관련된 생산자들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잃어버린 결과이듯이 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가격을 억제하려는 계획은 소비자들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생산자들의 이익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유사한 혼동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사람들은 우유, 버터, 신발, 가구, 임대료, 극장표, 또는 다이아몬드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분개하고 속고 있다고 느낀다.

단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만든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격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예외적으로 생각한다. 그는 “내 사업은 독특해서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노동비용은 상승하였다.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였다. 이것저것 원재료들이 더이상 수입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높은 비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더구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 수요에 맞게 공급확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많은 생산물을 구입한다. 생산자들은 보통 하나만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상품가격을 억제하

임대료 규제

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제조업자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것처럼 개별노동자도 높은 임금이나 봉급을 원한다. 생산자로서 우리 모두는 가격통제가 자기들의 생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관찰결과를 일반화하기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그가 다른 생산물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인격체이다. 우리 모두는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이다. 어떤 사람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그가 그 순간에 어떤 경제적 인격체인가를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때때로 지킬Jekyll 박사가 되기도 하고 하이드Hyde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 그는 (자신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만을 주로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소비자로서 그는 (다른 생산물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것만 주로 생각하면서) 최고가격제도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그는 보조금을 지지하거나 잠자코 받아들인다. 납세자로서 그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분개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정치세력을 움직여서 (자신이 사용하는 원재료의 비용은 법적으로 억제하면서)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가격통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 이득을 보는 것만큼 최소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통제가 고용과 생산을 억제하고 붕괴시킴으로써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 주택 및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정부규제는 가격통제의 특별한 형태이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격통제가 가져오는 결과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몇 가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인 가격통제의 한 부분으로서 임대료 규제들이 때때로 시행되지만 그것들은 흔히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다. 임대료 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는 때이다. 작은 도시에 군부대가 주둔한다. 하숙집들은 방세를 올리고 아파트 및 주택의 소유주는 임대료를 올린다. 이로 인해 대중들이 분개한다. 또는 다른 도시에 있는 집들이 실제로 폭격으로 파괴될 수 있고, 병기나 다른 것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업으로부터 재료나 노동을 전용한다.

임대료 규제는 처음에는 주택공급이 ‘탄력적이지’ 않다, 즉 임대

료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주택부족은 즉시 메워질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시행되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을 금지시킴으로써 집주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새로운 건설을 억제하지 않고 정부가 임차인들(tenants)을 강탈과 착취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임대료 규제가 사실상 오래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128조차도 결함이 있다. 그 주장은 단기적인 결과를 간과한다. 만약 집주인들이 통화 인플레이션과 수요 및 공급의 실제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허용되면 개별적인 임차인들은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절약할 것이다. 이것은 공급이 부족한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하게 할 것이다.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수의 주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공간의 낭비적 사용을 조장한다. 그것은 특정 도시나 지역 밖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구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도시나 지역 내에서 이미 집이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차별한다. 임대료를 자유시장 수준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모든 임차인들과 장래의 임차인들이 임대공간에 대해 입찰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통화 인플레이션, 또는 실질적인 주택부족하에서 만약 집주인이 요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만을 받아들일도록 허용된다면 임대료는 확실히 상승할 것이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임대료 규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나빠진다. 새 집을 건설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새 집은 건설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의 결과) 건축비의 상승으로 기존 임대료 수준에서는 이윤을 내지 못할 것이다. 흔히 하는 대로 만약 정부가 결국 이것을 인

식하고 임대료 규제에서 새 집은 면제시켜 준다면 새 건물에 대한 유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기존 건물들이 임대료 규제에서 풀리는 것만큼은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이전의 임대료가 합법적으로 동결된 이후 화폐가치가 하락한 정도에 따라 새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동일한 면적과 비교하여 열 배, 또는 스무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기존 건물에 사는 현재 임차인들은 아무리 그들의 가족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이사할 마음을 잃게 된다.

기존 건물에 대한 낮은 고정임대료로 인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건물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그들의 가족 수가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든 공간을 낭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새로운 빌딩에 단기적으로 새로운 수요압력이 집중되게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새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완전한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로운 수요압력에 상응하여 새 건물의 건축을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아파트의 소유주나 건설업자들은 새 아파트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적은 자본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나 다른 곳에서 자본을 조달한 사람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새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규제할 구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흔히 일어난다.

집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악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적정한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힘들여 아파트를 개조하거나 개량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임대료 규제가 특히 비현실적이고 아주 엄격한 곳에서는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최소한으로 수리하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돈도 없을지 모른다. 여러가지 다른 효과들 중에서 임대료 규제법은 최소한의 수익, 또는 손실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집주인과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분개하는 임차인들 사이에 나쁜 감정을 만들어낸다.

단지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사고의 혼동 속에서 행동해왔던 입법부의 다음 단계는 통상적으로 저급, 또는 중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가난한 임차인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지만 부유한 임차인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차별적인 계획의 장기효과는 그 계획의 지지자들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고급 아파트의 건설업자나 소유주는 이 계획에 고무되고 보상을 받는다. 필요성이 더 있는 저급 주택의 건설업자나 소유주는 이 계획에 낙담하고 불리함을 당한다. 전자는 수요와 공급조건들이 보장해주는 만큼 큰 이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후자는 저급 주택을 더 건설할 유인이(또는 자본이) 전혀 없는 채 남겨진다.

그 결과 고급 아파트의 수리나 개조는 비교적 장려되고 새 개인 건물이 고급 아파트로 전환되는 경향을 가져온다. 그러나 저소득자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저소득자 주택을 좋게 수리할 유인은

없어진다. 따라서 저소득자 그룹을 위한 시설은 질적으로 저하될 것
13)이고 그 양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 저소득자 주택의 질적 저하와 부족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집주인들이 이윤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조차 싸게 팔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사라져버려 세금조차도 낼 수 없게 된다. 소유주들이 난방과 다른 기본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때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근에 있는 더 넓은 지역들이 부득이 빈민굴이 된다. 최근 뉴욕시에서 전구역이 방치된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들의 창문은 깨져 있거나 약탈자에 의해 더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자로 막혀 있다. 방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유주들이 의심을 받는다.

또다른 영향은 재산가치에 근거한 세금들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도시들이 파산하거나 기본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이 너무 명백하게 눈에 띄어도 잘못을 한 임대료 규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한다. 그들은 민간기업이 또 실패했고 “민간기업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저임대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모든 국가나 통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임대료 규제를 한 나라들에서 발생한 거의 일반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거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

작한다. 주택들은 건설비와 경상비를 상환할 수 없는 요율로 임대된다. 정부가 낮은 임대료로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를 하든 국영주택의 건설업자나 관리인에게 직접 보조를 하든 보조금을 매년 지불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다. 명목적인 계획이 어떻든 간에 그 건물의 임차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임차인들의 임대료 일부를 지불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혜택을 받도록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편애favoritism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러한 보조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압력단체가 결성된다. 거의 뒤집을 수 없는 또다른 단계가 복지국가를 향해 취해진다.

임대료 규제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엄격하고, 그리고 불공평할수록 그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정치적 주장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고정된 임대료가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의 평균 95퍼센트이고 단지 사소한 부당행위만이 집주인들에게 가해진다면 임대료 규제를 중단하는 데 대해 어떤 강한 정치적 반대도 없다. 임차인들은 평균 5퍼센트의 인상분만 지불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거나 임대료 규제법이 아주 억압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법적으로 고정된 임대료가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의 단지 10퍼센트이고 커다란 부당행위가 소유주나 집주인에게 가해진다면 임대료 규제를 없애서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지불하게 하는 무서운 악에 대한 강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임차인들에게 많은 인상분을 갑자기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임대료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임대료 규제의 폐지는 아주 조심스럽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오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칫 주장하게 된다. 사실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한 상황하에서도 임대료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극히 소수만이 정치적 용기와 경제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임대료 규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할수록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가격통제가 파기된 이후에도 가격통제의 다른 형태로 파괴적인 임대료 규제를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임대료 규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구실은 믿을 수 없다. 법은 흔히 ‘빈집의 비율vacancy rate’이 특정 수치 이상 되면 규제를 없애겠다고 규정한다. 임대료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료들은 빈집의 비율이 아직 그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계속 의기양양하게 지적한다. 물론 아니다. 법적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유지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공급증가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임대공간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대시킨다. 따라서 최고 임대료rent ceilings가 터무니없이 낮을수록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의 ‘희소성’이 계속될 것임은 더 명백해진다.

집주인들에게 가해진 부당행위는 악명 높다. 반복하면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임차인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보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가 없었을 경우 시장임대료가 되었을 일부분을 떠맡지 않을 수 없는 집주인들보다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들이 흔히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임차인들만 보면 슬픈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하거나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다른 사업 종사자들은 그들도 세금을 통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를 떠맡겠다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소유하기에 충분히 나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

슬럼가 주택의 악덕 집주인^{slumlords}보다 더 강한 악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슬럼가 주택의 악덕 집주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는 상류주택 지역에 값비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임대료는 최저 수준이고, 임대료 지불도 지연되고, 불규칙하고, 받을 지도 알 수 없는 곳인 슬럼가에서 큰 가치도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사한 임대주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타고난 사악함을 제외하면) 왜 오히려 슬럼가 주택의 악덕 집주인이 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가격통제가 빵과 같이 즉시 소비되는 물품에 가해질 때는 빵을 굽는 사람이 빵을 계속 구워 파는 것을 단지 거부할 수 있다. 빵 부족이 즉시 나타나고 정치인들은 최고가격을 올리거나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택은 내구성이 아주 강하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통상적인 유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결과를 임차인들이 느끼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주택의 희소성과 질적 저하가 임대료 규제 때문이라고 그들이 깨닫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그들의 세금과 근거당 이자율보다 높은 순소득이 발생하는 한 자신들의 집을 계속 소유하면서 임대를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임차인¹³들의 투표수가 집주인들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일반적인 가격통제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후에도 오랫동안 임대료 규제를 계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교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압력은 여러 사람들 중 한 그룹의 가상적인 단기혜택만

을 고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임차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임대료 규제는 점점 무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규제가 파괴적이고 엄격할수록 그 영향이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I

134 혜택을 주고자 하는 특정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독단적인 정부의 노력이 가져다주는 몇 가지 해로운 결과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최저임금법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려는 노력은 동일한 종류의 해로운 결과들을 가져온다. 사실상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임금도 가격이기 때문이다. 노동서비스의 가격이 다른 가격들과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가격과 임금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동일한 경제원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임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사고가

편향되어서 임금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가장 평이하고 명백한 원리들도 무시된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가격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던 사람들과, 처음에는 최저가격법은 그 법이 원래 도와주고자 했던 바로 그 산업에 가장 해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최저임금법을 지지하고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렇지만 최저임금법은 잘해야 저임금의 해악과 싸우는 제한적인 무기이고, 그러한 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선이 저임금의 해악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온당한가 하는 것에
135 비례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법이 야심적일수록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릴수록 나쁜 영향이 좋은 영향보다 클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 노동에 106달러 이하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되면 고용주에게 주당 106달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결코 고용되지 못하는 일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노동자에게 더 적게 지불하는 것을 당신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노동자를 더 가치 있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은 사회로부터는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빼앗는 반면에 그에게서는 그의 능력과 환경하에서 그가 벌 수 있는 만큼을 벌 권리를 빼앗는다. 요약하면 당신은 낮은 임금을 실업으로 대체한다. 당신은 비교할 만한 보상도 없이 해만 끼친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는 노동자 그룹이 시장가치보다 실제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흔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나 경쟁적인 힘이 자유롭고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은 거의 모두가 노동조합을 조직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인 해악이 훨씬 덜하게 개선될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높은 임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되면 그 산업은 그 생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부담이 단지 소비자에게 이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인 임금상승의 결과들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물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수입품을 사거나 다른 대체재를 살 것이다. 또는 임금인상이 된 산업의 생산물을 소비자들이 계속 구입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 생산물을 더 적게 살 것이다. 따라서 그 산업의 몇몇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 생산물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 산업의 한계생산자들이 파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으로 생산감소와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들을 지적하면 “그래 좋다, 만약 특정 산업이 기아임금starvation wages만을 지불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그 산업을 모두 없애는 것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용감한 견해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그 견해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 견해는 단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실업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견해는 특정 산업의 임금이 좋지 않다면

그 임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임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특정 산업이 최저임금법으로 없어지면 이전에 그 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처음에 그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였던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위한 그들의 경쟁은 이러한 일자리에서조차도 임금을 하락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이 실업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결론은 피할 길이 없다.

II

더구나 최저임금법으로 발생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구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묘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가령 시간당 2.65달러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주당 40시간 노동에 106달러 이하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다고 하자. 이제 정부구제금으로 우리가 주당 70달러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우리가 별 필요도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당 70달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령 주당 90달러에 유용하게 고용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고용을 금지해왔다는¹³⁷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의 노동서비스의 가치를 빼앗는다. 우리는 낮은 임금수준에서도 자급하면서 원하는 일을 한다는 데서 나올 수 있는 독립심과 자존심을 빼앗고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결과는 주당 구제금이 106달러에서 1페니만 모자라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제금을 높일수록 다른 면에서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공하면 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한 사람만큼 제공한다. 더구나 우리가 제공하는 구제금의 총액이 얼마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과 구제금의 차이만큼만 일하는 상황을 만든다. 예를 들어 만약 구제금이 주당 106달러라면 주당 110달러, 또는 시간당 2.75달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주당 4달러를 위해서 일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업구제home relief’ 대신에 ‘노동구제work relief’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결과의 본질만을 바꾸는 것이다. 노동구제는 시장이 이 구제 수혜자들의 노력에 대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수혜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구제임금의 일부만만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위장된 실업수당 disguised dole이다.

정부가 실업자를 위해 만들어낸 일government make-work은 틀림없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가장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고용할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인정된 기술과 경쟁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반대를 초래하는 것이 무서워 목수일, 벽돌 쌓는 일 등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정부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한계노동자들의 임금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보조해준다면 모든 면에서 해가 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골칫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최저임금법의 채택이나 이미 고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고려할 때 구제의 어려움들과 결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⁶⁾

이 주제를 끝내기 전에 법으로 최저임금을 고정하자고 때때로 제안하는 다른 주장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 제안은 한 대기업이 독점을 누리고 있는 산업에서는 경쟁의 두려움 없이 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독점’기업은 다른 산업들로부터 노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에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그 후 그 기업은 이론적으로 다른 산업들만큼이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특정한 전문기술에 ‘표준’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업이(또는 회사가) 악화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만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 산업이 번창하거나 확장중이라면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가장 매력적인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6) 1938년 미국의 모든 제조업에서 지급되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63센트였을 때 의회는 법적 최저임금을 25센트로 정하였다. 1945년 공장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2달러였을 때 의회는 법적 최저임금을 40센트로 정하였다. 1949년 공장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4달러로 오르자 의회는 최저임금을 다시 75센트로 인상하였다. 1955년 평균임금이 1.88달러로 오르자 의회는 최저임금을 1달러로 인상하였다. 1961년 공장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약 2.3달러였는데 최저임금은 1961년 1.15달러로 올랐고 1963년에는 1.4달러로 올랐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최저임금은 1967년의 1.4달러에서 1968년에는 1.6달러로, 1974년에는 2달러로, 1975년에는 2.1달러로, 그리고 (모든 민간 비농업부문 노동의 평균임금이 4.87달러였던) 1976년에는 2.3달러로 올랐다. 그리고 비농업부문 노동의 실제 시간당 평균임금이 5.26달러였던 1977년에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더 인상한다는 단서하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2.65달러로 올랐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수록 법적 최저임금은 최소한 그에 상응하여 인상되어야 한다고 최저임금 지지자들은 결정한다. 비록 일반적인 시장임금 상승을 법률이 따라잡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임금을 인상시킨 것이 최저임금법이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회사들은 대기업들인데 그들 대부분은 흔히 독점으로 비난받는다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가장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회사는 보통 과도한 경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한계회사들이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들은 서로 노동자들을 유지하거나 유인하기에 충분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III

139 이 모든 것이 임금을 인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부명령(government fiat)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방법이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여기에서 많은 개혁가들과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개혁가들이 더 자비롭다는 것이 아니고 더 초조해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잘사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질적인 문제는 그것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명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창출된 부 이상을 분배할 수 없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노동의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노동

자들을 도와주는 기계의 증대, 새로운 발명과 개량, 고용주들의 더 효율적인 경영, 노동자들의 더 부지런함과 효율성, 더 좋은 교육과 훈련 등이 있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소비자들에 대한 그의 서비스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고용주들에 대한 그의 서비스 가치도 높아진다. 실질임금은 정부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고용주들에게 더 번거로운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장려하고, 생산확대를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 좋고 새로운 기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즉 자본축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상승을 가져오는가

I

140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을 사실상 인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오늘날 가장 큰 망상 중의 하나이다. 이 망상은 주로 임금이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이 훨씬더 발전한 유럽과 독일보다 미국의 임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은 바로 높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요소라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자유주의자liberals’로서의 명성을 추구하는 많은 경제저술가들이 이 결론을 보통 잊어버리거나 비난한다. 그러나 이 결론은 고용

주들이 한결같이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 결론은 개별고용주는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다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고용주에게 자신들의 가치보다 더 적게 받고 기꺼이 일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이것을 완전히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 다른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당 2달러¹⁴¹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노동자에게 주당 1달러만 주고 고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의 최대한도까지만 지불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노동조합들이 필요없다거나 정당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들의 중심 되는 기능은 지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과 고용주가 노동자를 찾기 위한 경쟁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개별노동자들이나 개별고용주들이 노동시장의 조건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 개별노동자는 고용주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시장가치를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불리한 협상위치에 있을 수 있다. 판단이 잘못될 경우 고용주보다 노동자가 훨씬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만약 고용주가 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실수로 고용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만을 잃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가 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줄 다른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자리를 실수로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실수로 낭패를 당할 수

도 있다. 그의 모든 생계수단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다른 일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는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의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부딪치는 것보다 자신의 ‘실질가치’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체로 고용주와 상대하고 특정한 일의 종류에 알려져 있는 ‘표준임금’을 설정할 때 그들은 실수할 수 있는 위험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고용주들에게만 강제력이 있는 일방적인 노동법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적절한 기능에서 벗어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단견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실질 시장¹⁴²가치 이상으로 고정하고자 하면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한 시도는 항상 실업을 초래한다. 그러한 시도는 사실 협박 또는 강압에 의해서만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인정된 능력이나 기술에 의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제한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새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가입비^{initiation fees}를 부과하거나, 임의로 회원자격을 정하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종교·인종·성차별을 하거나, 조합원 수에 절대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비조합원에 의한 생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주나 도시의 가맹조합 생산물조차도 필요하다면 강제로 배제하는 것 등의 형태가 있다.

특정 노동조합의 임금을 실질 시장가치 이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박과 폭력이 사용되는 가장 명백한 경우는 파업이다.

평화로운 파업은 가능하다. 평화를 유지하는 한 파업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무기이지만 최후 수단으로 가끔씩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왔던 고집센 고용주는 제정신이 들 것이다. 그는 현재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일려고 하는 노동자들로 현재의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강경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협박과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즉 그들과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또는 고용주가 자신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위^{mass picketing}를 하는 순간에 그들의 행동은 의심받게 된다. 대규모 시위는 주로 고용주에게 대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대항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자들이 버린 일자리를 기존 노동자들이 거부한 임금수준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새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기존 노동자들이 거부한 일자리보다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노동자들이 폭력으로 새 노동자들을 방해하여 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새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새 노동자들이 더 나쁜 것¹⁴³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참가자들은 그동안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파업파괴자strikebreaker’에 대한 차별적인 증오는 정당하지 못하다. 만일 파업파괴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도 없으면서 폭력으로 위협하는 전문적인 청부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기존 노동자들이 겹을 먹고 과거의 임금수준에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일하는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증오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파업파괴자들이 실제로 단지 평생 일자리를 찾고 과거의 임금수준에서도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파업노동자들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자리보다 더 나쁜 일자리로 억지로 떠밀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의 이 우월적 지위는 영원한 폭력의 위협에 의해 사실상 계속 유지될 수 있다.

II

감성경제학(emotional economics)은 냉정히 조사해보면 정당화될 수 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론들 중의 하나는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은 만성적으로 너무 낮다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상하지만 계속 존속하는 또다른 개념은 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동일하여 한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인상은 어떤 불명확한 방법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어떤 특정 노동조합이 강제적으로 실질 시장가치보다 훨씬 높게 조합원들의 임금을 강경하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산술적으로 아주 단순화된 사회를 상상해보자. 사회가 6개의 노동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룹들의 임금 총액과 그들이 생산¹⁴⁴한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자.

가령 6개의 노동자 그룹은 농장노동자, 소매상에서 일하는 노동자, 의류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탄광노동자, 건축노동자, 철도노동자 그룹이라고 하자. 어떤 강제적인 요인 없이 결정되는 그들의 임금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임금이 무엇이 되든 각 임금이 100이라는 원지수를 기준지수로 부여하자. 이제 모든 그룹들이 전국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단지 경제적 생산성이 아니라 정치력과 전략적 지위에 비례해서 그들의 요구를 강경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농장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소매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퍼센트, 의류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퍼센트, 탄광노동자들은 30퍼센트, 건축노동자들은 40퍼센트, 철도노동자들은 50퍼센트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자.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이것은 평균 25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제 다시 산술적인 간편함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 그룹들이 만드는 생산물의 가격이 각 그룹들의 임금인상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노동비용만이 모든 비용을 나타내지 않고, 또 그 밖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격은 그렇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단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인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기본 원리를 예시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비가 평균 25퍼센트 인상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농장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구매력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소매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은 10퍼센트 인상되었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더 나빠질 것이다. 의류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은 20퍼센트 인상되었지만 이전 상태와 비교하면 불리할 것이다. 명목임금이 30퍼센트 인상된 탄광노동자들은 구매력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 건축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은 물론 이득이 있지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훨씬 이득이 적을 것이다.

145 그러나 그러한 계산조차도 강제적인 임금인상이 실업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인상이 통화와 은행신용의 동일한 증가를 동반할 경우에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을 창출하지 않고, 특히 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곳에서 실업을 창출하지 않고 임금이 있어서 그러한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 임금인상에 상응하는 통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임금인상은 광범위하게 실업을 초래할 것이다.

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그룹에서 반드시 실업이 가장 높을 필요는 없다. 실업은 여러 종류의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탄력성과 많은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결합’과 관련하여 배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참작하더라도 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그룹들조차도 실업자들과 고용된 사람들을 평균해볼 때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후생면에서 보면 고통으로 인한 손실은 단순히 산술적인 손실보다 훨씬더 클 것이다. 그 이유는 실업자들의 심리적인 손실은 구매력으로 약간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의 심리적 이득보다 훨씬더 크기 때문이다.

실업보상금(unemployment relief)을 제공해준다고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먼저 그러한 보상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부분 일하고 있

는 사람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보상금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감소시킨다. 더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적당한’ 보상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업을 창출한다. 과거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회원들을 부양하는 기능을 할 때는 심각한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초래된 실업자들을 일반 납세자들이 강제로 부양해야 하는 보상체제하에서는 노동조합들은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적당한’
146 보상금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제공받는 임금만큼 일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보상금의 차이만큼만 일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높은 실업은 상품이 더 적게 생산되고 있고, 국가가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적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제시한 문제에 다른 답을 하려고 한다. 오늘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특히 비조합원들을 착취한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해결책은 간단하다. 모든 사람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라. 그러나 그 해결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먼저 와그너-태프트-허틀리법(Wagner-Taft-Hartley Act)과 다른 법하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대한 무수히 많은 법적 및 정치적 장려조항(어떤 경우에는 강제조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유급 노동자들의 약 4분의 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기 좋은 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더 특별하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

되더라도 노동조합들이 오늘날보다 더 강력하게 되거나 모두 다 강력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어떤 노동자 그룹들은 조합원 수가 많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생산품이 더 필수적이고, 다른 산업들이 그들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 그룹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전략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모순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비율로 그들의 명목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III

이제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주의 이윤을 희생시키면 147서 임금이 인상된다고 보통 가정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어느 특정 회사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그 회사의 이윤에서 그 인상분이 나올 것이다. 임금인상이 전체산업에서 발생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만약 어떤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산업은 가격을 올려서 임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그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할 것이다. 상품가격이 인상된 결과 그 산업의 생산물 판매는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산업의 이윤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그 산업의 고용과 임금 총액은 동일한 양만큼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산업 전체의 이윤이 감소된다고 하는 상황, 즉 임금인상이 임금 총액의 증가를 의미하고 한 회사도 파산시키지 않으며, 총비용이 산업의 이윤에서 나온다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철도산업과 같이 정부규제 때문에 임금인상을 높은 요금이라는 형태로 대중들에게 항상 전가할 수 없는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고용주들과 투자자들의 비용으로 노동조합이 단기에 이득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한때 유동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금을 철도사업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들은 유동자금을 철로, 노반(路盤), 화차, 그리고 기관차로 전환하였다. 이전에는 그들의 자본이 수 천 가지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소위 하나의 특정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투자자들에게 이미 투자된 자본에 대해 더 적은 수익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투자액의 0.1퍼센트밖에 되지 않아도 운영비 이상을 투자자들이 벌 수 있다면 그들은 계속 철로를 운영할 것이다.

148 그러나 이것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따른다. 그들이 철도에 투자한 돈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돈보다 더 적은 수익을 가져오면 투자자들은 철도에 1센트도 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투자한 자본이 가져다주는 적은 수익이나마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닳아 없어지는 부품 몇 개만을 교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들은 구식이 되거나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해외에 투자한 자본보다 국내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이 적다면 그들은 해외

에 투자할 것이다. 만약 그들의 위험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은 투자를 중단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하는 것은 기껏해야 일시적이다. 그 착취는 빨리 끝난다. 우리가 가상적으로 예시했던 방법보다는 한계기업들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실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이윤에 대한 기대가 고용과 생산을 재개시키는 점까지 임금과 이윤을 강제적으로 재조정시킴으로써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하는 것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착취의 결과 실업과 생산감소는 모든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동자가 국민소득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지만 국민소득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서 노동자의 상대적 이득은 피루스의 승리Pyrrhic victory(역주; 막대한 희생을 치른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역시 실질구매력의 총량은 줄어든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IV

따라서 노동조합들이 부분적으로는 고용자들을 희생시키고 더 크게는 비조합원들을 희생시켜 일시적으로 조합원들의 명목임금 인상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로 볼 때는 결코 실질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

노동조합들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일련의 망상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망상들 중의

하나는 상관-인과의 오류fallacy of post hoc ergo propter hoc이다. 이 오류는 14) 자본투자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한 19세기 후반의 엄청난 임금인상을 노동조합의 덕으로 돌리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노동조합 역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오류는 임금인상이 고용, 생산 및 임금인상을 강요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은 추적하지 못하고 단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한 노동자들에게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만을 고려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로 볼 때 노동조합이 결코 실질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로 볼 때 실질임금이 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이 실제로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노동조합의 순효과가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왔다면 노동조합은 임금을 억제하거나 하락시키는 작용을 하는 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조합의 순효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정책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몇몇 업종에서 노동조합은 기술과 자격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초창기에 조합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하였다.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쉽게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작업속도를 재촉하고 오랫동안 일하게 함으로써 개별고용주가 단기이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무지하고 근시안적인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일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일정 수준의 표준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을 인상시킴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건강과 폭넓은 후생을 종종 증대시킨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힘이 증대되고, 과도된 대중의 동정심이 반사회적인 관습을 승인하고 관용을 보여줌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목표를 넘어 지나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주당 70시간 근무에서 60시간 근무로 줄인 것은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에도 이득이 되었다. 주당 60시간 근무를 48시간 근무로 줄인 것은 건강과 여가생활에 이득이 되었다. 주당 48시간 근무를 44시간 근무로 줄인 것은 여가생활에는 이득이 되었지만 반드시 생산과 소득에 이득이 되지는 않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것이 건강과 여가생활에 준 가치는 훨씬 덜했고 생산 및 소득감소는 더 명백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금 주당 35시간, 그리고 30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때로는 강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것들이 생산 또는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러나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친 노동조합의 정책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해 온 여러가지 정책들 중 생산성에 가장 해를 덜 미치는 방법이다. 그 정책은 건강과 여가에는 최소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조합들이 생산비용을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법'논쟁을 가져오는 엄격한 노동의 세분화를 주장해왔다. 그들은 생산이나 효율성에 근거한 임금지급을 반대하고 생산성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시간당 임금을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능력보다는 연공서열seniority에 입각한 승진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과감한 '속력증대speed-ups'를 하는 체하면서 의도적으로 태업怠業을

해왔다. 그들은 동료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해고를 주장하며 때로는 그들을 잔인하게 구타해왔다. 그들은 기계의 도입이나 개량에 반대해왔다. 그들은 조합원 중 누군가가 노동절약적이고 더 효율적인 기계의 설치로 해고가 된다면 해고된 노동자는 '정부고부금guaranteed incomes'을 무기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어느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사람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작업규칙make-work rules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고용주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의 대부분은 해야 할 일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일자리 기금job fund'도 일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가정은 완전히 잘못이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일이 일을 창출한다. A가 생산하는 것은 B가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구성한다.

151 그러나 이 잘못된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책들이 그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의 순효과는 정책이 없었을 경우보다 생산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켜 왔다. 따라서 그 정책들의 순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로 볼 때 정책이 없었을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왔다. 반복하지만 19세기에 있었던 엄청난 실질임금 상승은 자본축적과 자본축적으로 가능하게 된 엄청난 기술진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자동적이지는 않다. 나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부정책의 결과로 이 과정은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정지되었다. 만약 현재의 달러가치로 민간 비농업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주당 총수입을 살펴보면 1968년에 107.73달러에서 1977년 8월에는 189.36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즉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이 수치를 1967년 달러로 바꾸어볼 때 주당 실질수입이 1968년에 103.39달러에서 1977년 8월에는 103.36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을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견할 수 있었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중지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내재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노동조합과 정부정책들의 결과였다. 이 둘을 모두 변화시키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I

12 경제학에 관한 아마추어 저술가들은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임금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경제정의economic justice의 개념들은 중세부터 우리들에게 전래되어 왔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기능가격과 기능임금이라는 다른 개념을 만들어냈다. 기능가격functional prices이란 최대 생산량과 최대 판매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이다. 기능임금functional wages이란 최대 고용과 최대 실질임금 총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임금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지한 그들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구매력학과 purchasing-power school는 기능임금의 개념을 이상한 형태로 바꾸었다. 이 두 그룹들은 모두 현재 임금의 공평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관

심을 두지 않는다. 현재의 임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질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급박한 경제붕괴를 예방할 유일한 임금은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노동자가 되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임금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구매력학파는 과거 그러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임금이 아직도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히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

13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대중들의 이타주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의상 사악한) 고용주들에게 공정할 것을 설득하는 일은 포기하고, 그들은 대중들의 이기적 동기에 호소하도록 계산된 주장을 이용하여 고용주들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인정하도록 위협하며 강요한다.

그러나 언제 노동자가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는 언제 노동자가 충분한 것 이상 더 가지게 되는가? 무엇이 올바른 계산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임금이 아직도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히 높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답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론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은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드는 특정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짠 옷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고 밉크코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밉크 코트를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포드 자

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포드 차를, 캐딜락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캐딜락 차를 사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이미 이 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30퍼센트에 속해 있고, 정부 수치에 따르면 주당 임금이 공장의 평균임금보다 20퍼센트나 더 높고, 소매상의 평균임금보다 거의 두 배나 되던 1940년대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이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래야만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우리 상품의 소화능력을 강화해줄 수 있다”라고 한 대변인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평균적인 공장노동자와 소매상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 그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제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면 다른 노동자들은 단지 30퍼센트의 임금인상으로 충분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 노동자와 같은 1인당 구매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이 55퍼센트에서 160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14 그때에도 산업간 평균임금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1976년 제조업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임금이 207.6달러였고 건설노동자들의 주당 평균임금이 284.93달러였는데 소매상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임금은 단지 113.96달러였다.

(개별 노동조합 사이에서조차 과거 임금협상이 어떤 가이드 라인이 된다면 자동차 노동자들은 현존하는 임금격차를 유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 있어서 경제평등economic equality에 대한 열정은 박애주의자와 성직들과 같은 극히 드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것보다 덜 받는 사람들에게 주지는 열정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것만큼 받지는 열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

참하고 연약한 인간본성이 아니라 특정 경제이론의 논리와 정당성이다)

II

노동자가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구매력’ 주장의 특별한 형태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라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식료품 상인, 집주인, 고용주 등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을 사기 위한 자신들의 구매력인 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노동서비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반대되는 측면도 있다. 교환경제에서 모든 사람들의 명목소득은 다른 사람들의 비용이다. 동일한 크기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간당 임금의 인상은 생산비의 인상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곳에서 생산비의 인상은 한계생산자들의 이윤을 빼앗아 그들을 파산하게 하고 이것은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한다. 가격인상이 가능한 곳에서조차도 높은 가격은 구매자들을 위축시켜 시장을 축소시키고 역시 실업을 초래한다. 만약 시간당 임금의 30퍼센트 인상이 최종적으로 가격을 30퍼센트 인상시키면 노동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살 수 없고 회전목마 merry-go-round 처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이 큰 가격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통화 및 신용정책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경우에만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통화와 신용이 아주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이 올라도 증가하지 않으면(그리고 달러로 계산한 현재의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높은 임금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임금인상은 주로 실업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 경우 달러로 계산하나 실질구매력으로 보나 임금 총액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고 노동조합 정책이 초래한) 고용의 감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상품이 더 적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에서도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되어 생산의 절대적인 감소를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폴 더글라스 Paul H. Douglas는 많은 양의 통계를 분석했고 영국의 피구 A. C. Pigou는 단지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둘 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3과 4 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1퍼센트의 실질 임금 감소는 노동에 대한 총수요를 3퍼센트 이상 확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또는 다르게 설명하면 “만약 임금이 한계생산성 이상 올라가면 고용의 감소는 보통 시간당 임금인상의 세 배 내지는 네 배가 되어서”⁸⁾ 노동자들의 총소득도 그와 상응하여 감소될 것이다.

¹⁵⁵ 비록 이 수치들이 단지 과거 특정 시점의 노동수요 탄력성만을 나타낸 것이고 미래의 그 수치들을 반드시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수치들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7) A. C. Pigou, *The Theory of Unemployment*(1933), p.96.

8) Paul H. Douglas, *The Theory of Wages*(1934), p.501.

그러나 이제 임금인상이 심각한 실업을 창출하지 않도록 통화와 신용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앞에서 언급한 임금과 가격관계 그 자체가 ‘정상적인’ 장기관계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가령 30퍼센트 임금인상은 궁극적으로는 대략 30퍼센트의 가격인상을 가져올 듯싶다.

가격인상이 그것보다 훨씬더 작을 것이라는 믿음은 두 가지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첫번째 오류는 어떤 특정 회사나 산업의 직접적인 노동비용만을 보고는 그것이 모든 노동비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을 전체로 잘못 생각하는 근본적인 오류이다. 각 ‘산업’은 ‘수평적으로’ 고려한 생산과정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고려한 과정의 한 부분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공장 자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노동비용은 가령 총비용의 3분의 1이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은 10퍼센트 내지는 그 이하로 자동차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재료와 구매부품에서, 수송비에서, 새 공장과 새 기계에서, 또는 판매상의 가격인상에서 소요되는 간접적인 임금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1929년부터 1943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의 임금과 봉급은 평균적으로 국민소득의 6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정부 추정치는 보여주고 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5년 동안 이 수치 역시 평균 69퍼센트였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임금과 봉급은 평균적으로 국민소득의 66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보조금까지 추가하면 피고용자 보수

compensation of employees는 평균적으로 국민소득의 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임금과 봉급은 국민생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자’ 소득을 공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에서 가감할 것이 있지만 이 수치에 근거하여 노동비용은 총생산비의 약 3분의 2 이하가 될 수 없고 (노동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4분의 3을 약간 상회한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추정치 중 낮은 수치를 우리가 택하고 달러로 계산한 이윤폭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이 최종적으로 거의 20퍼센트의 가격인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투자자, 경영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는 명목이윤폭은 가령 종전 구매력의 8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전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종전과 비교하여 투자와 새로운 사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자영업자 중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고임금 노동자 계층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장기적으로 초래한다. 그러나 이것은 30퍼센트의 임금인상이 결국에는 30퍼센트의 가격인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르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노동자들이 상대적인 이득을 반드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기에 그들은 상대적 이득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손실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대적 이득이 절대적 이득을 의미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비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실업, 불균형 생산, 생산중단 및 생산감소를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균형으로 조정되고 이행하는 시기에 노동자는 더 작은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에 더 큰 파이의 더 작은 조각보다 절대적인 크

기가 더 클지는 의심스럽다(오히려 더 작을 가능성이 크다).

IV

18 이제 경제적 균형의 일반적인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자. 균형임금과 가격은 공급과 수요를 같게 하는 임금과 가격이다. 정부나 민간이 강압적으로 균형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생산이 감소한다. 만약 균형수준 이하로 가격을 낮추려 한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 이윤감소나 소멸은 공급이나 새로운 생산의 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수준인) 균형수준 이상이나 이하로 가격을 억지로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고용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다시 노동자는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돌아가자. 국민총생산은 제조업 노동자만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총생산은 사무노동자, 전문인, 농부, 고용주, 투자자, 식료품 상인, 정육점 주인, 작은 잡화점과 주유소 주인 등 생산물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창출된다.

그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해야 하는 가격, 임금 및 이윤에 관해서 보면 최고가격이란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최대 생산량과 최대 판매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이다. 노동자에 대한 최고임금은 가장 높은 임금이 아니라 완전생산, 완전고용 및 지속적인 최대 임금 총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임금이다.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최고 이윤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주가 되게 하

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고용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윤이다.

만약 우리가 경제를 어느 한 그룹이나 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혜택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그룹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이윤의 기능

19 바로 이윤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분노는 우리 경제에서 이윤이 하는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5절에서 이미 다룬 가격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경제 전체로 볼 때 이윤은 실제로 크지 않다.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면 1929년부터 1943년까지 15년 동안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소득은 평균 5퍼센트 이하였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세후 기업이윤은 평균 6퍼센트 이하였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세후 기업이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불충분한 결과 그 수치가 과대 추정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평균 6퍼센트 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소득의 형태이다. 과도한 이윤을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자(profitteer)라는 단어가 있지만 ‘부당 임금노동자(wageer)’나 ‘부당 피해자(losser)’와 같은 단어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발소 주인의 이윤은 평균적으로 인기 영화 배우의 봉급이나 제철회사의 고용사장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숙련공의 평균임금보다도 훨씬 적다.

10 이윤에 대한 주제는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오해로 인해 흐려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총이윤을 예외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형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체의 폐사율(mortality rates)을 알고 있다. (국가경제 임시위원회(TNEC)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거 50년 동안 경험했던 평균적인 사업조건이 계속된다면 오늘 개업하는 식품점 10개당 약 7개가 1년을 버틸 것이고 단지 4개만이 4년을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1930년부터 1938년까지 매년 소득세 통계로 볼 때 손실을 본 회사의 수가 이윤을 본 회사의 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평균적으로 이윤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절의 초반부에서 내가 제시했던 수치들, 즉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 이윤은 평균 6퍼센트 이하라는 것이 보통 인용되거나 모든 제조회사들의 소득세를 공제한 후 평균이윤은 1달러를 팔았을 때 5센트 이하라는 것이 인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이 수치는 단지 4.6센트였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수치는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회계방법에 의해 계산된 이윤의 크기보다는 훨씬 낮지만 법인의 성과만을 나타낸 것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비법인 회사의 모든 종류의 활동과 호황기 및 불황기를 충분히 포함하는 연도를 다 고려한 추정치가 계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손실, 투자자본에 대한 최저 ‘안전’이자율,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귀속임금 가치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순이익이 결코 나지 않고 심지어는 손손실도 볼 수 있다고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것은 기업가들이 자선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낙천주의와 자신감으로 인해 종종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할 수도 없는 모험사업을 하기 때문이다.⁹⁾

¹⁰⁾ 어떤 경우든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수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에는 위험이 큰 특정 회사나 산업에는 높은 이윤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만약 자본금 전체를 잃을 위험이 있는데도 이윤이 가령 최고 10퍼센트나 그와 비슷한 수치로 제한되면 이윤동기와 고용 및 생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2차 세계대전중 초과이득세(excess-profits tax)는 단기에서조차 그러한 제한이 효율성을 어떻게 저하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정부정책은 생산은 아무리 방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아직도 가정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생산에 대한 가장 큰 위험들 중의 하나는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어떤 상품을 만들 유인을 없앴으로써 차례대로 상품생산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실질수요에 맞춘 생산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방해한다. 자유경제에서는 수요로 인해 어떤 생산부문은 정부관료들이 생각하는 ‘과도한’ ‘비합리적인’, 또는 ‘꺼림칙한’ 이윤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그 생산부문에 있는 모든 회사들로 하여금 생산을 최대한도로 확장하게

9) Frank H. Knight, *Risk, Uncertainty and Profit*(1921)을 참조하라. 그러나 순자본 축적이 있었던 모든 시기에는 종전 투자로 인해 전체적으로 순이윤이 발생한다고 하는 가정은 너무 강하다.

하고, 이윤을 더 많은 기계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재투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부문에서의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킬 때까지 모든 곳에서 새 투자자와 생산자들을 유인하여, 그 산업에서의 이윤이 다시 일반적인 평균수준으로(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게 한다.

경쟁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이 임금, 비용 및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 경제에서는 이윤에 대한 예상이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만들며 어떤 품목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어떤 품목을 만드는 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품목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은 잘못 쓰이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 품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자원의 가치가 품목 그 자체의 가치보다 크다.

요약하면 이윤의 한 가지 기능은 수요에 맞추어 수없이 많은 상품들의 상대적인 산출량을 분배할 수 있도록 생산요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관료라도 이 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¹¹⁾ 없다. 자유로운 가격과 자유로운 이윤은 다른 어떤 체제보다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공급부족을 더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이다. 임의로 고정된 가격과 제한된 이윤은 공급부족을 더 연장시키고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이윤의 기능은 경쟁적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경영자들에게 그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 도입하라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이윤을 더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시기에는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불황기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자신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파멸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더 많

인플레이션의 망상

은 노력을 할 것이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에 대한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이윤은 가격인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도입으로 달성된다. 어떤 산업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이윤을 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그리고 독점이 아닌 한 장기적으로 그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모든 회사들이 부과하는 가격은 동일해야 한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 따라서 최저 생산비를 달성한 회사들이 최대 이윤을 누린다. 이러한 회사들은 높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회사들을 희생시키면서 확장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대중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가격과 비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지도 알려준다. 자본주의 체제에 못지않게 사회주의 체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경제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쟁적 자유기업 하에서 이윤과 손실이 제공해주는 해결책들이 그 어떤 다른 방법들이 제공해주는 해결책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163 나는 생산비를 줄이는 경향에 대해 강조해왔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이윤 및 손실의 기능 중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사람들보다 신제품mousetrap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좋은 신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이윤이 물론 더 커진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과 혁신을 자극하고 보상해주는 데는 이윤이 항상 그 기능을 해왔다.

1

164 어떤 결과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공공사업과 신용에 관한 절들에서 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함에 관한 연구는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통화와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과정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서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화를 분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이 고용, 이윤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절들에서 서로 다른 통화정책들의 몇 가지 효과는 즉시 고려되어야 했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기 전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결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왜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왔으며, 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대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국가들을 차례로 경제적 재난의 길로 유혹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장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오류는 ‘화폐’를 부와 혼동하는 오류이다. 인플레이션의 매력은 이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부가 화폐, 또는 금·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지불수단과 가치척도라는 이중적인 화폐의 기능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통속적인 개념이다…… 부유하게 되는 것은 화폐를 획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부와 화폐는 통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된다”라고 2백여 년 전에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기록하였다.

물론 실질적인 부는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 즉 우리가 먹는 식품,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거주하는 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 도로, 자동차, 배, 비행기, 공장, 학교, 교회, 극장, 피아노, 그림, 책 등이 실질적인 부이다. 그러나 화폐와 부를 혼동하는 용어의 애매함은 너무 강력하여 때때로 그 혼동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논리전개 과정에서 어느새 혼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돈을 두 배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물건을 두 배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돈을 세 배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재산은 세 배나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단지 더 많은 돈을 발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는 모두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가장 고지식한 인플레이션주의자들 inflationists이다. 약간 덜 고지식한 두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할 추가적인 돈의 양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부족’ 또는 ‘갭’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돈을 발행하게 할 것이다.

생산자들이 생산된 물품을 되사기에 충분한 돈을 산업이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어딘가에 불가사의한 ‘누출’이 있다. 한 그룹은 방정식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방정식의 한쪽에서는 어떤 품목을 한 번만 계산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품목을 여러 번 계산한다. 이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A 지불액’과 ‘A+B 지불액’ 사이에 놀라운 갭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추세를 발견하고는 정부가 잃어버린 B 지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통화나 ‘신용’을 발행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사회신용 social credit’을 노골적으로 주창하는 자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이거나 정기적인 부족 또는 갭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를 채워넣기에 충분한 추가적인 통화나 신용을 발행하는 ‘과학적인’ 계획을 주장하는 약간 더 정교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수없이 많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통화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화폐 한 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것, 즉 상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통화량 증가는 부유한 채권자와 비교하여 가난한 채무자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통화량 증가가 수출을 자극하고 수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사람들은 통화량 증가가 불황을 치료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¹⁰⁾

(은행신용을 포함한) 통화량 증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통화량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 증대된 통화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화량 증가를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상품들이 두 배로 생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상품을 이전보다 두 배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무한정한¹⁶⁷ 생산증가를 억제하는 유일한 것은 인력, 근로시간, 또는 생산설비의 부족이 아니라 단지 화폐수요의 부족이라고 상상한다. 만약 사람들이 상품을 원하고 상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상품은

거의 자동적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그들은 가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가격에 미치는 통화공급의 영향에 대해 경직적이고 기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가들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어떤 한 국가에 있는 모든 통화는 모든 상품과 교환될 것이다. 따라서 총통화량에 ‘유통속도velocity of circulation’를 곱한 것의 가치는 구입한 상품의 총가치와 항상 같아야 한다. 따라서 (유통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통화의 단위가치는 순환과정에 투입되는 통화량과 완전히 역관계를 가지면서 변해야 한다. 통화와 은행신용의 양을 두 배로 하면 정확하게 ‘물가수준’은 두 배가 되고, 세 배로 하면 정확하게 물가수준은 세 배가 된다. 요약하면 통화량이 n 배 증가되면 상품가격 역시 n 배 상승한다.

이 그럴듯한 그림에 있는 모든 오류들을 설명할 공간이 여기에는 없다.¹¹⁾ 대신에 우리는 통화량 증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가격을 인상시키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통화량 증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가령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또는 실질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판매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정부가 전쟁물자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찍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러한 지출이 가져오는 첫번째 효과는 전쟁에 사용되는 공급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전쟁물자 계약자들과 그 고용인들의 손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올 것이다(가격통제에

11) 이 오류들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B. M. Anderson, *The Value of Money*(1917: new edition, 1936); Ludwig von Mises,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American editions, 1935, 1953); Henry Hazlitt, *Inflation Crisis, and How to Resolve It*(New Rochelle, N. Y.: Arlington House, 1978).

10) 그 본질을 벗겨보면 이것은 케인즈학파의 이론이다. *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1959)에서 나는 이 이론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관한 절에서 우리는 단순화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함을 다음으로 미룬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의 가격통제 시도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함은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분석에는 변화가 없다. 가격통제는 ‘억압’ 인플레이션의 일종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몇 가지 결과들을 감소시키거나 숨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들을 더 악화시킨다.

그리고 전쟁물자 계약자들과 그 고용인들의 명목소득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들은 그 소득을 그들이 원하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할 것이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자들은 수요증가로 인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명목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은 재화를 사지 않고 지내기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이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1달러의 주관적인 가치는 더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물자 계약자들과 그 고용인들을 A그룹이라 부르고, A그룹이 추가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B그룹이라 부르자. 가격인상과 판매상승으로 B그룹은 다시 또다른 C그룹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다. C그룹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소득이 상승할 것이고 D그룹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격 및 명목소득 인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과정이 완결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화폐로 측정된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도 그에 상응하여 올라갈 것이다. 국가가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부와 소득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과정은 각 그룹의 재산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A그룹의 명목소득이 오르면 그들은 상품을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어떻게든지 오른 후에 B그룹의 명목소득이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B 10 그룹은 상품으로 측정하면 더 잘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명목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은 그룹들은 그들이 구입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낮아진 생활수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상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좀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를 임의적으로 A, B, C, D 네 개의 생산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자. 그리고 이 그룹들은 이 순서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혜택을 받는다고 하자. 그리고 A그룹이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기도 전에 A그룹의 명목소득이 이미 30퍼센트 인상되었다. B그룹의 명목소득이 20퍼센트 인상될 때 가격은 아직도 평균 10퍼센트만 인상되었다. 그러나 C그룹의 명목소득이 10퍼센트만 인상될 때 가격은 이미 평균 15퍼센트 인상되었다. 그리고 D그룹의 명목소득은 아직 전혀 인상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구입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평균가격은 20퍼센트 인상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과 임금으로 혜택을 본 A그룹의 이득은 그들의 가격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D그룹이 (소비자로서) 피해를 본 손실의 대가임에 틀림없다.

민약 인플레이션이 불과 몇 년 후에 중단된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가령 평균 25퍼센트의 명목소득 증가와 평균 25퍼센트 가격인상이

모든 그룹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기의 이득과 손실을 상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D그룹은 비록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소득과 가격이 25퍼센트 인상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과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회 내에서 A, B 및 C의 생산자 그룹으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더 지불해야 하지만 소득과 가격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시기에 발생한 손실을 결코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III

m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중심 교훈에 관한 하나의 예로서 추가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단기적으로 어떤 그룹에는 특혜를 가져다줄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그룹들을 희생시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플레이션조차도 생산구조를 왜곡시킨다. 그것은 다른 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몇몇 산업들에서는 과잉확대overexpansion를 초래한다. 이것은 자본의 오용과 낭비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이 붕괴되거나 정지될 때 잘못된 자본투자는 그것이 기계든, 공장이든, 사무실 빌딩이든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없고 많은 가치의 손실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정지시켜서 불황을 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거나 가격이 이전에 합의된 수준까지 오를 때 어떤 예상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정지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견잡을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25퍼센트의 가격인상이 50퍼센트 인상보다는 두 배가 낮고 1백 퍼센트 인상보다는 네 배나 낮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앞서 설명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25퍼센트의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당신은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정치적 압력단체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고집할 것이다.

더구나 인플레이션하에서는 화폐가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통화량과 물가의 인과관계causation가 기계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화량의 1백 퍼센트 증가는 통화단위 가치의 50퍼센트 하락을 의미할 것이라고 사전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화폐가치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평가들은 화폐의 질에 역시 의존한다. 금본위제가 아닐 경우 전쟁중에 m 있는 국가의 통화단위 가치는 통화량 변동과 관계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외국통화에 대해서 오르고 패하면 내린다. 현재의 화폐가치는 보통 미래의 통화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재화의 투기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화폐가치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화폐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일단 시작되면 통화단위의 가치가 왜 통화량보다 훨씬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재난이 거의 닥친 것이며 모든 계획은 파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고 그 어떤 세대도 선조가 당한 고통으로부터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가 동일한 망상을 그대로 쫓아간다. 모두가 입에 들어가면 먼지와 재가 될 유명무실한 소돔의 사과 Dead Sea fruit를 움켜쥐고 있다. 그것이 수많은 망상을 낳게 하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찬성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장은 인플레이션이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침체와 실업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부터 구해서 ‘완전고용’을 가져다주리라는 것이다. 조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주장은 화폐와 실질재산 사이의 아주 오래된 혼동에 근거하고 있다. 그 주장은 연못에 던져진 돌이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새 ‘구매력’이 생기고 있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증대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상품에 대한 실질구매력은 다른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질구매력은 달려라고 불리는 종이를 더 많이 찍어낸다고 놀랄 만큼 증대될 수 없다. 교환 경제에서는 근본적으로 A가 생산하는 것들이 B가 생산하는 것들과 교환된다.¹²⁾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가격과 비용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인플레이

션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임금과 관련시켜 상품가격을 올려서 기업이윤을 회복시키고, 가격과 생산비 사이의 작용관계를 회복시켜 유휴자원이 존재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한 것이 실행 불가능한 임금감소에 의해서 더 직접적이고 틀림없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더 세련된 인플레이션 지지자들은 그것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때때로 그들은 더 나아가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 임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환경하에서 제기되는 모든 제안들을 ‘반노동자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가격인상을 통해 구매력으로 측정된 실질임금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노동자 자체가 세련되었고, 큰 노동조합들은 지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동경제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는 속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그들의 정책은 정책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활비지수가 오르면 최소한 그와 비례해서 그들의 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조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력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가격과 중요 임금 사이의 실행 불가능한 관계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임금구조는 더 왜곡될 수 있다. 조직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이전에도 임금이 크게 좋지 않았고 배타적 노동조합 때문에 심하게 기가 죽어 있었는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기에는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John Stuart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Book 3, Chap. 14, par. 2);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Book VI, Chap. XIII, sec. 10); Benjamin M. Anderson, "A Refutation of Keynes' Attack on the Doctrine that Aggregate Supply Creates Aggregate Demand," in *Financing American Prosperity by a Symposium of Economists*를 참조하라. 또한 저자가 심포지엄의 내용을 편집한 *The Critics of Keynesian Economics*(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1960)를 참조하라.

요약하면 더 세련된 인플레이션 지지자들은 부정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조차 속인다. 그들은 더 고지식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처럼 마치 지폐 그 자체가 인쇄기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 있는 재산의 형태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정부가 찍어내고 지출한 모든 달러는 마법과 같이 몇 달러에 상당하는 가치가 되어서 국부에 더해진다고 하는 ‘승수’를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이다.

요약하면 그들은 현존하는 경기침체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한 대중들과 자신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린다. 대부분 실질적인 원인들은 임금-비용-가격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조절불량maladjustments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과 가격,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한 가격과 다른 가격, 또는 한 임금과 다른 임금 사이의 조절불량이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조절불량은 생산유인을 제거해왔고, 또는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그리고 교환경제의 유기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경기침체가 확산된다. 이러한 조절불량이 수정되지 않고는 완전생산과 고용이 회복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때때로 그러한 조절불량을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방법이다. 그것은 조절불량을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사용하여 교정한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제과정에 환상의 베일veil of illusion을 드리운다. 그것은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기만한다. 우리 모두는 화폐로 우리의 소득과 재산을 측정하는 데 익숙해 있다. 정신습관은 아주 강해서

심지어 전문적인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깨뜨릴 수 없다. 실질상품과 실질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들을 항상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국민소득이 인플레이션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물론 명목가치로) 두 배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중에서 더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주일에 75달러를 받다가 120달러를 받게 된 판매원이 75달러를 받던 때처럼 살려면 두 배나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그는 더 나아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생활비 인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가 변하지 않고 명목봉급이 감소하여 구매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와 봉급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되었을 경우, 비록 두 경우 모두 구매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가 처했을 실질적인 지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인플레이션은 수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자기암시autosuggestion, 최면술hypnotism, 마취제anesthetic이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아편opium이다.

VI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이다. 오늘날 ‘계획경제’ 정부가 아주 일관되게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만 들면 공공사업이 반드시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4절에서 보았다. 만약 세금으로 돈을 거두어 들이면 정부가 공공사업에

지출하는 1달러 때문에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1달러를 덜 지출하게 되고, 공공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민간 일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공공사업이 세금수입으로 지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공공사업이 적자재정, 즉 정부차입이나 돈을 찍어서 지출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결과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구매력 때문에 공공사업이 창출된 것처럼 보인다. 납세자들의 구매력이 줄었다고 당신은 말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국가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175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교훈에 따라 장기적인 결과를 살펴보자. 차입은 언젠가는 상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무한정으로 부채를 계속 축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채가 일단 누적되어 일정한 정도에 달했을 때, 그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히 상환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채가 국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파산에 의한 것이었다. 때로는 공공연한 파산이거나, 또는 자주 상환의 외관을 띠기는 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파산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가 공공사업 때문에 누적된 부채를 상환할 때는 지출보다는 반드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는 시기에 정부는 창출하는 일자리보다는 반드시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한다. 그리고 추가된 중과세는 구매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생산유인을 낮추거나 파괴하고, 따라서 국부 총액과 국민소득을 감소시

킨다.

이 결론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디플레이션에 처할 시기에 돈을 지출하고 인플레이션에 처할 시기에 부채를 즉시 상환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정부지출을 주장하는 자들은 물론 항상 이것을 가정한다). 이것은 재미있는 가공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제예측은 아주 불확실하고,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압력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 같지 않다. 일단 적자지출이 시작되면 어떤 상황하에서도 적자지출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기득권층을 창출한다.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올바른 시도를 하지 않고 철저히 176 인플레이션에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된다. 국가 전체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세금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아마 최악의 형태이며 보통 상환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을 가장 강하게 압박한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고르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이미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및 모피와 동일한 비율로 빵과 우유에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모든 상품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균등판매세(Flat sales tax)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예외 없이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들의 지출에 대한 세금일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과 생명보험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예외 없이 부자와 동일한 비율로 지불하

는 균등 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쁜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비율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보통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중과세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실질재산의 투기적인 구매를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세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일종의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방향으로 제멋대로 타격을 준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과된 세율은 고정세율이 아니다. 그 세율은 미리 결정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인플레이션은 알 수 있지만 내일의 인플레이션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모래의 인플레이션을 알 수 없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우리 모두가 꼭 따라야 할 개인정책들과 기업정책들에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검약과 절약을 방해하고 모든 종류의 낭비, 도박, 무모한 허비를 조장한다. 인플레이션은 종종 생산하는 것보다 투기하는 것이 더 이윤이 나게 한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완전히 파괴한다. 사람들을 궁여지책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씨를 심는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적 통제totalitarian controls를 요구하도록 한다.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쓰라린 환멸과 좌절로 그 종말을 고한다.

저축에 대한 비난

I

m 아득한 옛날부터 저축의 미덕에 대해 가르치고 낭비와 허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한 금언이 있었다. 이 금언은 단순히 인간의 신중한 판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낭비자와 그들의 낭비를 합리화시키려는 이론가들이 항상 있었다.

당대의 오류들을 반박하는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저축정책이 역시 국가에도 가장 이익을 많이 준다는 것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합리적인 저축자는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오래된 절약의 미덕과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한 그것의 방어가 새로운 논리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정반대되는 지출학설doctrine of spending이 유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스티아 Bastiat가 사용한 고전적인 예를 들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낭비자이고 다른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며, 둘 다 1년에 5만 달러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목돈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소득세를 무시하고, 또한 두 형제가 모두 생계를 위해서 실제로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 소득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주는지는 무시할 것이다. 그러한 질문들은 현재 우리의 목적과 관계없기 때문이다.

두 형제 중 한 사람인 엘빈Alvin은 낭비자이다. 그는 감수성과 원칙에 의해서 지출한다. 그는 “저축을 하면…… 상품은 쌓이고 노동자들 중 일부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푼이라도 즐겁고 사치스럽게 지출해야 한다”라고 19세기 중반에 주장한 로드베르투스Rodbertus의 철두철미한 신봉자이다.¹³⁾ 엘빈은 항상 나이트클럽에 나타난다. 그는 팁을 많이 준다. 그는 많은 하인을 두고 허세를 부리면서 가정을 유지한다. 그는 운전사를 여러 명 두고 있고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는 경주마의 마사馬舍를 가지고 있고 요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여행을 한다. 그는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팔찌와 모피코트를 많이 사준다. 친구에게도 비싸지만 쓸모없는 선물을 한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자본에 손을 대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란 무엇인가? 만약 저축이 죄라면 자본을 축내는 것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구두쇠 형제인 벤자민 Benjamin의 저축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단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엘빈이 휴대폰 보관소 여직원, 웨이터, 요리점 경영자, 모피상, 보석상 등에게 큰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를 대중의 은인으로 간주한다. 그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돈을 여기저기에 뿌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다.

그와 비교하면 그의 형제 벤자민은 훨씬 인기가 적다. 그는 보석상, 모피상, 또는 나이트클럽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수석 웨이터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와 친하지도 않다. 엘빈은 매년 5만 달러에 달하는 그의 소득 전부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의 자본을 축내고 있는 반면에 벤자민은 훨씬더 절도 있게 살면서 약 2만 5천 달러를 지출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벤자민은 엘빈에 비해 반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며 나머지 2만 5천 달러는 마치 존재하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벤자민이 이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는 그 돈을 그의 지갑, 사무용 책상서랍, 또는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그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한다. 만약 그가 그 돈을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한다면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단기 운전자금으로 대출하거나 증권을 산다. 다시 말해서 벤자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나 돈이 투자되면 그 돈은 주택, 사무실 빌딩, 공장, 배, 트럭, 기계 등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다 직접 소비로 지출된 돈의 양만큼 돈을 순환과정에 투입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요약하면 현대에 ‘저축’은 지출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생산을 증대시키는 수단에 지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양도된다는 것이

13) Karl Rodbertus, *Overproduction and Crises*(1850), p.51.

차이점일 뿐이다.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벤자민의 ‘저축’과 지출의 합은 앨빈의 지출만큼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순환과정에 투입한다. 앨빈의 지출이 제공해주는 고용은 누구에게나 눈에 보인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더 생각하고, 벤자민이 저축한 돈 한푼 한푼이 앨빈이 낭비한 돈 한푼 한푼과 동일한 크기의 고용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여 년이 흘렀다. 앨빈은 파산했다. 나이트클럽이나 옷가게에서 그를 더이상 볼 수 없다. 그가 이전에 후원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벤자민에게 구걸하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동일한 저축과 지출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벤자민은 투자를 통해 그의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보수와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재산인 자본과 소득은 더 커진다. 요약하면 그는 국가의 생산시설을 추가하였고 앨빈은 그렇지 못했다.

II

최근에 저축에 관한 너무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여 두 형제에 관한 예로서는 이 모든 오류들에 대해 답할 수 없다. 그 오류들에 대해 좀더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동에서 생긴 많은 오류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적인 것들인데, 특히 폭넓은 명성을 가진 경제저술가의 책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저축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단지 돈의 사재기¹⁸⁰hoarding를 의

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사용에는 명확한 구분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단순한 돈의 사재기가 비합리적으로, 까닭 없이,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제상황에서는 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재기는 극히 드물다. 이와 유사하지만 이것과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돈의 사재기는 경기후퇴가 시작된 이후에 흔히 발생한다. 소모성 지출과 투자가 모두 줄어든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구매를 줄이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자원을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구매를 줄인 이유는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그들의 소비력이 오랫동안 연장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또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의 구매를 줄인다. 상품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아마 더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지출을 연기하면 그들의 돈으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돈을 가지려고 한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사업으로 이윤을 얻을 자신감을 상실하였거나 몇 개월만 기다리면 주식이나 채권을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최소한 믿는다. 우리는 그들이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를 상품을 그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돈 자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일시적인 구매거부를 ‘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이름이

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축과 같은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저축’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은 더 심각한 오류이다. 오히려 그것은 경기침체의 결과이다.

이러한 구매거부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연장시키는 것은 사실¹⁸¹이다. 기업에 대한 변덕스러운 정부개입이 있고 정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이 모를 때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윤은 재투자되지 않는다. 회사들과 개인들은 은행에 적립하기 위하여 현금을 가진다. 그들은 우발적인 사건에 대비하여 더 많은 양의 준비금을 가진다. 이러한 현금 사재기는 곧이어 발생하는 경기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정부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경기침체가 ‘과도한 저축’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과가격의 하락이 풍작 때문이 아니라 사과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어떤 관습이나 제도를 비난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관습이나 제도를 비난하는 주장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거나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가지 소비재산업은 어떤 수요를 기대하고 건설되는데 만약 사람들이 저축하는 습관이 붙으면 그들은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경기침체를 가져온다고들 한다. 이 주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오류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그 오류란 소비재에서 절약된 돈이 자본재 지출에 쓰이고 ‘저축’은 총지출에서 1달러의 축소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주장에 있어서 단 하나의 진실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들이 한 소비재에서 다른

소비재로 그들의 수요를 갑자기 전환하면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전의 저축자가 자본재에서 다른 소비재로 그들의 수요를 갑자기 전환하면 더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저축에 대한 다른 반대가 있다. 완전히 바보 같은 것이다. 19세기는 인류는 저축을 통해 먹지도 않는 케이크를 계속 더 크게 만 만들어야 한다는 학설을 고취시켰다고 비난받는다. 이러한 묘사는 그 자체가 고지식하고 유치하다.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묘사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마도 그러한 묘사를 없애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 해에 생산하는 모든 것의 약 20퍼센트를 매년 집단적¹⁸²으로 저축하는 국가에 대해 묘사해보자. 이 수치는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순저축의 양을 크게 과장하고 있지만¹⁴⁾ 그것은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림수치이며, 우리가 ‘과대 저축’을 해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는 점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준다.

이제 이러한 연간 저축 및 투자의 결과 국가의 연간총생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문제를 분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동안 호황, 불황, 또는 다른 변동을 무시하고 있다). 연간 생산증가율은 2.5퍼센트포인트라고 하자(단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복리퍼센트 대신에 퍼센트포인트를 택하고 있다). 11년간의 수치가 지수로 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첫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저축 때문에 총생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축이 없다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기존의 자본재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자본재나 대체기계에 있어서의 질적 향

14) 역사적으로 20퍼센트는 국민총생산 중 (소비자 설비를 제외한) 자본형성에 매년 투입된 총량을 대략 나타낸다. 그러나 자본소비를 감안하면 연간 순저축은 12퍼센트에 가깝다. George Terborgh, *The Bogey of Economic Maturity*(1945)를 참조하라. 1977년 총민간국내투자는 국민총생산의 16퍼센트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추정되었다.

상과 새로운 발명이 국가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증가는 아주 적을 것이고 어떤 주장이든 충분한 시선투자 때문에 현재 기계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저축은 기존 기계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켜 국가의 상품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매년 사용되어 왔다(어떤 이상한 이유로 그 반대로 생각되더라도). 매년 ‘케이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매년 그해 생산된 케이크가 모두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억제되어 온 것은 없다. 매년 사실상 더 큰 케이크가 소비되어 (우리의 예에서) 11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는 연간 소비자 케이크가 첫해의 소비자와 생산자 케이크의 합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인 자본설비 그 자체는 첫해보다 25퍼센트 더 크다.

연도	총생산	소비재 생산	자본재 생산
1년째	100	80	20*
2년째	102.5	82	20.5
3년째	105	84	21
4년째	107.5	86	21.5
5년째	110	88	22
6년째	112.5	90	22.5
7년째	115	92	23
8년째	117.5	94	23.5
9년째	120	96	24
10년째	122.5	98	24.5
11년째	125	100	25

* 이것은 저축 및 투자의 과정이 동일한 비율로 이미 진행중임을 가정하고 있다.

183 몇 가지 다른 점을 살펴보자. 국민소득의 20퍼센트가 매년 저축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소비재산업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 만약 첫

해에 소비재산업 생산량의 80퍼센트만 팔렸다면(그리고 만족을 다 채우지 못한 수요에 의한 가격인상이 없다면) 소비재산업이 두번째 해에 생산량을 전부 팔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재산업은 과거의 저축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이미 조정되었다. 단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저축증가로 소비재산업이 진정되지 못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한 불안정은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저축감소로 인해 자본재산업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저축에 사용되어 왔던 돈이 소비재 구매에 투입된다면 고용을 증대시키지는 않고 단지 소비재 가격을 인상시키고 자본재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다. 순효과면에서 그것의 첫번째 효과는 자본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강제로 고용을 이동시켜 일시적으로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달성되었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생산을 축소시킬 것이다.

III

저축의 적들은 철저히 못하다. 그들은 ‘저축’과 ‘투자’를 먼저 구별하면서 시작하는 데 그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개가 독립변수라고 말하며 두 개가 서로 동일한 것은 단지 우연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저술가들은 이상한 묘사를 한다. 한쪽에서는 저축자들이 자동적으로, 무의미하게, 어리석게 계속 저축하고 다른 쪽에서는 ‘투자기회’가 제한되어 이 저축을 흡수할 수 없다.

아아! 그 결과는 경기침체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이러한 어리석고 해로운 저축을 빼앗고 쓸모없는 배수구나 피라미드에 돈을 다 써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묘사와 ‘해결책’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류들 몇 가지만 지적할 수 있다. 저축은 실제로 현금 사재기를 하는 양만큼 투자를 초과할 수 있다.¹⁵⁾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전과 지폐를 양말이나 매트리스에 숨겨둔다.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작은데 그것은 기업의 생산계획과 가격수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사재기가 보통 누적적으로 계속
185 되지는 않는다. 괴상한 은둔자들eccentric recluses은 죽고 그들의 사재기는 발견되어 없어짐에 따라 탈사재기disharding가 새로운 사재기를 상계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와 관련된 사재기의 총량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만약 돈이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은행들은 그 돈을 대출하고 투자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 돈을 대출하지 않고 놀릴 만한 여유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상품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원금조차 보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은행들의 두려움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현금 사재기를 증대시키도록 하거나 은행들로 하여금 이자를 포기하고 돈을 놀리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재기가 경기침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징후가 이

15)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은 단지 정의definition의 차이이다. 저축과 투자는 동일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어서 반드시 같다. 여기서 나는 저축은 화폐로 정의하고 투자는 상품으로 정의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단어사용과 대개 일치하나 일관성은 없다.

미 나타나 사재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무시할 만한 사재기는 그렇다 치고(그리고 이 사재기조차 돈 자체에 대한 직접투자로 생각될 수 있다)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가져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축과 투자는 균형을 가져온다. 우리는 저축과 투자가 새로운 자본의 공급과 수요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모든 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같아지는 것처럼 이자율에 의해서 자본의 공급과 수요가 같아진다. 이자율은 단지 대부자본 가격에 대한 특별한 이름이다. 다른 가격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가격이다.

최근에 복잡한 궤변들과 그러한 궤변들에 근거하고 있는 손해 막심한 정부정책들로 인해 이 주제 전체가 아주 지독하게 혼동되어서 사람들은 그 주제에 관한 상식과 건전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거의 포기한다.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정신병적인 두려움이 있다. 만약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돈을 차입하여 새 공장과 기계에 투자하는 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최근 몇십 년 동안 모든 곳에서 정부는 인위적인 ‘저리자금cheap money’ 정책들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자본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주장은 자본공급에 미치는 이
186 러한 정책들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한 그룹에만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보고 다른 그룹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잊어버리는 오류에 관한 또 하나의 예이다.

만약 이자율이 위험에 비해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유지되면 저축과 대출 모두 감소할 것이다. 배부른 부자들은 그들의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과 관계없이 저축은 자동적으로 계속된다고 저리자금의 지지자들은 믿는다. 어떤 사람의 개인소득

수준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야 그가 이자율 및 대출위험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일정량을 저축할지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아주 부자들의 저축량은 중산층의 저축량보다 이자율 변화에 훨씬 덜 영향을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저축이 이자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극단적인 예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저축량은 대폭적인 이자율 인하에도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탕가격이 크게 인하되어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효율적인 생산자들이 아직도 이전과 동일한 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설탕의 총생산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주장은 한계저축자를 간과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축자 대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의 효과는 자연적인 시장가격 이하로 다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의 효과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수요를 증대시키고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자본 수요를 증대시키고 실질자본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경제를 왜곡시킨다. 이자율의 인위적인 인하가 차입증대를 조장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실 이자율의 인위적인 인하는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지 않으면 도저히 계속될 수 없는 고도의 투기적 모험사업들을 조장한다. 공급측에서 보면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는 정상적인 절약, 저축 및 투자를 억제한다. 그것은 자본 축적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아주 촉진되어야 할 생산성 증가, '경제 성장', '진보'를 더디게 한다.

사실 실질저축 대신에 통화나 은행신용을 계속 새롭게 투입해야 187만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물을 추가하여 우유

가 더 많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통화나 은행신용을 계속 투입하여 더 많은 자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의 과정이다. 그것은 확실히 위험을 누적시키는 과정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역전되거나, 단지 정지되거나, 또는 증감률이 체감하면서 계속된다면 이자율은 인상될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다.

통화나 은행신용의 새로운 투입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화폐의 구매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자율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고 있다. 대부자들은 그들이 오늘 대출해주는 돈이 가령 1년 후 다시 회수될 때 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들 화폐구매력의 예상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들은 정상이자율에다 할증이자율을 추가한다. 이 할증이자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재무부 채권의 연이자율은 1976년 14퍼센트로 올랐다. 이탈리아 정부채권의 수익률은 1977년 16퍼센트였다. 그리고 칠레 중앙은행의 할인율은 1974년 75퍼센트로 치솟았다. 요약하면 저리자금 정책들은 원래는 경기변동을 개선하거나 예방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훨씬더 격렬한 경기변동을 결국 초래한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부정책들을 통해서 이자율에 간섭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대된 저축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자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자체 수요를 창출한다. 투자될 곳을 찾고 있는 저축증가로 인해 저축자는 낮은 이자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차입금으로 구입한 새 기계나 공장들에서 발생할 기업들의 예상이익이 차입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것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은 더 많은 기업들이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

IV

188 이제 우리는 저축에 관해 내가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오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오류는 흡수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거나 자본확대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훈련된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17세기 산업 이전 사회와 현대세계를 구분하는 부富有는 대부분이 축적된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본은 부분적으로는 자동차, 냉장고, 가구, 학교, 대학, 교회, 도서관, 병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주택 등 내구소비재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역사상 이러한 것들이 충분했던 적이 없었다. 순전히 숫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충분한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주택들을 제외한 모든 주택들의 질적 개선은 끝이 없다.

자본의 두번째 부분은 우리가 적정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적정자본은 조잡한 도끼, 칼, 또는 쟁기에서부터 멋진 공구, 훌륭한 발전기, 또는 입자가속장치(cyclotron), 가장 놀라운 장비를 갖춘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생산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도 역시 양적으로, 그리고 특히 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는 끝이 없다. 가장 뒤쳐진 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만큼 기술적인 장비

를 갖출 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공장이 가장 좋은 최신 장비를 갖춘 공장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때까지, 인간의 발명의 재주가 더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더이상 가장 현대화된 생산도구의 개선이 불가능할 때까지는 ‘잉여’자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는 한 더 많은 자본의 기회는 무한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자본이 어떻게 흡수될 수 있는가? 무슨 돈으로 추가 자본을 구입할 수 있는가? 만약 추가적인 자본이 형성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흡수되고 지불된다. 생산자들이 새로운 자본에 투자하는 것, 즉 그들이 더 새롭고, 더 좋고, 그리고 더 독창적인 도구를 구입하는 것은 이러한 도구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완전히 손만을 이용해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상품들(우리 주위에 있는 책, 타자기, 자동차, 기관차, 출렁다리 등)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상품들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한 것이지만) 단위생산비를 줄인다. 그리고 단위생산비가 줄어들 수 있는 정도에는 정해진 한계가 없기 때문에 흡수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의 양에도 정해진 한계가 없다.

새로운 자본추가에 의한 단위생산비의 꾸준한 감소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하거나 두 가지 모두 한다. 그것은 소비자가 구입할 상품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설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기계는 그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소비자들의 경우 그것은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해주고,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새

다시 강조하는 교훈

기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것은 그들의 명목임금뿐만 아니라 실질임금도 증가시킨다. 전형적인 예가 자동차산업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임금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960년까지) 미국 자동차 제조업자는 그들의 단위비용이 더 낮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 수 있었다. 그 비밀은 노동자 1인당, 그리고 자동차 1대당으로 볼 때 미국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자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의 끝에 이르러 경제가 이미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¹⁶⁾ 우리가 이 과정 끝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계는 어리석어서 계속 저축으로 자본의 양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00 우리들의 분석에 따르면 누가 실제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미국은 ‘경제적 성숙’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반자본주의적 정부정책들 때문에 세계에서 경제지도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I

101 우리가 되풀이해서 살펴본 대로 경제학은 부차적인 결과들을 인식하는 과학이다. 경제학은 일반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는 과학이다. 경제학은 제안된 어떤 정책이나 기존 정책이 단기적으로 특정한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과학이다.

이것은 이 책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온 교훈이다. 우리는 먼저 뼈대를 말했고 다음으로 많은 실제적용들을 통해서 살과 피부를 입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교훈들에 관한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교훈들을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16) 이 오류에 대한 통계적인 반박으로는 George Terborgh, *The Bogy of Economic Maturity*(1945)를 참조하라. Terborgh 박사가 반박하는 ‘경기침체주의자들stagnationists’은 유사한 학설을 주장한 갈브레이스주의자들Galbraithians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경제학이 결과들을 추적하는 과학이라고 이해한다면 논리학과 수학처럼 경제학도 필연적인 결과들을 인식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학에서 다루는 기본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령 $x=5$ 이면 $x+y=12$ 라고 하자. 이 방정식의 ‘해’ y 는 7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방정식이 y 가 7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방정식은 y 가 7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을 암시한다.

이 단순한 기본 방정식에서 사실인 것은 수학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102 잡하고 난해한 방정식들에서도 사실이다. 해답이 이미 문제 속에 있다.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방정식을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잘 푸는 사람이 때때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감각, 즉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새 행성이 들어올 때 느끼는 전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의 발견감각은 그가 구한 답의 이론적, 또는 실질적인 결과들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답은 문제의 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는 없다. 필연적인 결과들이 반드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수학은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경제학에서도 똑같다. 이 점에서 경제학은 역시 공학과 비교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학자는 그 문제와 관계 있는 사실들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가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계한다면 그는 두 지점의 정확한 거리, 정확한 지형특징, 다리가 견디어낼 최대 하중, 다리건설에 사용될 강철이나 다른 재료들의 장력 및 압축강도, 다리가 받게 될 무게 및 압력 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사실에 관해 많은 연구들을 해놓았다. 그가 사용할 재료들의 강도와 그것들이 받게 될 무

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미 정교한 수학방정식들을 그의 전임자들이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그는 지을 탑, 케이블 및 대들보에 필요한 지름, 형태, 개수 및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부여받은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사실들과 그러한 사실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타당한 추론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 경제학의 연역적인 면은 사실만큼이나 중요하다. 산타야나(Santayana)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논리학은 “진리의 발광을 추적한다.” 그래서 “논리체계의 한 용어가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그 용어와 관련된 전체체계는 말하자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경제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¹⁷⁾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제적 설명들의 103 필연적인 결과들을 인식한다. 그들이 경제를 구하는 방법은 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경제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동일한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붙인 다른 이름들이다. 그들이 번영에 이르는 방법은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번영에 이르는 방법은 도시노동자가 비싼 식료품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정부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세금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실제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출증대를 주목적으로 할 때 궁극적으로는 수입증대를 주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한다. 거의 모든 조건하에서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17) George Santayana, *The Realm of Truth*(1938), p.16.

라고 다른 방법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안들은 동전처럼 모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같은 제안이나 해결책이라도 다른 이름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모든 조건하에서 원래의 제안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차입자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부채증가를 약간 고려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어느 특정 산업이 생산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는 동전의 양쪽 모두를 고려해야 하고 어떤 제안의 모든 결과들을 연구해야 한다.

II

우리가 예로 제시한 것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부차적인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이란 여러 제안들이 단기에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그룹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들은 단순한 상식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들과 보통 일치한다. 그것은 창문을 깨뜨리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좋다, 필요없는 공공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일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부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절약하는 기계는 두렵다, 자유로운 생산과 자유로운 소비에 대한 방해는 부를 증가시킨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생산비보다 싸게 상품을 공급해주어도 더 부유해진다, 저축은 어리석거나 사악하며 낭비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등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경제적 반문맹(half-literacy)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개인들에 있어서 신중한 행위가 국가에 있어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강한 상식으로 그 시대의 퀘변가들에게 응답했다. 그러나 별볼일없는 사람들은 복잡해지면 어쩔 줄을 모른다. 그들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때조차도 그들의 논리를 재검토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은 철학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신론을 가져오지만 깊이가 있는 철학은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가져온다”라고 한 베이컨(Bacon)의 금언(aphorism)을 독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경제학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 역설적이고 앞뒤가 뒤바뀐 결론을 쉽게 가져오지만 깊이 있는 경제학은 사람들을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깊이 있는 경제학은 눈에 보이는 정책의 결과들만을 보지 않고 정책의 모든 결과들을 보기 때문이다.

III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또한 옛친구를 다시 발견하였다. 그는 잊혀진 사람(Forgotten Man)으로 유명한 윌리엄 그램 쉼너(William Graham Sumner)이다. 독자들은 1883년에 기록한 쉼너의 다음과 같은 글을 기억할 것이다.

X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A는 B에게 그것을 말하고, A와 B는 그 악을 제거하고 X를 도와주기 위한 법

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들의 법은 항상 X를 위해 C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더 나은 경우 X를 위해 A, B 및 C가 무엇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나는 여기서 C를 살펴보고 싶다…… 나는 그를 잊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는 결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개혁가, 사회이론가 및 자선가의 희생자이다. 그리고 그도 인간이고 그에 게 부과된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역시 당신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글을 마치기 전에 당신들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잊혀진 사람에 대한 이 문구가 1930년대 되살아나 잊혀진 사람이 C가 아니라 X였다고 한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은 X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C는 완전히 잊혀졌다. 정치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잊혀진 사람 C를 시켜 관대함을 베풀게 하고 자신의 과장된 동정심을 달래주도록 항상 C에게 요구한다.

IV

우리의 교훈과 작별하기 전에 우연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발생한 근본적인 오류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교훈에 대한 연구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오류는 사실상 분업division of labor이 가져오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분업이 발생하기 전 원시사회에서나 개척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가족만을 위해 전적으로 일한다. 그가 소비하는 것은 그가 생산한 것과 동일하다. 그의 생산물과 그의 만족

은 항상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교하고 세심한 분업이 시작되면 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결은 없어진다. 나는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중 하나만 만든다. 이 한 상품을 만들거나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오는 소득으로 나는 나머지 모든 것을 구입한다. 나는 내가 구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공급할 것은 아주 희소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들에 비해서 내가 공급하는 것의 희소성이 커질수록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더 커진다.

이것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생산물을 제한할 것이라고는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라면,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상품이 자유롭게 경쟁한다면 나의 노력과 생산물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령 내가 밀 재배자라면 나는 가능한 한 많은 밀 수확을 원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자신의 물질적인 복지에만 관심이 있고 인도주의 같은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모든 밀 재배업자들이 가능한 한 밀 수확을 적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밀이(그리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료품이) 희소해져서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기적인 감정은 밀의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개별생산자는 자신의 땅에서 가장 큰 수확을 올리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좋은 나쁜 이타적인 힘보다 지속적으로 더 강력한) 이기적인 힘은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 생산량을 가져오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만약 밀 재배업자들이나 다른 생산자 그룹들이 경쟁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밀 재배업자들은 정부나 세계기구를 설득하여 모든 밀 재배업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밀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방법으로 밀의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셴당 가격상승이 생산감소에 비해서 클수록 밀 재배업자들은 전체적으로 더 나아질 것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밀 재배업자들이 생산한 밀을 더 적게 얻으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은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는 그만큼 가난해질 것이다. 재배되지 않는 밀의 양만큼 국가가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나 밀 재배업자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득만 보고 이득을 상계시키는 더 큰 손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된다. 만약 비정상적인 기후조건으로 인해 오렌지의 수확이 갑자기 증가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다. 세계는 더 수확된 오렌지의 양만큼 부유해질 것이다. 오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의 과잉공급이나 낮은 가격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오렌지 재배업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실로 인해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다. 만약 그러한 조건하에서 나의 오렌지 수확이 평상시보다 많지 않으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낮은 가격으로 나는 손실을 볼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공급변화에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발명·발견·기호에 의한 수요변화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채면기(cotton-picking machine)는 먼으

로 만든 속옷의 생산비를 줄여서 일반적인 부를 증대시키지만 목화 따는 사람들의 고용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더 좋은 옷을 짜는 새로운 방직기는 수많은 옛날 기계들을 폐물로 만들고 그 기계들에 투자된 자본의 일부를 없애버려 그러한 기계의 소유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원자력의 개발은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베풀 수 있지만 탄광과 유정油井 소유주에게는 무서운 것이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술발전이란 없는 것처럼 대중기호(public taste)나 공중도덕의 변화 역시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절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수많은 바텐더들이 파산한다. 도박이 감소하면 놀음판의 보조자와 경마예상가들은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남자들이 순결을 지킬수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창녀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덕을 일부러 방조하는 사람들만이 공중도덕의 갑작스런 개선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도덕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 속할 것이다. 목사들은 불평할 것이 적어질 것이다. 개혁가들은 그들의 목적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그들의 공헌에 대한 지지도는 감소할 것이다. 만약 범죄자가 없다면 변호사, 판사 및 소방수가 더 적게 필요하고 교도관, 자물쇠 제조공, (교통정리를 하는 서비스 외에는) 경찰들이 필요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분업체제하에서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고생해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의 어떤 필요를 더 성취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모든 집단이 완전히 동등하게 발전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특정 그룹의 이익 사이의 대립은 그것이 인지되는 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세계의 밀 수확이 증가한 그해에 나의 밀 수확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오렌지 수확과 다른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같이 증가한다면, 모든 산업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한다면, 밀 재배업자로서 나는 밀 생산이 증가하였더라도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부셴의 밀로 받는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증대된 수확으로 내가 벌어들인 총액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증가로 인해 더 싸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산물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의 밀 가격과 동일한 비율로 다른 모든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상 나는 나의 총수확량 증가에 비례해서 더 나아진 것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증가에 비례해서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이같이 완전히 획일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아마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발전은 이 생산분야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저 생산분야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노동을 제공하여 만든 상품의 공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으로 내가 생산하던 것이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세계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나와 내가 속한 생산그룹에게는 비극이 된다.

아주 공평한 사람들조차 공급증가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진 이익보다는 집중된 손실을 덜 잘 본다. 더 많은 양의 쌀 커피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있다. 몇몇 커피 재배업자들이 낮은 가격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만이 눈에 보인다. 새로운 기계에 의한 낮은 비용으로 인해 증대된 신발의 생산은 잊혀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만이 눈에 보인다.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가 인식되어야 하고, 그들은 동정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 특정한 발전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가 발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급을 임의로 축소시키고, 더 나은 발명이나 발견을 방해하고, 가치를 상실한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호관세로,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커피에 불을 지름으로써, 수많은 제한계획에 의해 세계가 반복적으로 추구해온 것이다. 이것은 희소성을 통해 부를 창출한다는 비상식적인 학설이다.

그 학설은 어떤 특정 생산자 그룹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는 사실이다. 즉 그들이 팔아야 할 상품은 희소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구입해야 할 다른 모든 상품들은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학설은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항상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잘못된 학설이다. 그것은 결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없다. 모든 것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자멸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된 우리의 교훈이다. 우리가 하나의 경제그룹에게만 집중할 때는 사실로 보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는 망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경제과학economic science의 목표이다.

제3장

30년 이후의 교훈

The Lesson After Thirty Years

30년 이후의 교훈

2B 이 책의 초판은 1946년에 나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그 이후 32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이 책에서 지금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교훈이 되었을까?

정부정책들을 수립하고 부과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누구도 이 교훈들을 배우지 않았다. 오히려 이 책의 앞절들에서 분석한 정책들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의 정책들보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훨씬더 철저하게 확립되고 있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띄는 예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간섭주의자 정책들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모든 곳에서 정부 간섭의 일반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

1946년판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그때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 1926년 연방정부의 지출은 30억 달러 이하였고 흑자재정이었지만 1946년 지출은 550억 달러로 상승^{2B}하였고 160억 달러 적자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 1947년 지출은 350억 달러로 떨어졌고 흑자도 거의 4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1978년 지출은 4,510억 달러로 급등하였고 적자도 490억 달러였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였다. 요구불예금과 민간 현금통화의 합이 1947년에는 1,130억 달러였는데 1978년 8월에는 3,570억 달러였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 통화공급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화증가는 급격한 물가상승을 가져왔다. 1946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8.5였다. 1978년 9월 그 수치는 199.3이었다. 즉 물가도 세 배 이상 상승하였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 출판된 지 40년 이상 지났고, 여러가지 분석과 경험을 통해 그 책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된 지 20년 이상 지났어도 많은 정치인들이 현존하는 실업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적자재정을 운영하라고 아직도 부단하게 권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과거 48년 중 41년을 적자재정으로 운영해왔고 적자가 매년 5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섬뜩한 아이러니이다.

국내에서 무서운 손해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관료들이 이러한 ‘확대’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

른 나라들, 특히 독일과 일본을 비난해온 것은 더 섬뜩한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자기가 꼬리를 잃게 되자 동료여우들의 꼬리를 강제로 자르게 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를 생각나게 한다.

케인즈 신화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최악의 결과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더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최저임금법, 오랫동안 과도하게 지급되는 실업보험, 그리고 아주 관대한 구제금 등 실업의 실질적인 원인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떼어내게 돌려놓는다.

25 그러나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이 흔히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정부가 경제에 간섭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은 피터Peter에게서 돈을 빼앗아 폴Paul에게 아낌없이 주는 모든 정책들, 즉 재분배 국가Redistributive State의 결과이다.

1970년대 초 실제로 제안되어서 의회 위원회가 심각하게 고려한 연간소득보장guaranteed annual income과 같이 어떤 과정이 하나의 수단으로 구체화되면 그 과정은 추적하기 더 쉬울 것이고 그것의 파괴적인 영향은 폭로하기 더 쉬울 것이다. 그 제안은 평균 이상 되는 모든 소득에는 무자비하게 세금을 더 매겨서 일할 의사가 없든 소위 최저빈곤선minimum poverty line 이하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엄 있게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주지는 것이었다. 이 계획보다 더 일할 의욕과 생산을 위축시켜 끝내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계획을 상상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수단을 통과시켜 단번에 파멸을 초래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재분배가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영향

을 주는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러한 수단들은 몇몇 그룹들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 수단들은 수없이 다양한 혜택, 보조금 및 다른 기부물품 등을 다른 그룹들에게 뿌릴 수 있다. 그 수단들을 순서 없이 나열해보면 사회보장제도,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 저소득자 의료보험Medicaid, 실업보험, 식량카드food stamps, 퇴역군인에 대한 혜택, 농산물 보조금, 주택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학교점심 제공, 불필요한 일자리에 고용하는 것, 아동부양 세대 보조, 노인·맹인·불구자에 대한 보조를 포함한 모든 직접적인 구제금 등이다. 주정부와 시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노인, 맹인 및 불구자 등이 4백만 명 이상 된다고 연방정부는 추정하였다.

어떤 저술가는 44개 이상이나 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최근 조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은 1976년에 총 1,870억 달러였다. 1971년과 1976년 사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지출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5퍼센트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 증가율의 2.5배에 달한다. 1979년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지출예산은 2천5백억 달러 이상이다. 복지지출의 엄청난 증가와 맞물려 '전국적인 복지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이제 복지산업에 종사하는 5백만 명의 공공 및 민간노동자들이 5천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돈과 서비스를 나누어주고 있다.1)

때로는 더 통합되어 있고 제멋대로 거두는 것은 덜하지만 거의 모든 서방국가들이 유사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들은 더욱더 가혹한 세금Draconian taxation에 의존해왔다.

1) Charles D. Hobbs, *The Welfare Industry*(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1978).

우리는 그 예로서 영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83퍼센트까지, 그리고 투자로 벌어들인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98퍼센트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것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해쳐서 생산과 고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고용주들을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보다 더 확실히 고용을 방해하는 방법은 없다. 더 효율적인 새 기계와 장비에 투자하는 모든 유인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임금을 낮추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점점더 이러한 방법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혹한 세금으로도 더 무모해지는 정부지출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계획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수입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만성적인 정부예산 적자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과거 30여 년 동안 뉴욕의 시티은행은 10년 주기로 인플레이션을 기록해왔다. 그 계산은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생활비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1977년 10월 자체에서 발행하는 경제동향지에 50개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1976년의 수치를 보면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서독의 마르크화는 과거 10년 동안 35퍼센트에 달하는 구매력을 잃었다. 스위스의 프랑화는 40퍼센트를 잃었고, 미국의 달러화는 43퍼센트, 프랑스의 프랑화는 50퍼센트, 일본의 엔화는 57퍼센트, 스웨덴의 크로네화는 47퍼센트, 이탈리아의 리라화는 56퍼센트,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61퍼센트를 잃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크루제이로화는 89퍼센트의 가치를 잃었고 우루과이, 칠레 및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99퍼센트 이상을 잃었다.

1년 또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세계의 통화가치 하락은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1977년 미국의 달러화는 연 6퍼센트 하락하였고, 프랑스 프랑은 8.6퍼센트, 일본의 엔화는 9.1퍼센트, 스웨덴의 크로네화는 9.5퍼센트, 영국의 파운드화는 14.5퍼센트, 이탈리아의 리라화는 15.7퍼센트, 그리고 스페인의 페세타화는 연 17.5퍼센트 하락하였다. 남미의 경우 1977년 브라질의 통화는 연 30.8퍼센트, 우루과이의 통화는 35.5퍼센트, 칠레의 통화는 53.9퍼센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통화는 65.7퍼센트 하락하였다.

이러한 통화가치의 하락이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에 준 혼돈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생활에 준 고통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내가 지적했듯이 많은 인간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상당부분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 정책들의 결과들이다. 실제로 이러한 모든 간섭들은 우연하게도 이 책의 기본 교훈을 예시하고 뒷받침해준다. 모든 간섭들은 어떤 특정 그룹에 즉시 혜택을 줄 것 이라는 가정하에 행해졌다. 그러한 간섭들을 행한 사람들은 그러한 간섭들의 부차적인 결과들, 즉 장기적으로 모든 그룹들에게 미칠 영향들에 유념하지 못했다.

요약하면 정치인들에 관한 한 이 책이 30여 년 전에 주입하려고 했던 교훈들이 아직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책을 순차적으로 되짚어보면 이 책의 초판에서 비난했던 정부간섭의 형태가 아직도 더 끈질기게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책들이 초래한 실업을 아직도 공공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세율의 착취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신용확대를 권고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완전고용’을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수입할당과 보호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통화를 더 평가절하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농부들은 아직도 ‘평형가격’을 보장해달라고 ‘파업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손해를 보는 산업들을 특별히 장려한다. 그들은 아직도 특정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통화팽창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아직도 높은 가격이 민간생산자, 판매자 및 ‘부당이득자’ 때문이라고 계속 비난한다. 그들은 새로운 탐사를 가장 장려해야 할 때 탐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원유와 천연가스에 최고가격을 부과하거나 일반적인 가격 및 임금통제,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그들은 임대료 규제가 초래하는 명백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초래하는 만성적인 실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대규모의 시위와 다른 형태의 강압을 묵인해주기 위하여, 고용주들이 그러한 노동조합들과 ‘선의의 가지고 집단적으로 협상하도록’, 즉 그들의 요구에 최소한 몇 가지라도 양보하도록, 노동조합에 특권과 면책을 주는 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의도는 ‘노동자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또 한 번 실업을 창출하고 실업을 연장시키며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총임금지급액을 낮춘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이윤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평균이윤

이나 총이윤을 과대 추정하고, 어디에서든 보통 이상 되는 이윤은 비난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때로는 이윤의 존재 바로 그 자체조차도 유감으로 여긴다.

반자본주의 정서^{antipathetic} ^{anticapitalistic} mentality가 이전보다 훨씬더 깊이 새겨진 것처럼 보인다. 경기가 침체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불충분한 소비지출’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은 더 많은 소비지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에 불리한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저축과 투자의욕을 더 꺾고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치인들은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오늘날 금·은본위제를 택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상승적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지폐를 찍어냄으로써 자기 국민들을 사취^{expropriate}하고 있다.

이 산더미 같은 정부간섭의 형태에 새로 추가된 것을 살펴보자. 그것은 미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최근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일단 시작되면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 우리는 이미 전반적인 상황을 훑어보았지만 아주 눈에 띄는 예인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최초의 연방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통과되었다. 그 법의 배경에 있는 이론은 사람들이 한창 일할 때 저축을 하지 않아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될 때 재원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큰 구제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고용주도 필요한 보험금의 반을 강제적으로 부담하여, 사람들이 65세나 그 이후 은퇴할 때 충분한 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보장은 엄격한 보험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자기가 자본을 조달하

는 보험이었다. 준비금은 장래 만기가 되었을 때 지불하기에 충분해야 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러한 방법으로 결코 작동되지 않았다. 준비금은 주로 지폐로 존재하였다. 정부는 사회보장세금 수입으로 통상적인 지출이나 연금을 지불하는 데 지출하였다. 1975년 이후 현재 연금지급액이 사회보장세금 수입을 초과해왔다.

실제적으로 모든 회기에 의회는 연금지급을 늘리고,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험’을 추가해왔다. 1965년 어느 한 시사평론가가 “과거 일곱 번의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회보장이라는 달콤한 것이 제정되었다”라고 지적한 몇 주 후에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가 추가되었다.

20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훨씬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금 연금을 많이 주고 비용은 미래로 돌리는 것이 전형적인 정치적 흥정이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항상 도래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의회는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지급 급여세payroll taxes를 다시 증가시켜야 한다.

세율이 계속적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과세되는 봉급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35년 최초의 법에서는 첫 3천 달러의 봉급에만 과세하였다. 초기의 세율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1965년에는 근로소득의 첫 6천6백 달러에 대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똑같이 4.4퍼센트의 사회보장 세금을 부담했는데, 1977년에는 첫 1만 6천5백 달러에 대해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합해서 11.7퍼센트의 사회보장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급등하였다(1960년과 1977년 사이에 연간 총세금은 572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복리로 계산하면 연 12퍼센트

증가한 것이었다. 앞으로 훨씬더 높은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

1977년 초 사회보장제도의 단기부채는 공식적으로 4조 1천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실제로 보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복잡하고 한쪽으로 기운 구제체제relief system인지는 오늘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현재 연금수혜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번 돈으로’ 그들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떤 민간 보험회사도 실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받고 있는 ‘보험료’로 현재의 연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1978년 초 저임금 노동자들이 은퇴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던 월급의 약 60퍼센트를 매월 받는다.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약 45퍼센트를 받는다. 아주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이 비율은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회보장제도가 구제체제로 생각된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체제인데, 이미 최고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신성불가침이다. 현재의 연금뿐만 아니라 약속된 미래의 연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자고 어떤 정치인이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적인 구제계획, 재분배 계획, 또는 ‘보험’계획이 일단 확립되면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상징이 되고 있다.

211 요약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다. 건전한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는 생산유인들을 억제하여 총체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폭력과 사기를 금지하는 법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정부에게 적합한 분야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한 경제적 간섭을 삼가해야 한다. 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은 자유시장을 장려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를 방문하여 그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햇빛이 가리지 않도록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라고 디오게네스는 대답하였다. 모든 시민들이 정부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전망은 어둡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구름 속의 갈라진 틈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들로부터 빼앗지 않고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선택된 그룹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은 세금을 증대시키는 것이나 적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생산을 오도하고 파괴한다. 소수의 정치인들도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들 중 몇몇은 그것을 명백하게 주장한다.

또한 지적인 학설의 흐름도 이동하는 두드러진 징후가 있다. 케인즈학과와 뉴딜정책의 지지자들은 천천히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주의자, 자유론자libertarians, 그리고 자유기업의 다른 지지자들이 더 큰 목소리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젊은이들 중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문하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존하는 수단과 추세로 인한 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공공정책이 반전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있다.

해 제

경제학의 교훈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 1894~1993)은 자본주의, 번영, 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시장을 열렬히 옹호한 자유론자(libertarians)이며 경제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또한 자유론자들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 A. Hayek), 루트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미국에 소개하였고, 경제교육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을 설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뉴스위크』 등에 1만 차례 이상 글을 기고했다. 해즐릿은 1946년에 『경제학의 교훈(Economics in One Lesso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1978년에 그 개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의 『당신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근시안적인 사고가 어떻게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가 서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은 어느 특정한 입법의 해악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원리에 대해 쓴 것이고, 경제원리들을 무시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인플레이션, 실업, 무거운 세금, 불황 등 현대 경제문제의 발생원인은 경제학의 교훈을 무시한 경제적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기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케인즈식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이 경제원칙에도 어긋나며 실제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는 주장에 대해 완전고용 없이는 완전생산을 달성할 수 없지만 완전생산 없이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우리들은 성장과 생산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노동절약형 기계의 발명이 실업을

초래한다는 통설(conventional wisdom)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기계의 발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즐릿은 뉴욕 시립대학에서 몇 개월밖에 대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경제학에 대한 통찰력은 아주 뛰어나다. 이는 “경제학은 제안된 어떤 정책이나 기존 정책이 단기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과학이다”라고 한 경제학에 대한 그의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는 경제학의 목표는 문제를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그의 노력을 이 책 전체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책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지지자인 해즐릿의 대표작으로, 현실경제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을 국내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번역했다. 이 책은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가 “경제학의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평가한 것에도 나타나 있듯이 경제학의 원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만연해 있는 경제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경제학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집단간의 사리추구와 부차적인 결과를 간과함으로써 경제적 오류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오류들을 수정하는 방법을 단 하나의 교훈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교훈은 어떤 특정한 경제정책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일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어느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 교훈을 현실세계에 적용시켜 정부 경제정책들(높은 세
 금, 과도한 신용, 노동조합, 관세, 수출촉진, 평형가격,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
 금법, 인플레이션, 소비축전)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케인즈
 식 사고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즉 필
 요없는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실업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동절약형 기계는 실업을 증대시킨다, 저축은 악덕이
 며 낭비가 미덕이다라는 것들을 경제적 반문맹(half-literacy)이라고 지적하
 면서 그러한 오류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반쪽을 명료하게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가 경제를 어느 한 그룹이나 계
 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혜택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그룹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파괴
 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책의 초판을 출간하고 32년이 지난 후 과거를
 회상해본다. 저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
 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반자본주의 정서
 를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들이 단기에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그룹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
 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통상적으로 일치한
 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학의 교훈을 강조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주장은 어떤 특정한 경제적 제안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일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결과
 도 추적해야 하며, 어느 특정한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
 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IMF 체제하 한국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
 제정책들에 관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MF 경제
 위기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저자의 교훈에 비추어볼 때,
 과거 잘못된 경제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가 곧 한 원인이 되지 않
 았나 생각된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문제들도 과
 거 잘못된 정책들의 장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각종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연
 금제도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앞으로의 연금지급
 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많은 실업대책들
 을 내놓고 있다. 또한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
 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현재 정부는 각종 공
 공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비지출이 불충분하므로 소비지출을 장려해
 야 한다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저축의욕을 꺾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시장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마비된 느낌이고 정부가 많은 부분에 개입하여
 통제 및 지시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개입은 효율
 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비효율적인 곳으로 전용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
 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때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정책들의 장·단기적
 인 영향과 특정 단체에 미치는 일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단
 체들에게 미치는 부차적인 결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관련서적 소개

A Note on Books

경제학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분량과 수준의 책들을 읽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책이 오늘날 한 권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권의 책들이 그러한 필요를 함께 충족시켜 준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126쪽) 훌륭한 책으로 파우스티노 발베Faustino Ballvé가 쓴 『경제학의 본질Essentials of Economics』(Irvington-on-Hudson, N. 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이 있는데 이 책은 원리들과 정책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많이 되는 책(327쪽)으로는 퍼시 그리브스 Percy Greaves가 쓴 『달러 위기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Dollar Crisis』(Belmont, Mass.: Western Islands, 1973)가 있다. 베티나 비엔 그리브스Bettina Bien Greaves는 『자유시장경제학Free Market Economics』(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이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을 편집하였다.

경제학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쓴 『인간행동Human Action』(Chicago: Contemporary Books, 1949, 1966, 907쪽)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경제학의 논리적 일관성과 정확성을 이전의 책들보다 더 확장하였다. 『인간행동』이 출간된 지 13년 후 미제스의 제자인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인간, 경제 그리고 국가Man, Economy, and State』(Mission, Kan.: Sheed, Andrews and McMell, 1962, 987쪽)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독창적이고 예리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 설명은 감탄할 정도로 명료하고 배열은 어떤 면에서 미제스의 대작보다 교재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단순한 방식으로 특정한 경제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단행본으로는 미제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South Holland, Ill.: Libertarian Press, 1952)과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

유Capitalism and Freedom』(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가 있다. 그리고 머레이 로스바드의 『통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하였는가?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라는 훌륭한 소책자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매우 긴급한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인플레이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The Inflation Crisis, and How to Resolve It』(New Rochelle, N. Y.: Arlington House, 1978)가 최근에 출간되었다.

이 책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현재의 사상들과 그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책들로는 본인의 『‘새 경제학’의 실패: 케인즈학설의 오류들에 대한 분석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An Analysis of the Keynesian Fallacies』(Arlington House, 1959), 하이에크F. A. Hayek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1945)과 그의 불멸의 책인 『자유헌정론Constitution of Liber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등이 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회주의: 경제 및 사회학적 분석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London: Jonathan Cape, 1936, 1969)은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서 집단주의 학설collectivistic doctrines을 가장 철저히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물론 독자들은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의 『경제적 퀘변Economic Sophism』(1844경)과 특히 그의 『당신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학 고전들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추천할 만한 중요한 책들의 초판연도만을 나열해보면 필립 워스티드Philip Wicksteed의 『정치경제학의 상식The Common Sense of Political Economy』(1911), 존 베이츠 클라크John Bates Clark의 『부의 분배The Distribution of Wealth』(1899), 유진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의 『자본의 실증이론*The Positive Theory of Capital*』(1888), 칼 멩거Karl Menger의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1871), 스탠리 제본스W. Stanley Jevons의 『정치경제학 이론*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1871),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1817),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1776) 등이다.

경제학은 수많은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화폐금융, 국제무역과 환율, 조세와 재정, 정부통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임금과 노동의 관계, 이자와 자본, 농업경제학, 임대료, 가격, 이윤, 시장, 경쟁과 독점, 가치와 효용, 통계학, 경기변동, 부와 빈곤, 사회보험, 주택, 공익사업, 수리경제학, 특정 산업과 경제사에 관한 연구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쓰여진 총서叢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먼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와 모든 경제요소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해 확고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러한 특정 분야를 결코 똑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학 일반에 대해 읽고 이러한 것을 갖춘 사람은 그가 관심이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적절한 책들을 능히 발견할 수 있다.

색 인

Index

용어색인

- 가격과 투기꾼prices and speculators 131~32
가혹한 세금Draconian taxation 244
건축업조합building trades labor unions 73, 184
경제균형economic equilibrium 189
‘경제원조’ 프로그램‘economic aid’ program 104
고전학과 경제학자classical economists 182, 272
공공사업촉진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WPA) 85
공공주택public housing 39~40, 154~56
공급과 수요supply and demand 124~27, 130, 193~94, 222, 235~36
구피법Guffey Act 115
국가경제 임시위원회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TNEC) 61, 192
국가철도조정위원회National Railroad Adjustment Board 73
극장조합theater labor unions 62
금본위제gold standard 101, 204
기능가격과 기능임금functional prices and functional wages 182
기술주의자Technocrats 60
노동조합labor unions 61, 72~74, 167~69, 171~75, 177~85, 206, 243, 247
노동조합과 자동차산업labor unions and the automobile industry 184
노동조합 파업labor unions strikes 169~70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181
노리스 댐Norris Dam 41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 244, 249
농업조정국 계획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AAA) Plan 111
뉴딜정책New Deal 106
뉴딜정책 지지자New Dealers 55, 249~50
뉴욕시New York City 154
도장공조합painters labor unions 61
마르크스주의자Marxists 182
목수조합carpenters labor unions 73
물가통제국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141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88
미국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America 246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 46, 88, 109, 114~15, 164, 243, 249
미국 재무부United States Treasury 115
베세메르 제철Bessemer steel 60
벽돌공조합bricklayers labor unions 73
복지국가Welfare State 155
브라질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Brazil 245~46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243~44, 248~49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58, 68, 70
‘새’ 경제학자‘New’ economists 19~22
서독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West Germany 245
석공조합stone masons labor unions 73
소매상 노동조합retail trade labor unions 8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42
스위스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Switzerland 245~46
시티은행Citibank 245

실업unemployment 35, 57~58, 60, 69~71, 75, 77, 84, 161, 173, 209,
 235~38, 246
 실업구제unemployment relief 162~63, 173~75, 244
 이동부양 세대 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244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Argentina 245~46
 연방 임금시간법Federal Wage-Hour Law 74
 영국 및 독일과 비교한 미국의 노동조합labor unions in the United States
 as compared to England and Germany 167
 영국의 소득세income tax in Great Britain 245
 영국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Britain 245~46
 영국 재무부 채권British treasury bills 224
 영농신용farm credit 46~52, 130, 131~34, 244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Austrian’ economists 251
 와그너-태프트-하틀리법Wagner-Taft-Hartley Act 174
 우루과이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Uruguay 245~46
 음악가조합musicians labor unions 62, 84~85
 이탈리아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Italy 245~46
 이탈리아 정부채권Italian government bonds 224
 일본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Japan 245~46
 1932년 불황depression of 1932 60
 1937년 유연탄법Bituminous Coal Act of 1937 115
 재건금융회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55
 저소득자 의료보험Medicaid 244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 80, 208~11, 242
 전기조합electricians labor unions 61, 73

제2차 세계대전과 가격통제World War II and price controls 140~41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경제World War II and German economy 31, 33
 제2차 세계대전과 미국 경제World War II and American economy 29, 33
 제2차 세계대전과 배급World War II and rationing 145
 제2차 세계대전과 암시장World War II and black market 146~47
 제2차 세계대전과 임대료 규제World War II and rent control 154
 제2차 세계대전과 초과이득세World War II and excess profits tax 193
 제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경제World War II and French economy 31, 33,
 152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192
 제조업조합manufacturing labor unions 184
 주택소유자 대출회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 55
 철도노동자 조합railway workers labor unions 62, 176~77
 칠레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Chile 245~46
 칠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Chile 224
 케인즈 학설Keynesians 199, 205~6, 242, 251
 ‘크루소’경제학‘Crusoe’ economics 123~24
 타일장이 조합tile setters labor unions 73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TVA) 41
 트럭운전자 조합teamsters labor unions 61
 평형가격parity 109~13, 117, 247
 프랑스의 인플레이션inflation in France 245~46
 행정절차에 관한 검찰총장위원회Attorney-General’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Procedure 73

American Scholar 11
A Refutation of Keynes' Attack on the Doctrine that Aggregate Supply Creates Aggregate Demand(Benjamin M. Anderson) 205
Capitalism and Freedom(Milton Friedman) 264
Ce qu'on voit et ce qu'on ne voit pas(Frederic Bastiat) 9
Economic Sophisms(Frederic Bastiat) 264
Essentials of Economics(Faustino Ballvé) 263
Free Market Economics(Bettina Bien Greaves) 263
General Theory(John Maynard Keynes) 242
History of England(Thomas Macaulay) 31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isery Manufacturers(William Felkin) 58
Human Action(Ludwig von Mises) 263
Man, Economy, and State(Murray N. Rothbard) 263
New Leader 11
New York Times 11, 255
Overproduction and Crises(Karl Rodbertus) 213
Planning for Freedom(Ludwig von Mises) 263
Principles of Economics(Alfred Marshall) 205
Principles of Economics(Karl Menger) 265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John Stuart Mill) 265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David Ricardo) 265
Reason and Nature(Morris R. Cohen) 8
Recent Economic Changes(David A. Wells) 59

Risk, Uncertainty and Profits(Frank H. Knight) 193
Saint Joan(George Bernard Shaw) 41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Ludwig von Mises) 264
The Bogey of Economic Maturity(George Terborgh) 218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Gunnar Myrdal) 62
The Common Sense of Political Economy(Philip Wicksteed) 264
The Constitution of Liberty(F. A. Hayek) 264
The Critics of Keynesian Economics(Henry Hazlitt) 205
The Distribution of Wealth(John Bates Clark) 264
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An Analysis of the Keynesian Fallacies(Henry Hazlitt) 199, 264
The Federalist Papers(Alexander Hamilton) 145
The Inflation Crisis, and How to Resolve It(Henry Hazlitt) 264
The Positive Theory of Capital(Eugen von Böhm-Bawerk) 265
The Realm of Truth(George Santayana) 230
The Road to Serfdom(F. A. Hayek) 264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Ludwig von Mises) 200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W. Stanley Jevons) 265
The Theory of Unemployment(A. C. Pigou) 186
The Theory of Wages(Paul H. Douglas) 186
The Value of Money(Benjamin M. Anderson) 200
The Wealth of Nations(Adam Smith) 58, 86, 265
The Welfare Industry(Charles D. Hobbs) 244
Understanding the Dollar Crisis(Percy L. Greaves) 263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Murray N. Rothbard) 264

인명색인

Arkwright, Sir Richard 59

Bacon, Francis 232

Douglas, Major 9

Edwards, Corwin 61

Hansen, Alvin 9

Marx, Karl 9

Roosevelt, Eleanor 63

Sumner, William Graham 232

Veblen, Thorstein 9

Wheeler, Dan H. 115

헨리 해즐릿 Henry Hazlitt

1894년 출생.

자유시장을 옹호한 자유론자이며 경제 저널리스트이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미국에 소개하였고,

경제교육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을 설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학의 교훈』을 비롯한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뉴스위크』 등에

1만 차례 이상 글을 기고했다.

1993년 생을 마감했다.

강기춘 Gi Choon Kang

1960년 경남 남해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1922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아이오와 주립대학 초빙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다부문 경기변동이론이다.

주요 역서로는 『자본주의의 이상』(1998)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지역총생산의 장기지속성 및 공동변화」(1995)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변동」(1996),

「거시경제충격이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1998) 등 여러 편이 있다.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 규제와 재산권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김일중Il-Joong Kim 저

2.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Economic Policy/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김진현 역

3. 경쟁과 기업가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커즈너Israel M. Kirzner 저/이성순 역

4.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호페Hans-Hermann Hoppe 저/이선환 역

5. 자유주의Liberal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이지순 역

6.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노스Douglass C. North 저/이병기 역

7. 윤리와 경제진보Ethics and Economic Progress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이필우 역

8. 헌법적 질서의 경제학과 윤리학The Economics and the Ethics of Constitutional Order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공병호·조창훈 역

9. 시장경제란 무엇인가What is the Free Market Econo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10. 진화나 창조나Evolution or Creation

민경국Kyong-Kuk Min 저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1. 시장의 도덕The Morals of Markets and Related Essays
액튼Harry Burrows Acton 저/이종욱·유주현 역

12. 경제행위와 제도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에거트슨Thráinn Eggertsson 저/장현준 역

13.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신중섭 역

14. 시장경제와 그 적들The Free Market Economy and Its Ene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15.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전용덕Yoong-Deok Jeon · 김영용Young-Yong Kim · 정기화Kee-hwa Chung 저

16.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윤용준 역

1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Law and Order of Market Economy
민경국Kyong-Kuk Min 저

- 18, 19. 자유헌정론 I · II The Constitution of Liberty I · II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저/김균 역

20. 도덕감성The Moral Sense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lson 저/안재욱·이은영 역

21.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민경국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22. 법Law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저/김정호 역

23.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서병훈 역

24. 경쟁과 독점競爭と獨占
가즈노리越後和典 저/공병호 역

25. 경제학적 사고방식The Economic Way of Thinking
헤인Paul Heyne 저/주만수 · 한홍렬 역

26. 애덤 스미스의 지혜The Wisdom of Adam Smith
스미스Adam Smith 저/로지Benjamin Rogge편/박순성 역

27. 개인주의와 경제질서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박상수 역

28. 기업가Entrepreneur
공병호Byeong-Ho Gong 저

29.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Philosophy: Who Needs It
랜드Ayn Rand 저/이종욱·유주현 역

30. 자본주의의 이상Capitalism: The Unknown Ideal
랜드Ayn Rand 저/강기춘 역

31. 선택받은 자들의 비전The Vision of the Anointed
소웰Thomas Sowell 저/노홍성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32.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안재욱·이은영 역

33.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박효종Hyo-chong Park 저

34. 시장경제와 민주주의Free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공병호Byeong-Ho Gong 저
